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학위논문

위반하는 사회

: 실시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나타나는  
사회분화의 역동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김 수 진

위반하는 사회  
: 실시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나타나는  
사회분화의 역동

지도교수 황 익 주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김 수 진

김수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채 수 홍      (인) 

부위원장      이 응 철      (인) 

위      원      황 익 주      (인) 

# 국문초록

김 수 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 논문은 실시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나타나는 사회분화의 역동을 분석함으로써 현실사회와 독특한 접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구조적 원리를 규명한다. 아프리카TV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방송 플랫폼이다. 인터넷방송은 1명의 BJ와 다수 시청자의 구도 속에서 실시간방송-채팅과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사이버 유사화폐 별풍선 선물 활동을 골자로 한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선정성과 폭력성, 위법의 연표로 포착되기가 반복되면서 아프리카TV는 오늘날 현실문제의 온상지로, 마땅히 통제되고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심판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사회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이 아닌 가상적인 것으로,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삼는 위계적 접근에 기대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발한다. 일단의 평가에 앞서, 아프리카TV 현지의 관점에서 인터넷방송 활동을 이해해보고자 시도한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TV 사회의 어떠한 작동 원리가 이곳에서 드러나는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하며, 이를 별풍선 증여, 말싸움과 팬덤, 감시·제재와 저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실시간 인터넷방송-채팅에서 사람들은 말과 별풍선 증여로써 관심을 경쟁적으로 쟁탈한다. 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제3자로 개입하는 행위의 연쇄고리 속에서 관심 받고자 하는 노력은 친목으로 이어질 수 없고, 관계가 지속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려는 시도는 거듭 좌절된다. 익명의 다중이 모이고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흐름”이라 불리는 무엇인가가 순간순간 생성되고 흩어진다. “흐름”은 개별 인간의 의도에 선행하는 아프리카TV의 관계성이다. 이를 본 연구는 현지의 집합적 양상을 재현하는 이름들의 변환 경로를 통해 추적할 것이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돈이자 선물이다. BJ는 별풍선 증여로 발생하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결합하고 변환시키는 의무통과점이다. BJ에게 붙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명명은 별풍선 증여에서 짝지어 작동하는 ‘자본주의적 영역’과 ‘비-자본주의적 영역’의 자리를 표시한다. 한편 관심을 독점할 수 없음은 반권력주의에 가닿는다. 아프리카TV 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경은 별풍선 규모와 비례해 지위를 등급화하고 있지만, 증여자의 위세는 제3자의 관여로 항상 제동이 걸리고 권력으로 안착되지 못한다.



현지에 반권력의 지향은 반친목주의와도 연결된다. BJ는 아프리카TV에 친목을 필수적으로 소환하는 구심점이다. 그러나 친목의 가시화는 항상 반친목 규정과 직면한다. 아프리카TV에서 BJ를 중심으로 한 팬덤은 반친목주의로 재생산 된다. 친목관계가 세력화할 조짐이 감지되면 친목은 이내 “쫓목,” “갑질”의 비하적 이름으로 전환되고 지탄 받는다. 나아가 극단적인 친목은 극단적인 적대인 안티세력과 유비되는 사회의 적이다.

이러한 반권력주의의 사회에 가장 가까이 드리우는 권력은 아프리카TV 회사이다. 이른바 ‘현실’과 ‘아프리카TV’의 이분법적 대조는 아프리카TV 안에서 ‘운영자’와 ‘현지’의 차이로 그어진다. 운영자와 현지인 간 어긋나는 관점의 굴절과 접합은 규제-금기, 콘텐츠-소통방송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작동을 본 연구는 구조적 결합으로써 분석한다.

요컨대 아프리카TV는 항상 어떠한 영역이나 기준에 반하거나(반-) 그에 포함되지 않는(비-) 영역을 동시에 생성하며 작동하는 독특한 장소이다. 이러한 아프리카TV 사회를 연구자는 위반의 체계라 규명한다. 수평적으로 분화하는 현지의 비하적 명명은 위반의 체계로서 사회의 자각을 표시한다. 위반하는 사회의 존재양식은 사회분화의 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아프리카TV, 실시간 인터넷방송, 사이버스페이스, 미디어, 체계, 사회분화

**학 번** : 2015-22537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이론적 배경 .....	4
1) 사이버스페이스, 미디어, 현실 .....	4
2) 가치 변환 .....	7
3. 연구자의 여정 .....	12
II. 아프리카TV의 등장 .....	15
1. 지형 .....	15
2. 역사 .....	24
3. 일상 .....	27
III. 별풍선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	31
1. 별풍선, 돈, 선물 .....	33
1) 일상방송 .....	33
2) 돈놀이 .....	39
3) 별풍선 교환 경로 .....	45
2. 별풍선 증여와 권력 .....	55
1) BJ 등급화에 따른 위세 .....	55
2) 시청자 내 수직적 분화 .....	63
3. “괴물”의 탄생 .....	73
1) 비하된 명명의 함의 .....	73
2) 오명 씻어내기 .....	75
IV. 반(反)친목-팬덤 .....	79
1. 친목 기반 커뮤니티 .....	82

1) 팬덤: “작은방”의 사례 .....	82
2) 바깥에서의 친목 .....	88
2. 집단 재생산 원리로서 친목 금기 .....	92
1) 반친목주의 .....	92
2) “비즈니스”로서 이성애적 로맨스 .....	99
3) 금기 위반 활동: 안티 .....	107
3. 집단 분화와 환대-적대 .....	116
1) 농담관계: 우리와 손님의 구분 .....	116
2) 팬, 유동층, 가십 .....	120
 V. 감시망과 위반의 자기규정 .....	126
1. 자발적 예측의 위협과 틈새 .....	127
1) 운영자의 규제 .....	127
2) 보상체제의 강화 .....	142
3) 콘텐츠라는 명분 .....	146
2. 위반의 체계 .....	151
3. 비하된 존재들의 내부분화 .....	153
 VI. 결론 .....	158
 참고문헌 .....	162
부록 .....	170
Abstract .....	174

## 도식 목차

[도식 I-1] 구조적 결합 평면도: 두 가지 예시 .....	6
[도식 III-1] 기식 관계 .....	32
[도식 III-2] 순환적 고리 .....	44
[도식 III-3] 아프리카TV 생방송의 사이버네틱스 .....	51
[도식 V-1] ‘아프리카TV’와 ‘현실’의 구조적 연결 .....	152
[도식 V-2] 종합적 흐름도 .....	156

이 논문은 2015년 정부재원(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1B20151813155)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o. 21B20151813155)

## 일러두기

- 본 연구에 등장한 이름(닉네임)은 연구자가 임의로 가명 처리한 것이다.
- 인터넷 상에서 공개적으로 발화된 내용이나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를 사용했다.

(...): 문장 내 일부분 생략

[...]: 문장 간 다른 문장(들) 생략

( ): 연구자의 부연 설명

단, 원문에서 괄호가 쓰인 경우에는 별도로 각주를 표기했다.

- 그밖에 인용문 중 굵음체 등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문의 방식을 따랐다.
- 아프리카TV에서 사용되는 용어 해설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 I. 서론

## 1. 문제제기

“아프리카(TV) 신대륙”<sup>1)</sup>의 출현은 어느덧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시간 인터넷방송-채팅과 사이버 유사화폐인 “별풍선 선물” 활동을 골자로 한 전례 없던 이 신기술 공간·경험은 국가, 법, 시장 등 일반 사회의 시선에서 여전히 ‘자연 상태’ 처럼 보인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선정성과 폭력성, 위법의 연표로 포착되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아프리카TV는 오늘날 현실문제의 병폐가 드러나는 온상지로, 마땅히 통제되고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심판받고 있다.

2017년 10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방송 BJ로 사회가 명들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뒷받침할 인터넷방송 영상과 제보가 잇따라 제시됐고, 문제의 원흉이자 해결지점으로 궁극적으로 별풍선 제도에 화살이 몰렸다.<sup>2)</sup> 감사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루 별풍선 결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사실 국정감사 이전에도 국회에선 이미 인터넷방송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였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아프리카TV 회사는 ‘건전한 인터넷 방송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이트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12월 아프리카TV의 연간매출액은 946억 원으로, 매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오며 국내 뉴미디어 플랫폼 산업 내 독보적인 시장 선점과 규모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sup>3)</sup> 같은 해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약 700만 명”의 인구가

---

1)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출범 때부터 내세웠던 슬로건 “방송 놀이의 신대륙 아프리카”에서 비롯한 말이다. 근래에는 “개인방송의 신대륙 아프리카TV”로 표현이 다소 바뀌었다.

2) “개인방송 BJ로 사회가 명들고 있다”는 말은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이다. 국정감사에서 하룻밤 새 별풍선에 6천 6백만 원을 쓴 남성 등의 사례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고, BJ의 과도한 선정적, 폭력적 행동 또한 별풍선 제도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아시아경제 2017.10.13.일자, 시사저널 2017.10.18.일자 기사 등). 한편 아프리카TV의 등장과 성장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MCN(Multi Channel Networks) 신산업 형성의 발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3) 2018년 2월 6일 개제된 아프리카TV 연간 기업실적자료 (<http://corp.afreecatv.com/ir/ir.html>)와

아프리카TV에 활동 중이다.<sup>4)</sup> 앞서 소개한 논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잠재적인 문제적 범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아직 드물게 존재하긴 하지만 아프리카TV를 다룬 선행연구 또한 상기한 규제의 관점과 근본적인 유사성—아프리카TV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병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공유한다. 학계에서는 인터넷방송의 대중화와 더불어 2009년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먹방’<sup>5)</sup>이 주로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때 먹방에 열광하는 현상은 어떠한 사회적 결핍과 억압의 투영이자 그에 대한 시청자의 대리만족 및 자기통치로 설명되었다(김형우 2015; 김혜진 2015; 나은경 2015; 홍석경·박소정 2016; 문영은 외 2017). 연구자 역시 ‘왜 아프리카TV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의문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에 대한 ‘익숙한’ 방식의 판명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 특히 선행연구가 간과했던 다음의 한 가지 자명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비슷한 호기심으로부터도 전혀 다른 질문이 도출될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sup>6)</sup>와 시청자는 사회적 잣대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익히 인지하고 있다. 헌신적인 아프리카TV 활동은 대개 주변에 쉽게 터놓지 않는 은밀한 것이고, 인터넷공간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괴물,” “가축,” “-충(虫)” 등과 같이 비하적으로 일컫길 서슴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TV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이 같은 인식과 함께 모종의 ‘아프리카TV스러움’이 분출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계열로서 현지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개별 BJ와 시청자가 아프리카TV를 향한 사회적 비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서는 ‘이상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상기한 선행연구가 ‘먹방’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연구자가 다루는 현상은 특정한 방송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TV에서 포괄적으로 나타

---

2018년 6월 11일 기준 국내 증시 아프리카TV 기업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coinfo.nhn?code=067160&target=finsum\\_more](https://finance.naver.com/item/coinfo.nhn?code=067160&target=finsum_more))  
참고.

4) 아프리카TV와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추정 수치(머니투데이방송 2017.04.20일자).  
5) ‘먹방’이란 BJ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태연하게 과식하는 방송이다. 아프리카TV에서 처음 등장했던 먹방은 이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확장됐으며, TV 프로그램에서도 인기 소재로 쓰일 만큼 새로운 방송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6) BJ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진행자를 일컫는 ‘Broadcasting Jockey’의 줄임말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BJ와 시청자를 통칭해 아프리카TV ‘현지인’이나 ‘참여자,’ ‘아프리카TV 사람들’로 쓰고 있다.

나는 사회적인 것과 그 작동 원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연구자가 사회적인 것을 논하는 이유는, 어떠한 집합적 현상의 특징이 곧 그 집합 속 개별 인간이 본래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하나의 경구처럼 말해지는 바 “BJ도 관중(관심종자)이고 시청자도 관중”이다.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은 1명/소수의 BJ와 다수 시청자 군중의 구도에서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방송-채팅 및 별풍선 선물을 토대로 하는 ‘관심의 공간’이다.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별풍선은 BJ의 금전적 수입원이자 인터넷방송 활동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실시간 시청자채팅은 생방송 분위기를 조성하고 BJ에게 말할 거리를 제공한다. 개별 시청자의 입장에서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여러 채팅 가운데 자신의 채팅이 BJ에 의해 읽히기는 ‘특별한’ 일이다. 별풍선 선물은 시청자가 자신의 이름과 말을 효과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TV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중층적인 결들을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별풍선-증여’와 ‘말-증여’의 작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론(III장~V장) 구성에 따른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는 왜 BJ에게 별풍선을 주고, 별풍선을 받는 BJ는 무엇을 주는가? “별풍선 선물”에서 호혜적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둘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BJ와 시청자 간 소통에서 어떤 성격의 말이 유의미하게 포착되는가? 특히 참여자 간 열띤 호전(好戰)적 발화로써 지속되는 아프리카TV의 집단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적으로 인터넷방송이 문제시되는 초점이 별풍선과 채팅문화에 있다면, 아프리카TV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제재는 현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질문을 품고 현지에 증여의 산물로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이름들을 따라갔다. 아프리카TV에서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이름이란 개별 BJ와 시청자의 이름(닉네임)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자가 함께 표류할 수 있었던 이름들은 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주적 양상들의 재현이었다. 달리 말해 연구자는 못 시청자의 위치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글자로 존재하는 ‘시청자’를 따라다녔는데, 그는 한 명의 개별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이름을 달고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출몰하고 변신하는 다수의 존재들이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버스페이스-현실의 관점에서 아프리카TV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경험이 일상화한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가 품고 있는 이론적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사회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변덕스러운 양태를 연구자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때 인류학은 어떠한 설명력을 지니는가?

### 1) 사이버스페이스, 미디어, 현실

아프리카TV를 향한 도덕적 위기감과 법적 규제의 난해함의 근저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존재론적 물음이 관련해 있다. 하나의 추론은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 세계가 오늘날 현실에 동등한 위상을 지니지만 동일한 체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사이버스페이스를 가상적인 것으로만 여긴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려는 입장은 그 활동이 지닌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있기에 사이버스페이스를 가상세계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역설에 빠질 것이다. 또한 ‘현실’의 관점으로 ‘가상세계’를 이해하려 든다면 그 설명은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으며—부분적이라는 그 자체로선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총체적 유실을 떠안는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담론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가상’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 데에는 ‘직접 그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연구대상이나 연구대상지로 삼았던 인류학 연구에서도 한동안 이를 오프라인 행위의 매개로 위치 짓거나 현실문제가 투영된 공간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Wilson and Peterson 2002).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터넷이 있기 전에도) 전통적인 인류학 연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재를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 칼룰리(Kaluli)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짝을 이뤄 존재한다(Schieffelin 1976). 칼룰리의 모든 남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야생돼지 반영을 갖고 있다. 이 남성과 야생돼지의 관계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초자연적이고 성스러운 세계가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ibid.: 96-97). 이러한 인류학 연구는 현실의 재현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가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 현실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 비단 새로운 발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공간의 경우 직접 눈으로 보고 접속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관점의 ‘전환’이 왜 그토록 쉽지 않았는지 오히려 의아해진다(Marcus 2012: xvii).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말하기는 곧 존재자로서 현시(現示)하기이다. 쉽게 말해 실물 인간의 웹사이트 접속 상태 자체만으로는 그가 사이버스페이스에 출현했는지 입증되지 않지만 누군가 말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프리카TV 생방송 공간에는—나와 관계할 상대가 있는지조차 가시화되지 않기에—사회적 관계성이 내재해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BJ의 말에 채팅을 친다면? 말은 말을 낳는다. 대화의 흐름이란 발화자 개인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기 마련인데, 인터넷생방송 공간에 살아있는 것은 발생한 커뮤니케이션들의 연쇄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처럼 연결된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는 어떠한 원리가 있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회의 형성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인류학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의 장소로 발견한 연구들이 등장하며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미신’이 벗겨지고 있다(Boellstorff 2008; 이길호 201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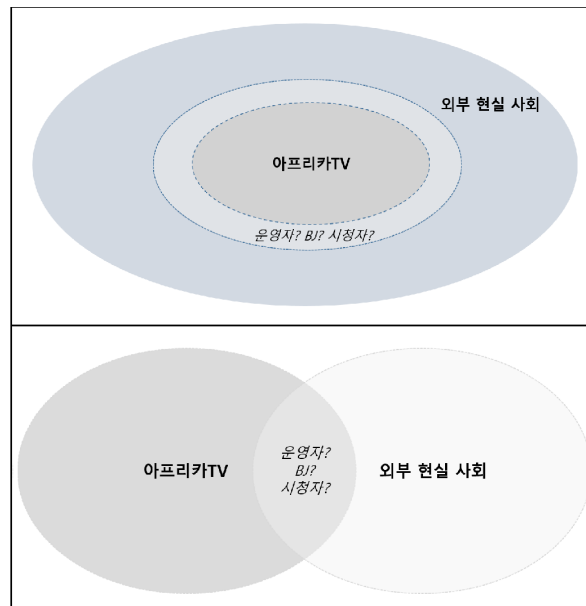
한편, 선행연구마다 취하는 상이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의 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잔존해 있다. 오늘날 인터넷 경험이 일상에 스며있음을 상기한다면, 과연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 간 비교·대조는 더 이상 사이버스페이스를 이해하는 데 무의미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일까? 초기 인류학에서 비교연구방법(comparative methods)은 타문화에 대한 서구 학계의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접근에 반기를 들며 발전했다. 이후 지식 실천으로서 비교연구에 관한 보다 성찰적인 물음이 이어졌고, 인류학자들은 비교연구가 근본적으로 누구의 비교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사적 맥락에서 스트래선(Marilyn Strathern)은 통상적 인식론에서 당연시 여기는 연결(connection)—모든 것은 관계적이라는 사고—을 끊어놓음(interruption)으로써 낯설게 재사유하도록 돕는 것으로 비교(comparison)의 의의를 재발굴했다(Strathern 2002: xv-xvi). 예로 그녀의 민족지는 뉴기니 하겐(Hagen) 고산지대 소규모 공동체를 서구(European-American) 문명사회와 대조시킨다. 이는 ‘소규모 부족사회는 이렇고 서구 현대사회는 저렇다’는 식의 ‘상대주의적인’ 본질 규명을 도모한 것이 아니다. 비교방법론이 발휘하는 힘은 (인류학자 자신을 포함한) 서구인에게 익숙한 이분법이 감추고 있던 비밀—예컨대, 자연/문화 대립의

불가능성—을 성찰적으로 폭로한 데 있다(Strathern 1980; Tsing 2014: 227).

연구자는 이러한 방법론을 참조하여 사이버스페이스 대 현실이라는 비교틀을 적극적으로 전용하고자 한다. 이는 결코 본 연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국한해 논의를 펼치고자 함이 아니다. 논의의 출발 단계로서 이항대립적인 공간적 사유는 차차 어떠한 범주적 영역들 사이 포함과 배제의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연구자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점을 택하기로 했다. ‘아프리카TV’와 ‘아프리카TV가 아닌 무엇’의 대조는 현지의 관점에서 기술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TV 인생은 현실 인생과 다르다,” “아프리카TV랑 유튜브는 다르다,” “방송과 실재는 다르다” 등등과 같은 차이에 관한 현지의 서술에 입각한 연구자의 다시쓰기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활동은 (현실에 의해 그것이 규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스스로 어떤 ‘내부’와 그 ‘바깥’의 경계를 생성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경계의 생성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음은 연구자가 아프리카TV와 관련된 영역들을 가설적으로 도식화해본 것이다. 우선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해 보았다. [도식 1-1]에서 ‘아프리카TV’와 ‘외부 현실 사회’는 상호간접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결합 관계에 있다.



[도식 1-1] 구조적 결합 평면도: 두 가지 예시

사실 연구자가 위의 도식을 제시한 목적은 이러한 공간적 사유가 초래할 오해나 간과하는 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도식 I-1] 중 위쪽 도식은 {아프리카TV}가 {외부 현실 사회}에 속해있다는 인상을 준다. 과연 그러하다면 연구자의 문제제기와 달리 현실사회의 관점에서 아프리카TV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아래쪽 도식은 {아프리카TV}와 {외부 현실 사회}의 서로 상대에 대한 여집합 영역을 그려놓았다는 점에서 보다 설득력을 지니는 듯 보인다. 혹은 한쪽 집합에서 나타난 A가 다른 쪽에서도 A로 표시되는 데칼코마니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가? 아래쪽 도식만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류하게 된다. 이에 일단은 어떠한 3차원적인 상상이 아프리카TV사회를 이해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해본다.

이상의 무엇보다 세심히 다뤄질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아프리카TV’와 ‘외부 사회 현실’ 간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방송이라는 말에서부터 아프리카TV가 사이버스페이스와 미디어의 결합임은 상식적으로도 추론 가능하다. 다만 연구자는 아프리카TV에 혼합되어 있는 ‘미디어’의 결을 방송이라는 매체적 특성에만 국한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TV를 그것이 BJ의 방송활동이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 사이의 독특한 접힘을 발생시키는 매개적 공간으로 사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 매개의 자리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위 도식에서는 가설적으로 그곳에 아프리카TV 내 인간행위자로 떠올릴 수 있는 운영자, BJ, 시청자를 적어보았다. 인간행위자는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 양쪽에 접속해있다는 점에서 두 영역 간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연결점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 본인을 포함하여 인류학자가 현장연구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여러 체계들 사이를 움직이며 살고 있는 행위자의 모습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과연 익명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행위자를 인간 주체로만 다룰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다음으로 연구자는 가치 변환을 추적해온 인류학의 연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 2) 가치 변환

한 사회의 요소가 다른 사회에 굴절된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 변환이 발생한 것이라 달리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인류학 연구는 가치의 결정(結晶)으로서 인간과 사물의 이동에 주목해왔다. 본 절에서 다룰 선행연구는 대부분 모스(Marcel Mauss)

의 『증여론』에 빛지고 있다. 연구자는 증여의 유명한 사례지인 멜라네시아 등지를 경유하여 아프리카TV에 관한 논의로 돌아올 것이다.

『증여론』에서 가치의 문제는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받은 물건을 되돌려주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대두되었다. 라나이피리의 진술<sup>7)</sup>을 빌려 모스는 그 신비스러운 힘을 ‘하우(hau)’로 개념화했다. “교환되는 물건은 교환을 행하는 자와 결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모스 2002: 129)는 문장은 하우의 성질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증여자의 일부가 부착해있는 물건을 소유해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결국 증여는 받는 자에게 부채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증여 받은 물건은 다시 건네져야만 한다는 것이 원시인의 설명이다.

증여가 일반적인 교환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그것이 항상 증여자와 수증자가 아닌 (잠재적인) 제3자의 자리를 관계에 그려넣음으로써 열린 고리를 지속적으로 생성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쿨라 교역에서 쿨라 조개목걸이와 팔찌는 각기 정해진 방향에 따라 ‘A에게서 B로, B에게서 C로, C에게서 D로… (훗날 궁극적으로는 다시 A에게 돌아오는)’의 패턴으로 사람들 사이를 순환한다(말리노브스키 2013). 순환하는 조개껍데기의 외형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쿨라 조개는 의례를 위한 장신용구로만 쓰일 뿐 실용적인 쓰임새는 없다. 즉, 가치재로서 쿨라 조개의 가치는 사물 자체에 내재한 어떤 성질 때문이라거나 교환(barter/bargain)매개로서의 가치가 그 사물에 외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조개껍데기가 귀중하다는 것은 현지인들만의 공유된 믿음처럼 보이는데, 이름을 지닌 쿨라 조개에는 대개

7) 라나이피리는 모스가 재인용한 베스트(R. Elsdon Best)의 민족지에 등장하는 마오리족 정보제공자 중 한 명이다. 모스가 “물건의 영”(모스 2002: 66)이라 번역한 하우에 관한 라나이피리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특정한 물품(타웅가)을 갖고 있어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가정합시다. 또 당신이 그것을 일정한 대가도 받지 않고 나에게 준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물품을 제3자에게 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그는 나에게 ‘대가(utu)’로서 무엇인가를 주려고 마음먹고, 나에게 무엇인가(타웅가)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주는 이 ‘타웅가’는 내가 당신한테서 받았으며 또 내가 그에게 넘겨준 ‘타웅가’의 영(하우)입니다. 나는 (당신한테서 온) ‘타웅가’ 때문에 내가 받은 ‘타웅가’를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유키’(tika)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타웅가의 ‘하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이 두 번째의 ‘타웅가’를 갖는다면, 나는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하우’, 즉 개인 소유물의 ‘하우’, 타웅가의 ‘하우’, 숲의 ‘하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까(Kati ena).” (ibid.: 66-67, 인용문의 말줄임표는 필자 표시, 괄호 안 설명은 원문의 내용.)

하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이후 인류학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왔다. 이는 본 논문에서는 다 다루기 힘든 방대한 작업으로, 관련한 다음의 연구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그레이버 2009; 오명석 2010; 살린스 2014; Weiner 1985 등).

원소유주(씨족)의 이름이 부착해있으며 증여자의 씨족과 관련한 기원신화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동을 보면, 어떤 조개의 원소유주인 A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동시에 유명한 쿨라 조개의 명성이 유지, 확장되는 것—은 A가 그것을 B에게 건네는 사건에서가 아니라, A를 떠난 쿨라 조개가 B를 거쳐 다른 수증자들에게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다(살린스 2014: 230-239). 요컨대, 사물이 가치재로서의 삶을 영속하려면 끊임없이 교환되어야만 한다. 이로부터 ‘하우’라는 신비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온 물건의 힘은 곧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건을 개인의 생산물이 아닌 관계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Strathern 1988: 142; 그레이버 2009: 107).

쿨라 순환의 시간적 지연 속에서 실제 주고-받고-되돌려주는 선물-증여의 관계는 ‘A→B→C→D→...’와 같은 일방향성을 띤다. A에게 물건을 받음으로써 A에 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B는 A가 아닌 C에게 증여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는 일종의 ‘넌센스’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에 착안한 학자들은 ‘왜 되돌려주는가?’에 집중했던 『증여론』에서의 중심 질문을 ‘왜 주는가?’로 옮겨왔다.

아프리카TV에서는 BJ와 시청자 사이에 말과 별풍선이 증여된다. 말을 증여물로 취급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시청자의 출현이나 어떤 관계가 가시화하지 않은 무언의 생방송-채팅 현장에서 말이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는 개시 선물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채팅이 증여되는 것은 아니다.) 음성과 영상 수단을 독점한 1명 혹은 소수의 BJ와 글자로 존재하는 다수 시청자라는 비대칭적 구도 속에서 (시청자수가 1명 이하가 아닌 경우라면) 개별 증여자와 수증자가 아닌 현장의 목격자·참여자로서 시청자 군중은 제3자로서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말과 별풍선으로써 가시화하는 생방송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증여의 원리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별풍선은 오로지 시청자가 BJ에게 줄 수만 있고 그 교환은 불가역적이다. 인터넷방송이 직업이며 별풍선이 금전적인 주요 수입원인 BJ가 시청자에게 (자신의 무엇인가를) 왜 돌려주는지는 일견 상식적인 선에서만도 추측 가능할 것 같다. 이에 비해 일방적인 지출만이 발생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BJ에게 별풍선을 왜 주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듯 보인다.

‘왜’를 묻는 질문은 종종 인간 주체의 행위 동기나 목적을 답으로 추구한다는 인상을 남긴다.<sup>8)</sup> 그러나 어떠한 관계성은 개인들을 요소로 하되 그것이 곧 개인들의

8) 덧붙이자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교환을 위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목적론적인 답을 제시했던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은 호혜성의 가상적인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모스가 세심하게 천착했던 증여의 문제를 교환의 범주 안으로 흡수시킨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박세진 2016: 277-281 참고).

합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답만을 좇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에 오해를 피하고자 ‘왜 주는가’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보겠다: 어떤 것을 증여할 때 무엇이 생성되는가?<sup>9)</sup> 생성되는 것은 가치이다.<sup>10)</sup> 그렇다면 가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군의 선행연구는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과 사물의 이동 경로에 주목하여 그로부터 실재화하는 상징적인 것에 관해 천착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 유명한 쿨라 교환 지역의 일부인 뉴기니의 가와(Gawa) 섬을 연구한 먼(Nancy Munn 1977; 1983; 1986)의 논의를 소개하겠다. 그녀는 음식주기, 카누 제작, 쿨라 교환 등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행위들의 경로를 추적하며, 증여-교환 행위를 통해 가와 사회의 행위체계와 시공간구조가 구축됨을 분석한다.

가와에는 물건들 간 선명한 위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음식처럼 금방 사라지는 물건은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반면 지속성 있는 물품들은—그 물건들끼리도 섬세한 등급이 나뉘는 뿐 아니라—높은 등급에 속한다. 허나 먼은 가치 측정의 기본적인 대상을 사물이 아니라 행위로 삼는다. 가와에서 음식을 주는 행위는 연대와 의무를 생성하고, 특히 바다 건너온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카누나 쿨라 조개 등이 오가는 더 높은 수준의 교환을 가능케 한다. 먼에 따르면 이러한 교환 행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급의 충위를 유지하거나 그에 진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일련의 행위들 자체가 교환의 충위를 재-생성하며, 이 과정 안에서/-으로써 행위자는 더 큰 “상호주관적 시공(intersubjective spacetime)”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재현하고 표현한다. 행위자의 시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지배력은 명성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가와와 상징성(symbolism) 및 가치와 연결된 성질기호(qualisign)을 언급하는 먼의 민족지를 읽다 보면 문득 이 모든 것이 연구자의 사변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sup>11)</sup> 사변 자체만도 의의가 있겠지만 연구자는 그녀가 민족지적 사실로서 가치를 전환시키는 번역자<sup>12)</sup>의 위치를 세심하게 짚어낸 데에 주목한다. 일례로

9) 이 질문은 중간자가 아닌 최초의 증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와인들의 쿨라 교역에서 ‘바가(vaga)’는 부채관계를 맺은 경로로부터 이탈한(diverted) 조개껍데기를 의미한다. 바가는 기존의 경로를 위협하고, 개시 선물(opening gift)로서 바가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부채 관계가 안정된 경로로 이어질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바가는 동원된 경로를 (재)강화하거나 명성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기도 한다(Munn 1983: 295-302). 다른 한편으로 ‘주는(일방적 증여)’ 문제는 기식 관계(셰르 2002)로부터 어떻게 교환이 발생하는가를 논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10) 앞서 쿨라 조개와 증여자의 명성이 언급되었던 것은 하나의 예이자 힌트이기도 했다.

11) 이러한 점과 관련해 그레이버는 문의 가치이론이 다른 이론가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해 온 점을 아쉬워하며 그녀의 논의에 관심을 가진 일군의 연구들 또한 문의 가치이론보다는 그녀의 현상학적 접근에 천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레이버 2009: 122).

가와 남성이 건조한 생산물인 카누가 가치재로서 교환물로 전환되는 사이에는 결절점으로서 혼인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 짝—“nodal couple”(Munn 1977: 43)—이 있다. 이러한 점은 쿨라 교환에 관해 그녀가 제시했던 행위자 개념에서 보다 정교하게 드러난다:

“비록 인간이 조개껍질의 가치를 정의하는 행위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조개껍질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정의내릴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조개껍질과 인간은 서로의 가치를 정의하는 데 호혜적인 관계에 놓인 행위자이다.” (Munn 1983: 283)

사물의 행위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힘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자가 작용할 때 비로소 발휘되는데, 다만 그 행위자가 꼭 인간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먼의 논의에서는 “인간-사물의 연계 자체가 행위자로 조명”(이경묵 2016: 333)되고 있다. 그녀가 가와의 명성에 대해 ‘누군가의 이름이 여행해 다닌다’(Munn 1986: 105-106)’고 한 말은 단순한 은유에 그치지 않는다. “매개에 의해, 전환에 의해, 재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에서”(Latour 1997: 178) 시공간은 증식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연구자는 누구/무엇인가가 인간행위자인지 비인간행위자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BJ는 그의 인간적인 형체가 화면에 공개된다. 시청자로 참여하는 실물 인간에게 화면에 가시화하는 닉네임과 채팅은 자신의 존재이자 내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채도하는 채팅과 게시글은 일면 BJ에게 디지털화된 “이진법” 기호이고 ‘소음’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출발하는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는 이들이 관심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름은 이러한 바를 매개하고 실체화한다.

아프리카TV에는 여러 이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개별 BJ와 시청자에게는 고유한 닉네임이 있다. 또한 현지의 어떠한 관계성에 부착되는 이름들이 수시로 출몰해 떠돌아다닌다. 그러한 이름들은 아프리카TV에 나타나는 집합적 형상을 묶어내고, 그에 비껴가는 바를 여실히 드러내며, 분열적으로 싸우고 현지의 관계에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들에 있다.

---

12) 그녀의 글에서는 이것이 “parameter”(Munn 1977)이나 여러 글 전반에 종종 등장하는 “translate/translation”으로 표현되고 있다.



### 3. 연구자의 여정(旅程)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본조사를, 이후부터 2018년 4월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연구는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채팅 현장인 “방”을 주무대로 한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TV를 처음 방문했을 무렵에는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 장르로 분류되는 방을 돌아 다녔다. 여러 방송 분류가 있음에도 일단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주목했던 이유는 보이는 라디오가 다른 세부 범주의 방송을 제일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BJ와 시청자 간 “소통”과 “별풍선 선물”이 가장 활발히 나타나기 때문이었다.<sup>13)</sup> 그밖의 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고 실시간 진행 중인 여러 방송을 ‘무작위적’으로 선택했다.

이는 아프리카TV 시청자가 방송을 보는 방식과 결을 같이 한 것이기도 하다. 한 명의 나는 이곳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닉네임으로 여러 방송을 돌아다니거나 여러 방송에 동시에 입장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시청자가 돌고 도며 만나는 주요 교차점을 알게 되었고, 각 방의 특수함을 관통하는 일반화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진행할수록 연구자가 참여하는 방송은 비단 ‘보이는 라디오’ 장르에 한정되지 않았다. 또한 생방송 “방” 외에 현지인이 출몰하고 상주하는 각 BJ의 “방송국” 게시판 및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갤러리에서도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현장연구방법으로부터 연구자는 ‘유동(流動)의 인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흔히 가상성, 익명성, 연결성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 중 가상성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은 앞에서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사

---

13) 이러한 연구자의 초기 가설은 참여관찰 과정에서뿐 아니라 아프리카TV 사측 및 시청자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게임방송은 방송하기가 쉬운 반면에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쉽게 말해, 시청자는 게임방송을 즐기지만 “나의 타임킬링(여가시간 때우기)을 도와줬다고 해서” 게임을 한 BJ에게 별풍선을 주게 되진 않는다. 반면, 토크/캠방 등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BJ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가운데 시청자가 “이 BJ를 지켜주고 싶다”, “(별풍선을 쏘니)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해준다”는 “즐거움과 압박”을 느끼며 별풍선을 주게 된다. 이러한 유인과 맞물려 아프리카TV 홍보팀 직원은 실제 통계에서도 “보이는 라디오에서의 결제율은 게임방송이나 다른 데(방송 카테고리)에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버스페이스는 ‘현실’과 동등한 위상을 지닌 현실적 공간이다. 한편, 가상성과 맞물린 익명성과 연결성의 결합은 언뜻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생각하는 다른 이해 방식을 요구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해 등장하는 이러한 담론은 근대화, 산업화 시기 도시 공간이 출현했을 당시와 묘하게 겹쳐있다. 도시 연구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유하는 데 좋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근대적 도시의 탄생은 촌락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로 가시화되었다. 대도시의 큰 규모와 높은 밀도, 익명성은 도시 공간 내 이질적 차이를 부각시켰다. 초기 도시 연구에서는 도시의 이질성을 가족 붕괴, 공동체의 해체, 유대감 약화 등의 위기의식에서 접근하거나 그를 반론하는 데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Krupat 1985; Gulick 1989). 이후 “도시 지역공동체”(황익주 2016)는 이념형으로서 전근대 촌락공동체와 달리 “본질적으로 경합의 대상이 되는 개념”(Gallie 1956, *ibid.*: 33 재인용)이라는 이해가 이뤄졌다. 도시 지역공동체는 도시 공간 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동해 다니고 있던 곳을 떠나버림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경계와 공동체 성원의 경계 간 일치를 좌절시킨다(*ibid.*: 32-39). 도시의 항상적 이동성에 보다 주목한 연구들은 보행자의 걷기<sup>14)</sup> 자체가 도시를 직조한다고 보았다(de Certeau 2000; Wunderlich 2008; Low 2014 등). 도시 공간은 “‘지금-순간들’의 실천의 통시적 연속”(Thrift 2004: 43)으로 쓰여 가는 비재현적 장소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심지어 동일 인물이 같은 순간 상이한 장소들에 출현하는 ‘보행자’이다. 이들은 이름을 바꿔 서로 다른 복수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각 나는 아프리카TV에서 BJ(A)의 방송을 보다가 언제든 (B)와 (C)…의 방송으로 옮겨 가고, 그 여러 BJ의 방송을 동시에 볼 수도 있다. 만일 BJ의 실시간 방송-채팅 공간인 “방”을 준거로 하나의 공동체를 상정한다면, 그 방 안의 구성원 모두를 방-공동체 성원과 일치시키려는 작업은 항상 미끄러진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TV 시청자인 나는 방 안도 밖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출발하는 ‘경계인’이다. 또 다른 층위에서 이는 내가 아프리카TV 사이버스페이스와 접속-분리해 있는 위치에도 해당할 것이다.

참여관찰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의 비공식 면담도 진행했다. 아프리카TV에서 현재 활동 중인 BJ 8명, 아프리카TV BJ 활동 전적이 있는 인터넷방송인 3명, 타플랫폼 스트리머 3명, “열혈팬”이나 “매니저” 지위에 있는 시청자 4명, ‘일반’ 시청자

14) 보행자의 걷기는 꼭 목적지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보행자는 앞을 보고 향한다는 것 외에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일 수 없는 익명적 존재이다. 드 세르토는 걷기를 “읽기 없는 쓰기”(de Certeau 2000: 102)로 표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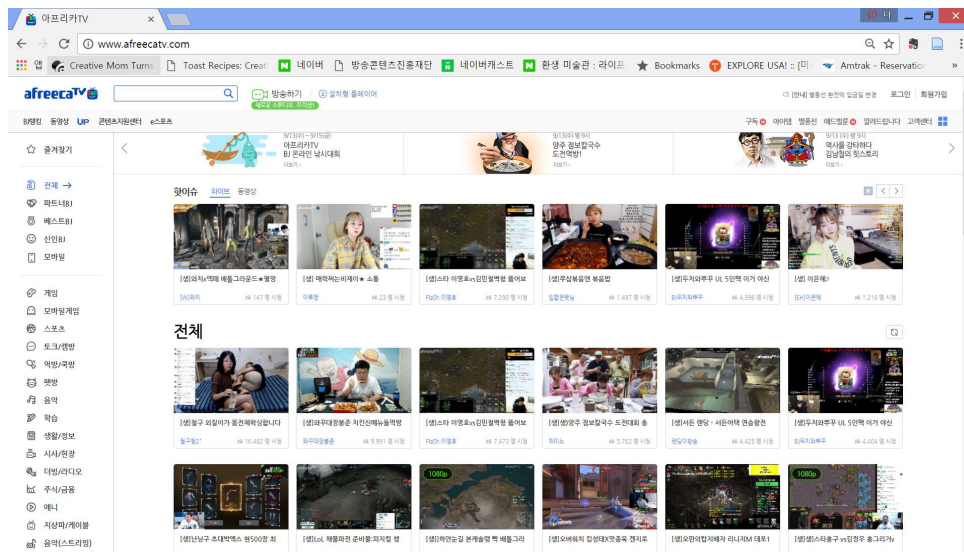
8명, 아프리카TV 홍보팀 직원 1명과 한두 차례씩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 인터뷰 요청은 쪽지, 카카오톡 등 일반에 노출되지 않은 경로를 통했으며, 온라인 면담은 아프리카TV 사이트가 아닌 채널에서 이뤄졌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BJ들의 역요청에 따라 인터넷방송에 게스트로 두 차례 이상 출연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연구사실을 알고 협조해준 사측의 배려로 회사에서 주최하고 BJ, 시청자, 운영자가 참석하는 오프라인 공식행사에 이틀 간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에서의 경험은 생방송 중에 잘 말해지지 않는 내막을 알게 해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아프리카TV에 층층이 접혀있는 ‘내외부적’ 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II. 아프리카TV의 등장

### 1. 지형

#### 방

아프리카TV 활동은 여러 방을 돌아다니거나, 어떤 방에 상주하는 행위이다. www.afreecatv.com이나 아프리카T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실시간 방송 캡처 화면인 썸네일과 방송제목, BJ명, 시청자수를 담은 사각형 배열이 펼쳐진다. 각 사각형은 BJ가 생방송을 열고 있는 “방”으로, 현지인의 장소성이 이곳을 거점으로 한다. 어느 생방송은 예를 들어 BJ 이름을 따라 ‘○○방’으로 불리고 BJ는 그 방의 “방장”이며 어떤 시청자에게 그 방이 “본진”이다.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 못 현지인처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방과 그와 관련된 장소들을 유동해보자. 우선, 하나의 방을 클릭해 입장.



[그림 II-1] 아프리카TV 웹사이트 첫 화면

어느 BJ의 방송을 가든 생방송 방 안의 공간 구조는 동일하다. 방은 BJ가 보여

주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포함한 BJ의 모습이 출연하는 창과 시청자채팅창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BJ와 시청자 간 비대칭적인 위상을 함축한다. 실물 형체가 독점적으로 공개된 BJ는 도드라진 개인으로 존재하는 반면, 다른 채팅에 대체돼 곧 화면에서 사라지는 글자인 시청자는 (그 개별이름이 인식되지 않는 한) 군중으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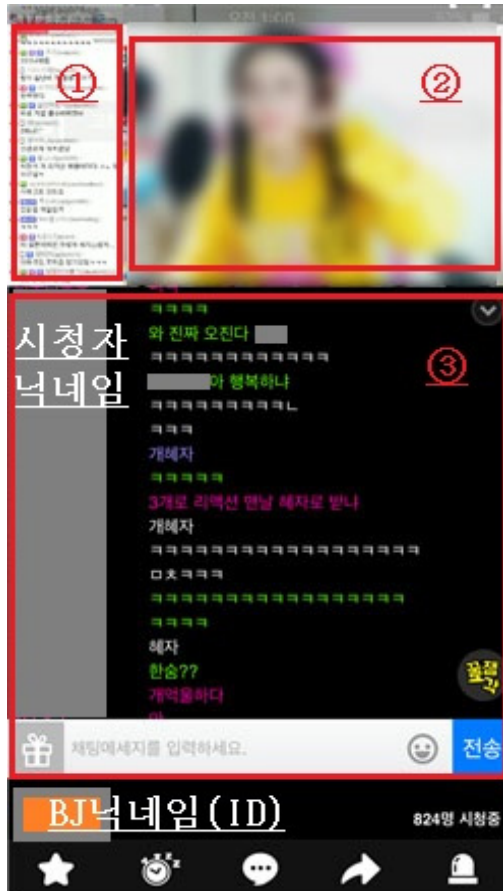
물론 기술적으로 BJ의 공개 여부 설정에 따라 범시청자도 실시간 접속 중인 닉네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개는 채팅에서 식별되는 사람들을 비롯해 지금 이 곳에 몇 명이 함께함만이 의미 있게 인지된다. 이들이 나와 조우할 가능성 없는 “비로그인”이든, 동일인물이 여러 개의 다른 닉네임으로 동시 접속하거나 그 반대이든, 드물게는 기술적 오류나 조작으로 시청자수가 부풀려진 것이든, 서로에 대해 ‘익명’의 군중인 상태에선 그런 사실들이 쉽게 확인되지도 크게 의미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누가 누군지 가늠하기에 앞서 내 존재를 적극적인 발화로 가시화하고 호명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방 안에서 실시간 시청자수 자체보다 유의미한 것은 채팅 속도일 수 있다. 시청자수가 많은 방의 채팅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은 있지만 그 둘이 항상 비례하진 않는다. 2차원 화면 상 채팅은 순차적인 행으로 구별돼 보인다. 허나 스크롤 속도가 빠를수록 채팅 ‘한 명 한 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공명이 된다.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뿐 아니라 방송 흐름을 지체할 수 없는 BJ의 경우 더더욱 채팅을 선택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누구나 방송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주장할 동등한 가능성을 보장하진 않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압력 속에서 누군가에게 더 잘 인지되기란 시청자 사이 분화와 맞물린다.

실물 공간에서와 달리 사이버스페이스 속 글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김새는 아주 제한된 경우의 수만을 갖는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채팅 글자색이 그 사람의 외양됨이자, 집단 가운데 그의 위치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조사가 주로 이뤄졌던 기간 시청자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4가지 색으로 구분됐다. BJ의 생방송 관리를 돕는 “매니저”는 보라색, BJ에게 별풍선을 많이 선물한 상위 20인인 “열혈팬”은 분홍색, 1개 이상의 별풍선을 주고 “팬” 가입한 시청자는 연두색, 해당 BJ에게 아예 별풍선을 선물한 적 없는 시청자는 흰색.<sup>15)</sup> 이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잘

15) 컴퓨터 화면에서는 글자 색 차이 대신 이 네 분류에 따라 닉네임 옆에 다른 아이콘이 붙는다. 이외의 경우에도 접속기기에 따라 보이는 모양새에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다르게 의미화하지는 않는다. 가령, BJ에게 별풍선을 줬지만 열혈팬은 아닌 시청자는 스마트폰 화면 상 보이는 그의 초록색 채팅 글씨에서 비롯해 “지금

읽힐 가능성이 조금씩 달라지곤 한다. 예를 들어 BJ나 매니저가 팬 채팅이나 매니저



[그림11-2] 생방송 방 내부 예시

①과 ②는 BJ가 송출하는 영상, ③은 시청자가 현재 입장해있는 채팅방이다. ①은 BJ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의 실시간 채팅창을 방송 송출 화면에 얹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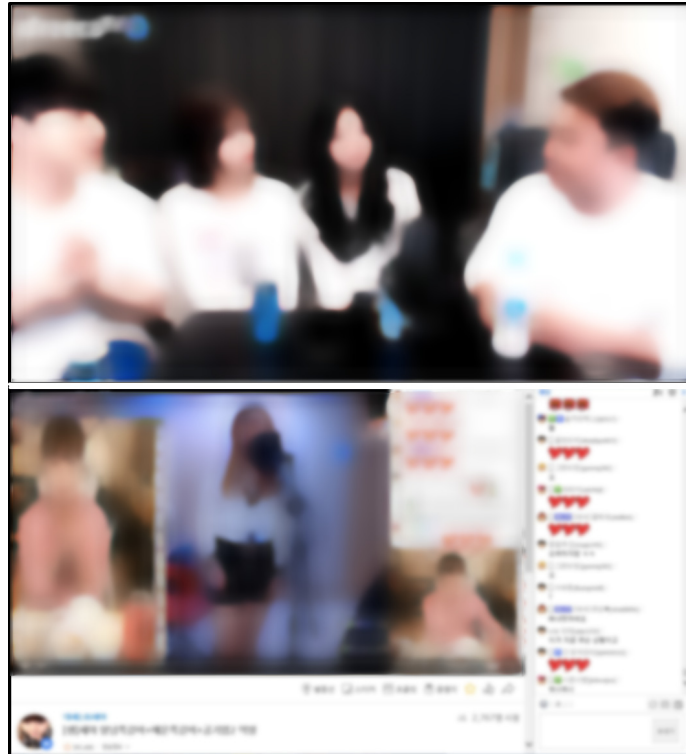
공간에서 유동은 그 실제적, 효과적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각 방은 구별되는 단위일지언정 그것에 온전한 전체성(totality)를 상정하기란 어려우며 방과

채팅으로 채팅방 설정을 바꿔놓으면 해당 분류에 속하지 않은 시청자는 채팅을 칠 수 없다. 매니저 시청자에게는 BJ와 매니저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더 있다. 이곳의 채팅은 일반적으로 거의 공개되지 않는데 범 시청자와 차별화된 매니저의 입지, BJ와의 관계를 드러낸다. 반면, 채팅을 칠 수 없는 비로그인은 방에 입장해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는 언제나 불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방 안의 공간 분화는 방 사람들 간 집단적 분화와 맞물리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사이버스페이스 상 존재의 실현과 상호 관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방 안의 상황을 살펴봤으니 이제 방과 방 사이를 넘나들 차례이다. 하나의 닉네임으로 존재하는 나는 한 BJ의 방송을 보는 동안 다른 BJ 방(들)에 있을 수 있다. 생방송 중인 BJ 또한 꼭 자기 방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다른 BJ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합동방송(이하 합방)”이나 BJ가 다른 BJ 생방송 화면을 자기 방송 화면에 같이 띄워놓는 “탐방”의 경우, 그 역시도 유동의 존재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시

치”라 통용된다. 한편 컴퓨터 화면에서 별풍선을 한 개도 쏘지 않은 시청자채팅 옆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성별에 따라 여자 혹은 남자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있는데, 아프리카TV 초창기엔 그 모양이 건빵 같았다고 하여 이 범주는 여전히 “건빵”이라 불린다.

방 사이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림 II-3] ‘합방(위)’과 ‘탐방(아래)’ 화면 예시

A방에서 열혈팬, 매니저인 사람이 B방에 간다면, 그 유명한 이름은 이미 B방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가 “네임드”가 된 출신지인 A방 소속원으로 인식된다. 네임드가 아닌 시청자도 자신의 닉네임이 A의 이름이나 별칭을 담고 있는 “팬닉”이면 A방 사람으로 판단된다. B방에서 그의 방문과 증여가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는 한, B방 사람에게 그는 잠시 들른 손님이다. 한 방의 사람들이 다른 방 출신으로 인식되는 이를 만나게 되면 방 안의 협력·지지-경쟁·싸움에 또 다른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서로 다른 본진의 사람들 간 관계가 종종 팬덤과 팬덤 사이 협력과 반목, 연출된 친절이나 의도적 무관심의 형태로 포착되는 것—또는 그러한 형태로 관계를 포착하려는 현지인의 부단한 노력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집단의 경계는 언제나 점선이다. 특히 아프리카TV에서 누군가의 출신지를 쫓는 방식으로 집단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허구일 테다. 어느 방에서든

“시금치”나 “견빵”인 연구자도 (연구자로서의 특수한 고려도 있었지만) 본진이 애초에 쉽게 상정되지 않는 유동의 존재였다. 한편 내가 “큰손”<sup>16)</sup>, 열혈팬 같은 네임드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는 다수의 방을 본진으로 삼고 있거나 어떤 방에서 다른 방으로 본진을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유동적 다수성으로 인해 ‘닉네임-방’의 식별은 방장인 BJ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오류를 내포한다. 연구자가 아프리카TV에서 방을 출발 장소로 삼을 때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게시판

방이 생방송이 펼쳐지는 무대 위로 비유된다면, 사이트 회원가입 계정마다 자동 생성되는 게시판 공간으로서 ‘방송국’<sup>17)</sup>은 무대 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방송국을 통해 BJ의 공지사항, 다시보기 영상이 올라오고 시청자는 BJ와 방송에 대한 피드백, 아이디어 제안, 뒷말 등을 쓰거나 읽을 수 있다. 즉 여기는 생방송 사전적 혹은 사후적 행동, 작업, 판단이 이뤄지고 축적되는 곳이다. 사람들은 생방송 실시간 중에 해당 BJ 방송국에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방송국에는 방에 비해 지연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방송국의 시간성은 게시판에 대한 BJ의 통제력과 맞물린다. 방장의 독점적 권력 행사가 군중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혀 휘둘리곤 하는 방에서보다 방송국에서는 BJ의 ‘점유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되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BJ는 주로 생방송에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못할 것 같은 자신의 “해명”과 “인증” 글을 방송국에 올린다. 게시판 접근 권한을 차등 설정하거나 올라온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기는 그가 이곳에서만은 자신에 관한 가십의 생산과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글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오래 누적되어 남는 게시글은 그 내용과 성향에 따라 어떤 닉네임이 ‘진정한’ 팬이고 ‘안티’인지 가르는 판단기준이 된다. 이로써 평소 달갑지 않은 “선비충”, “시어머니충”, ‘악성’의 존재가 더 쉽게 추적, 판별되고 추후 제재의 근거 자료로 그들의 닉네임·아이디와 게시글이 수집되기도 한다. 한편 시청자에게도 방송국의 지연된 시간은 게시글 쓰기와 댓글달기를 통해 시청자 간 대화 사회적으로 제약받는 방에서보다 서로 아는 체하고 의견을 교류할 가능성을 열어놓

---

16) 해당 방에서 ‘시금치’이더라도, 다른 방 열혈팬으로 이미 유명하거나 해당 BJ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선물했다면 그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는 ‘큰손’이 된다.

17) 2017년 7월, 아프리카TV 회사는 ‘방송국’을 ‘마당/집’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플랫폼 개편 이후 연구자가 관찰을 지속한 바, 마당/집의 구분으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논문에서는 본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던 시기의 명칭인 ‘방송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는다. 요컨대, 보다 적극적으로 BJ의 통제가 미치는 방송국에서는 BJ 친화적인 분위기가 가시화하는 편이다.

아프리카TV 현지인이 활약하는 또 다른 게시판 공간으로는 디시 인터넷방송갤러리(이하 ‘인방갤’)이 있다. 이곳은 격렬한 전투의 장이다. 엄밀히 말해 인방갤은 아프리카TV와 별개의 웹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속한다. 그러나 그 발전과 현재가 아프리카TV와 밀접히 맞물리는 이곳은 아프리카TV 현지인의 또 다른 현장이다. 서로를 ‘잘 모르던’ 아프리카TV와 디시의 만남이 가시화된 계기는 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랜 현지인의 증언과 당시 기록을 남긴 연구물(이길호 2012: 346-363)을 참고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당시에도 ‘악명 높던’ 디시 코미디프로그램갤러리(이하 ‘코갤’)에서 분기한 일부 “코갤러(코갤 유저)”는 세력—이른바 “코프리카”—을 형성해 아프리카TV로 활동 거점을 옮겼다. 이들은 BJ 생방송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횡방 놓고 신상 털기를 일삼으며 ‘디시스러운’ 공격성을 분출하고 다녔다. 이에 아프리카TV 회사측은 ‘코갤러’라는 불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수차례 회유책과 경고의 으름장을 내놓기도 했다<sup>18)</sup>. 그럼에도 2010년 말, 급기야 코프리카 세력은 디시 내 인터넷방송갤러리라는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데 성공했다. 코갤의 계보를 잇는 인방갤은 그 탄생부터가 BJ에 관한 가십과 비방의 양성소였던 것이다. 이후 코갤 출신이 아닌 아프리카TV 유저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며 인방갤은 현재까지 융성하고 있다. 인방갤에서 아프리카TV가 아닌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의 방송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sup>19)</sup>

#### [사례Ⅱ-1] 아프리카TV와 인방갤 간 ‘친연한’ 관계를 방증하는 자료

2011년 9월 9일은 디시 인방갤이 탄생한지 1주년 되는 날이었다. 당시에 아프리카TV 회사에서는 인방갤 1주년을 축하 메시지를 사이트 메인 화면(아래 그림<sup>20)</sup>), 여러 BJ들의 축하 영상이 담긴 공지에 올렸다. 다음은 공지

---

18) 사실 이는 코갤러의 파급력을 회사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아프리카TV 공지에는 코갤·코프리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 [안내] 운영자, 코갤러를 만나다 생방송 이벤트 안내(2009.10.07일자); [안내] 코갤러들의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조치(2010.03.22일자) 등.

19) 물론 모든 아프리카TV 사람이 “인방갤러(디시인방갤 유저)”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양상뿐 아니라 현지인의 인식에서도 인방갤러는 아프리카TV 참여자로 전제된다. 실로 다른 실시간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자 별도의 게시판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예) 카카오TV(tv.kakao.com)와 카카오TV마이너갤러리(<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kakatv>), 트위치([www.twitch.tv](http://www.twitch.tv))와 트게더([www.tgd.kr](http://www.tgd.kr)) 등.

20) 그림 출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축하의 글에는 인방갤러에 대한 ‘당부와 화해’의 메시지도 함께 실려 있다: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에서 활동하며,  
아프리카TV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인방갤 여러분!  
9월 9일 인터넷방송 갤러리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끼넘치는 BJ들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방갤의 꾸준한 “떡밥(소재)”은 아프리카TV BJ의 사건사고와 뒷이야기, 이들 방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 BJ(팬덤) 간 “이간질”과 “선동”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인방갤은 방송국과 달리 BJ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캡처, 삭제하는 BJ의 부단한 노력—“악성” 시청자와의 전쟁—은 이곳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만 BJ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방갤에 드러내지 않는다. 사실 이는 드러낼 수 없음에 더 가까운데, BJ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어떤 주장을 펼치는 순간 불필요한 “어그로”를 자초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게시글 삭제 또한 BJ가 직접 바로 하지 못하고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외부기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런 점을 익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TV 참여자-인방갤러는 BJ의 방, 방송국에선 눈치보야할 법할 여러 이야기를 인방갤에 날개돋힌 듯 생산해낸다. 열성적인 인방갤러는 삭제된 글을 활발히 복구시키며 결과적으로 이 두 장소를 엮는 사슬이 끊기지 못하게 한다.

아프리카TV에 어느 정도 익숙한 자라면 오래 인방갤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인방

---

[https://40.media.tumblr.com/143abecbd9cc21c17857dbbda0cb0b98/tumblr\\_nplxcrEbz61sm1et1o1\\_540.png](https://40.media.tumblr.com/143abecbd9cc21c17857dbbda0cb0b98/tumblr_nplxcrEbz61sm1et1o1_540.png)

겔에 무심한 현지인조차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은밀히 인방겔에 들어가 정황을 알아보곤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방겔을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BJ의 방송국 게시판 이름이 ‘-방겔’<sup>21)</sup>인 경우도 허다할 만큼 인방겔의 흔적은 아프리카 TV 내 도처와 저변에서 발견된다.<sup>22)</sup> 모쪼록 수많은 아프리카TV 참여자들이 지금도 생방송 시간 안팎에서 인방겔에 글을 생산하고 있으며 BJ는 이를 “여론”으로 의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럼에도 (혹은 상황이 그와 같기에) 아프리카TV에서 BJ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방겔과 자신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애써 외면하는 척 한다. 심지어 인방겔(-러)가 아프리카TV에서 오명처럼 취급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괜히 봐서 휘둘리고 상처받기만 할” 인방겔 같은, “한심한”, “악성”의, “일베충”<sup>23)</sup>들이 하는 짓을 왜 굳이 신경 쓰냐는 것이다. 인방겔을 “일베”와 동일시하는 흔한 논리에는, 실체를 알긴 힘드나 ‘조직화되어 보이는’ 움직임으로 주변에 ‘해악’을 끼친다—즉, BJ와 방송에 유리하지 않게 글을 올리고 채팅 분위기를 점령하며 여론을 조성한다—는 비난과 위협감이 공통분모로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프리카TV 현지 “민심”이 형성되고 요동치는 곳으로서 아프리카TV에 미치는 인방겔의 실제적 위상과도 맞닿는다. 군중과 여론은 한 명의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인방겔을 안 본다”는 못 BJ들의 말은 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악성’ 인방겔 무리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BJ의 의지와 당부 섞인 퍼포먼스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몇몇 자신감 있는 BJ는 역으로 인방겔을 방송의 소재로 활용해 관심과 재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대개 고정시청자/팬이 든든한 이들이다.

여론의 요주의 인물—이른바 인방겔의 “겔주”—이 된다는 것은 내 인지도가 그만큼 높음을 확인하는 척도이다. 이런 애증의 관계는 인방겔 출현 초기부터 발견돼 왔는데, 자신의 높은 인기와 미모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오히려 코겔러들이 자신의 방송에 “와주기를” 은근히 바라는”(이길호 2012: 358) BJ도 있었다는 당시의 내용은

21) ‘BJ 수진’을 가상의 예로 든다면, 그의 방송국 게시판 이름이 ‘수방겔(수진+인방겔)’인 식이다.

22) 다시 코겔에서 인방겔로 이어져 아프리카TV와 맞물리는 계보적 친연성은 집단 원리로써 각 사이트에 공유되는 ‘반(反)친목 규정(이길호2012: 346-363)’에도 묻어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론IV에서 다룬다.

23) ‘일베충’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유저를 말한다. 흥미롭게도, 일베와 인방겔은 비슷한 시기 다시 코겔로부터 분기한 장소들로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인방겔러는 스스로를 일베와 구별 짓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지점은 “일베는 어디에나 있다”는 믿음과 ‘인방겔-악성-일베’로 유비되는 현지인의 사고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IV 참고.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청자 수/인기도가 적은 ‘하꼬’ BJ(와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인방겔은 ‘메이저’ BJ들이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들만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음은 하꼬 시절은 벗어났지만 아직 스스로 메이저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느 BJ의 말이다.

#### [사례 II-2] 인방겔을 보나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BJ의 답

“솔직히 가끔 봐요. 옛날엔 아예 안 봤죠. (제 이름을) 쳐봐야 안 나오거든요 [...] 근데 전번에 주목을 좀 받으니까 조금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또 안 뜰 걸요? 나중에 메이저급 되면 또 뜨겠죠. 그럼 많이 보겠죠. 은근히 의식하게 돼요. 그게 피드백이니까. 인방겔이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해요. BJ들이 (인방겔을) 보긴 하는데, (거기엔) 워낙에 많은 부류가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극보수파, 일베들도 엄청 있거든요. 디시, 일베, 오유 다 구분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일베는 어디에나 항상 있어요. 어디에나 존재해요.”

아프리카TV 현지인의 인방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는 항상 모순적 측면이 혼재해있다. 인방겔이라는 장소는 따라서 아프리카TV에게 내부 아닌 내부, 애증이나 필요악 같은 공생 상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심은 이제 아프리카TV의 ‘외부’ 영역은 무엇일지로 시선을 옮겨가게 한다.

#### 아프리카TV의 ‘외부’

아프리카TV에 가작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아프리카TV 사이트([www.afreecatv.com](http://www.afreecatv.com))로 돌아오게 된다. 현지에서 “운영자”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프리카TV 회사는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지만 현지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 ‘내부의 외부자’이다.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방침에 대한 공지 글을 올리고, 방송과 채팅의 ‘문제적’ 언행에 제재와 경고를 가하는 문장으로써 불시에 방 안에 출현한다. 회사의 기준에 비춰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BJ에게 방송 일시/영구 정지를, 시청자에게 채팅금지, 강제퇴장, 아이디 계정 일시/영구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는 처벌권력이다.

아프리카TV 사회가 나름의 내적논리를 형성하며 굴러가고 있다면, 아프리카TV 운영자는 ‘국가적인’ 관점과 법의 언어를 장착하고 있다(김수진 2017: 108-112).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방침과 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회사는 “아프리카TV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지 활동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인 플랫폼을 변화시키고 그에 부합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운영자의 규제 활동은 사실상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현지인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일과 다름없다.

## 2. 역사

지금 기술할 아프리카TV의 역사는 이 새롭게 등장한 ‘빈’ 공간이 사회로 거듭나온 이야기이다. 아프리카TV의 시간성을 단일한 방향으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배경설명이라는 목적 하에 오랜 현지인의 증언과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내용이다.

### [사례Ⅱ-3] 운영자의 “방송놀이 신대륙 아프리카 정식 오픈” 사이트 공지

- 제목: [안내] 방송놀이 신대륙 아프리카 정식 오픈
  - 게시일: 2006-03-09
  - 내용: [...] ◆ 아프리카 소개 ◆
    1. 아프리카(afreeca)의 의미
      - Alive Free Casting : 즐거움이 살아있는 자유로운 방송
      - A Free Casting : 자유로운 무료 방송
      -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미지의, 다채로운, 살아 숨쉬는, 모험과 도전의 제3의 미디어
    2. 아프리카 슬로건 : 방송놀이 신대륙
      - 아프리카는 새로운 재미가 꿈틀대는 '방송놀이 신대륙'입니다.
      - 아프리카 방송은 상상하는 만큼 톡톡 살아 움직이는 재미있는 방송놀이입니다.
      - 아프리카는 방송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BJ와 시청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인터랙티브 개인방송 미디어입니다.
- [...] 방송놀이 신대륙 아프리카! 이제 여러분을 흥미진진한 무한 재미의 新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TV는 2006년 베타서비스 개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방송놀이의 신 대륙 아프리카”는 어떤 색들로 채워질까 기대되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BJ와 시청자 간 즉각적인 쌍방향 소통으로 방송이 구성되고, BJ가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시청자에게 송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TV의 등장은 기존의 TV나 웹 UCC(User Created Contents)와는 또 다른 혁신이었기 때문이다.<sup>24)</sup> 2006년 아프리카TV 서비스 정식 개시 알림글 역시 새로움과 자유로 벅찬 기대감을 분출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아프리카TV가 ‘자연 상태’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전반적인 방송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게임방송, 스포츠방송, BJ와 시청자가 소통하는 캠방송, TV 프로그램·영화 등의 영상물을 단순 송출하는 방송 등이 주를 이뤘다. 별풍선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프리카TV 사이트 내 자생적인 경제 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회사의 수익 뿐 아니라 “방송을 하는 사람한테도 수익이 좀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로서 2007년 말 처음 등장했다. 아프리카TV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별풍선은 BJ와 시청자 간 친교에 기반한 것이며 BJ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기획과 맞물려 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TV 회사에서도 별풍선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지인 역시 별풍선으로 BJ가 큰돈을 벌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시청자 뿐 아니라 BJ 입장에서 인터넷방송은 취미 활동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예로, BJ가 별풍선에 대한 보답으로 행하는 리액션은 대개 “~님 감사합니다” 정도의 인사 말로만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별풍선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발견이 이뤄지며, BJ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직업으로서 BJ 활동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앞서 연구자가 디시 인방겔과 관련해 잠시 언급했듯, 신체적 노출을 겸한 연행으로 별풍선 후원을 받는 여성 BJ의 활동은 아프리카TV에서 벌어진 일을 아프리카TV 사이트 안팎으로 이슈화시켰다.

그러나 과거 아프리카TV 활동이 어땠는지 회상하는 현지인의 진술은 분명히 갈린다. 과거에도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자극적인 방송이 판쳤다고 하는 사람이

---

24) 물론 아프리카TV가 생기기 전에도 실시간 화상 채팅, 실시간 라디오 방송-채팅, 인터넷 커뮤니티 내 금전적 후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웹사이트는 다수 존재했었다. 대표적인 예로 ‘세이클럽’이 있었다. 그러나 세이클럽이 주요 서비스들을 유료화하면서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아프리카TV 직원은 그러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실 플레이어가 많았는데,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창기에 도미먼트 플레이어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무버가 된 거죠.”

있는가 하면, 지금만큼 선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무수한 이견은 아프리카TV의 역사를 서술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증언이 하나로 종합될 수 없음 자체가 말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곳에 ‘유명한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프리카TV가 논해지는 어떤 ‘전형화된’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9년 비로소 아프리카TV의 전설적인 인물—“레전드(legend)”—BJ철구가 등장했다. 철구는 수준급 게임 실력과 재치있는 입담을 갖춘 스타크래프트 게임BJ로 데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구가 게임에 승리한 기쁨으로 자신의 몸에 생수를 부었던 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웃음으로 도배된 채팅을 보며 순간 철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이코다”(철구 2015: 19)라고 깨달았다. 이후 시청자로부터 환산액

1,000원~10,000원 어치의 별풍선을 받고 자신의 몸에 음식 붓기, 의자를 던져 창문 깨기, 살아있는 벌레 먹기 등 가히 엽기적인 행보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언론 보도에 인터넷방송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꾸준히 등장하며, 아프리카TV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한 몫 기여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철구는 아프리카TV로부터 두 차례 방송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아프리카TV 사측이 영구정지 BJ를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계기로 복귀할 수 있었다. 언론의 집중조명과 아프리카TV 회사의 ‘징계→용서’의 반복은 오



[그림 II-4] 2014년 ‘영구정지 BJ 특별사면’

히려 철구를 아프리카TV를 상징하는 인물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이 ‘괴물 같은 영웅’에게 현지인은 더욱 열광했다.

물론 생방송 중 기괴한 행위를 펼친 BJ로 철구가 유일하거나 최초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철구처럼 자극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도 높은 인기도와 수익을 누리는 BJ

도 많다. 그럼에도 철구는 현지에서 명실공히 “아프리카TV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당시 일반적인 BJ와 차별화되는 행동을 선구적으로 보였다는 점과 수차례 방송 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 인기절정 BJ로 생존해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철구의 말은 수많은 유행어를 낳았고, 악명 높던 그의 몇몇 행동은 흡사 BJ라면 한번쯤은 수행할 법한/수행하게 되는 통과의례 같은 것이 되었다. 이런 현상을 직접 언급하며 철구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나를 따라하면 시청자수를 찍을 순 있다. 그러나 1인자는 못 된다. 왜냐면 내가 처음 했기 때문에.”

한편, 아프리카TV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불법도박,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물 송출 등의 위법 활동을 겨냥해 처음 들어섰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종류의 위법 행위는 아이디 영구정지 등의 사이트 내 검열을 통해 비교적 쉽게 근절될 수 있는 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망으로 포착되기 힘든 활동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세간의 비판을 사며, 아프리카TV는 이른바 “클린화” 압박을 몸소 마주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불거진 유명 BJ들의 아프리카TV 플랫폼 이탈 현상<sup>25)</sup>을 계기로 유튜브라이브, 카카오톡TV, 트위치 등 경쟁 플랫폼이 부상하며 아프리카TV에는 새로운 ‘변화’가 환기되고 있다.

### 3. 일상

아프리카TV에서의 일상은 방송-채팅 활동과 별풍선 선물을 골자로 한다. 현지의 활동은 1차적 상호작용의 당사자인 두 명의 관계로 종결, 안착되지 않고 제3자의 관여로써 연속적인 고리를 생성하는 원리로 전개된다. 우선 아프리카TV에서 통용되는 유사화폐 별풍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사례 II-4] 아프리카TV 사이트 별풍선 소개<sup>26)</sup>

참신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하세요.

25) 일요신문 2016년 10월 22일자 기사 참고.

26) 이는 김수진(2017: 89)의 자료를 가져온 것이다. 이후 아프리카TV 사이트 별풍선 소개는 달라졌는데 그 변화에 관해서는 V장에서 다룰 것이다. 둘 중 어느 사례를 신는지가 지금의 논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



별풍선을 많이 선물 받은 BJ는 아프리카TV의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

- 구매한 별풍선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 별풍선 선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아프리카TV에서 나는 별풍선을 “구매”해 BJ에게 “선물”하고 BJ는 자신이 받은 별풍선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다. 따옴표 친 부분은 아프리카TV 웹사이트의 별풍선 소개 글 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실제 언어와 교환행위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언뜻 봐서도 아프리카TV 회사와 현지인 사이는 매매관계, 시청자와 BJ 사이는 선물 관계라는 구분이 관찰된다. 때문에 별풍선에 관한 논의는 이것이 ‘자본주의인가, 선물경제인가’ 해명을 요구받는 난관에 봉착하곤 한다(김수진 2017; 이동후와 이설희 201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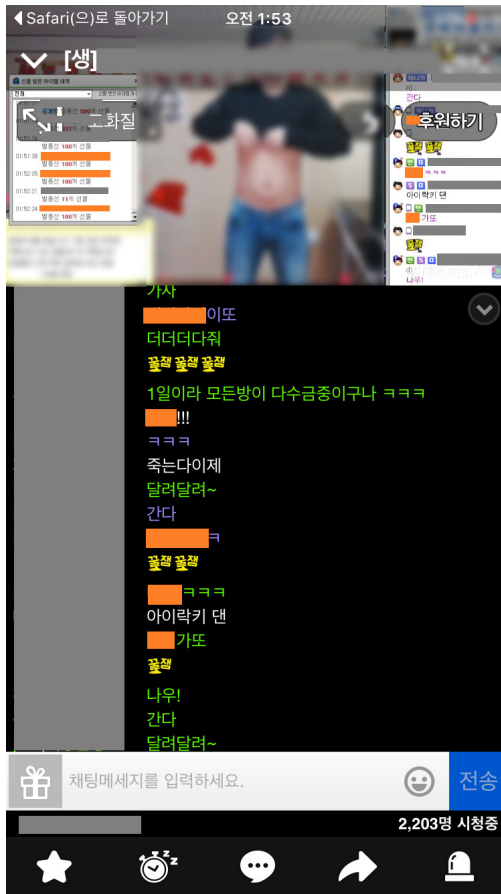
별풍선은 돈이자 선물로서 양가적인 성격과 효과를 지닌다. 통상 별풍선 1개 당 100원의 화폐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이를 구매할 때에는 10% 수수료를 포함해 개당 110원을 지불해야 하고, BJ가 별풍선을 환전할 시에는 개당 100원을 기준으로 사이트에서 규정한 BJ 등급에 따라 최대 4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방송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BJ에게 별풍선은 주요 생계수입원이며, 어떤 BJ가 이른바 “별풍집”, “별풍카”<sup>27)</sup>를 장만한 소식이라든지, 누가 얼마의 별풍선 환산 금액을 소비했는지(시청자 측면) 별었는지(BJ 측면) 등은 생방송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회자된다.

시청자가 BJ에게 별풍선을 주면 BJ는 증여자를 호명하며 감사 인사와 함께 “리액션” 퍼포먼스를 한다. 이는 모든 방에서 기본적인 규칙처럼 수행되는 일상적 의례이다. 이때 썸에 밝은 아프리카TV 사람들은 별풍선의 “단가”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별풍선 1개에 대한 리액션과 100개에 대한 리액션에 별반 차이가 없거나, BJ가 별풍선 규모에 준하는 ‘충분한’ 리액션을 하지 않아 보이면 사람들은 BJ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BJ 입장에서 “별풍선을 5개, 10개, 뭐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하면 감사하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100개(현금가 10,000원 상당)가 넘어가면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10,000원 어치의 별풍선을 주고 BJ의 서비스를 샀다’는 식의 주장이 누군가의 마음엔 도사릴지언정, 현지에서는 별풍선을 주고받는 서로를 매매 관계와 분리시키려는 언행과 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는 바, 별풍선 증여에서 ‘매매 관계’와 ‘선물 관계’는 항상 대

---

27) BJ가 별풍선 수익을 모아 산 집과 차를 일컫는 말.



[그림 II-5] 시청자 ‘주황’의 별풍선 증여

큰손 시청자 주황이 별풍선을 100개씩 연달아 선물했다. 다른 시청자채팅은 주황의 이름(주황색 가림 표시)을 부르며 그를 추대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화면의 BJ는 춤을 추며 리액션을 하는 중이다.

관심을 의식하고 추론하는 주체들의 평화로운 동의가 아닌 반대급부를 부정하는 격렬한 투쟁과 갈등”(박정호 2009: 30)이 이루고 있으며 “증여의 호혜성은 스스로 부정됨으로써만 실현되는 역설적 메커니즘에 의존”(ibid.: 31)한다는 지적을 상기하게 된다.

별풍선 증여에서 제3자의 관여는 둘 사이의 관계가 매매관계와 같이 점유나 독

립적인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별풍선 선물은 방에서 증여자가 발언권을 확보하고 이름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얼핏 별풍선 주고 리액션 받기를 통해 증여자가 다른 시청자 군중과 차별화된 발언권을 획득하는 관계는 BJ와 증여자 둘 사이로 매듭지어져 보인다. 하지만 “별풍선 선물”의 논리에서 증여자와 BJ 간 교환 행위는 2자 관계로 닫히지 않고 여러 고리의 연속적 관계를 생성한다.

증여물이 산출한 가치(그레이버 2016)나 이익(살린스 2014)으로 해석되는 선물의 ‘하우’는 BJ와 시작된 교환의 제3자인 시청자 군중 간 교환과 관련해 등장하여 원증여자에게 돌아간다. 이로써 별풍선 교환의 사실상 불가능한 ‘등가성’이 구축되고 증여자의 위세와 평판이 형성, 확산된다(김수진 2017: 93). 별풍선 증여자의 명성은 한 방의 시공간을 넘어 여러 방들로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동시에 별풍선을 많이 주는 것이 항상 그와 비례한 위세와 권력의 점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증여의 실천적 밑바탕은 “각자의 이해

점으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한다. 비록 누군가 BJ에게 별풍선을 준 동기가 그를 친애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일지언정, 또한 아프리카TV 생방송 자체가 (별풍선 선물로써 극적으로 가시화되곤 하는) BJ와 시청자 간 일말의 상호지지 및 의존 관계없이 성립할 수 없을지라도, 증여는 “대항과 경쟁의 원리”(모스 2007: 139)를 기초로 하고 있다. 모스는 증여론에서 그를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의 포틀래치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별풍선 선물의 투기(鬪技)적 성격은 그와 상당히 닮아있다.

별풍선 쏘기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파괴함으로써 이뤄진다. “큰손” 시청자의 거액의 별풍선 선물은 상대방이 꺾소리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별풍선 “폭행”에 BJ가 압도당하거나 큰손 시청자가 리액션으로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겠을 때, BJ는 답례하지 못한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이는 더러 BJ로 하여금 해당 큰손 시청자를 더욱 특별히 우대하게 만들고 방송 외적으로도 둘 사이 관계가 연장되게끔 한다. 하지만 큰손 시청자가 BJ를 ‘소유’하려 들거나 방송 중 관심의 점유 형태가 나타나면, 그는 다른 큰손 시청자의 더 큰 선물로써 위세를 압도당하거나, 시청자 군중의 강한 비난이 쏟아져 방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김수진 2017: 92-93). 요컨대 아프리카TV에서 모두는 관심을 획득하기 위한 항상적 경쟁 상태에 놓여있다.

### Ⅲ. 별풍선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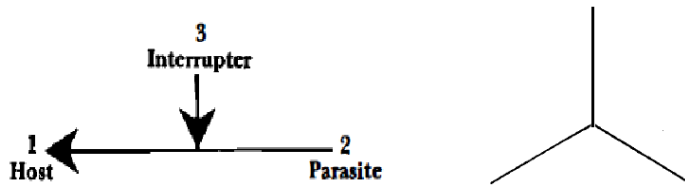
본 장은 별풍선 교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역설에 주목할 것이다. 별풍선의 가치는 돈으로서 출발한다. 아프리카TV 사이트에서 시청자는 현금을 별풍선으로 환전하고, BJ는 시청자가 준 별풍선을 현금으로 현금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돈과 달리<sup>28)</sup> 별풍선은 오로지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선물”일 때만 사용된다. 별풍선 교환의 금전적 이익은 두 당사자 중 BJ에게만 발생한다. 별풍선을 받음으로써 BJ의 수익과 인지도는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으로 확장되지만, 별풍선 증여와 함께 드높여진 시청자의 이름은 아프리카TV 안에서만 유효하다. 바깥에선 오히려 별풍선에 돈을 많이 들이는 행동을 문제시하고 낙인을 찍는다.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TV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BJ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별풍선은 ‘순수한’ 선물도 아니다. 별풍선을 줄 때에는 거의 항상 그 대가가 강력히 요구된다. 과연 시청자는 별풍선을 줌으로써 BJ로부터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에서 매매(買賣)관계로서의 설명 또한 어긋난다. BJ가 증여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오직 화면 속 말과 행동이다. 교환하는 물질(“별풍선”)을 준 이에게 BJ는 바람(“리액션”)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별풍선 증여가 BJ로부터 이른바 ‘서비스’라는 것을 구매하는 행위라 쳐도, 방 안의 또 다른 이들에 의해 그러한 관계의 성립은 동시에 방해받는다. 정작 자신의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시청자 군중이 증여자에게 돌아오는 것을 함께 누리고 교환의 등가성을 따지고 나서기 때문이다. 세르(Michel Serres)의 통찰을 빌리자면 별풍선의 이동에서 발견되는 것은 기식(parasite) 관계이다.

---

28) 여기서 ‘돈’은 현금과 사이버머니를 모두 일컫는다. 돈으로서의 일반적 속성은 상품 교환을 매개하는 가치 척도의 기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플레이어는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은 이러한 속성을 조금 비껴간다. 아프리카TV에는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용도 이외에 별풍선으로 구매 가능한 어떠한 상품(‘아이템’)도 없다.



### [도식Ⅲ-1] 기식 관계(Serres 1982: 19)

위 그림은 세르가 기식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아프리카TV의 상황에 간단히 적용해보자면 ‘BJ는 별풍선 증여자의 기식자이고 여타 시청자는 이 관계의 기식자…’인 관계들의 연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1, 2, 3인가의 문제는 이보다 복잡하다. 세르는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 그림으로 조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식자라고 설명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 개의 위치는 등가적”으로, “각자는 타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세르 2002: 39-40) 있다.

『기식자』는 사회의 토대가 되는 교환의 구축이 반-교환에서 출발함을 되짚는다. “기식자는 말과 증여의 모든 관계에 선행한다.”(세르 2002: 7) 본 연구의 과제는 아프리카TV에서 기식 관계가 실제적인 교환을 만들어내는 비밀을 밝히는 작업이다. 기식자로 출발하는 논의는 증여에 관한 질문의 방점을 ‘왜 되돌려주는가(모스 2002 참고)’로부터 ‘왜 주는가’ 혹은 ‘무엇을 주는가’로 옮겨 놓는다. 음식물을 먹고 말과 웃음을 내놓는 기식자의 질서에서 교환의 등가성을 묻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동시에 그는 동등하지 않은 것 사이에 불가역적인 통과 방향을 정한다.

『증여론』의 계보를 이어온 많은 인류학자들이 그간 되돌려주는 문제에 천착해왔던 요인에는 공통적으로 이동하는 물건과 증여자 간 분리불가능성(inalienability)이 있었다(대표적인 연구로 Weiner 1985 참고). 예를 들어 쿨라 조개 순환에서 교환의 등가성은 쿨라 조개에 부착된 증여자의 일부인 인격을 되돌려줌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은 애초에 그것을 주는 사람과 분리된 채 시작한다. 별풍선은 누가 주는지에 상관없이 그 현금가에 대응하는 그림이 똑같이 반복해 재현되는 표시물일 뿐이다. 현지에서 별풍선은 말이고, 돈이고, 선물이다. 별풍선에 대한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것이 증여물이 된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증여-교환’이 어떻게 가능한지—각 교환 단계에서는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식 관계로부터 시작할지언정 교환은 일말의 등가성에 대한 믿음 없이 지

속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현지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가치 변환의 여러 선들을 따라다녀 볼 것이다.

## 1. 별풍선, 돈, 선물

### 1) 일상 방송

아프리카TV에는 수만 명의 BJ가 활동하고 있다. 유명 BJ들이 한 달에 별풍선만으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BJ 되어보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뭇 매력적인 활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BJ가 초등생 장래희망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는 오늘날 엄연한 직업군이 된 BJ의 위상을 보여준다.<sup>29)</sup> 화면 속 BJ의 모습은 통념적인 연예인 상에 비취봤을 때 나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지금의 나는 쉽게 BJ가 될 수 있다.

하지만 BJ 활동에 선뜻 뛰어들기란 생각만큼 쉽지만 않은 일이다. 특히 인터넷방송에 대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맞물려 BJ 인구의 어마어마한 팽창에는 여러 의문 섞인 관심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연구자가 아프리카TV 연구 사실을 처음 밝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BJ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BJ를 한다고 하면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심지어 ‘그 사실을 떼뻗이 주변에 밝히긴 하는지’ 등의 호기심을 표해왔다. 그렇다면 이런 ‘보통’의 질문에 답해가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BJ는 왜 BJ 활동을 하는가? 왜 이들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자행하며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금전적 이윤 창출의 가능성은 모든 BJ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기대이다. BJ 활동을 전업으로 삼든([사례Ⅲ-1]) 취미삼아 시도해본 것이든([사례Ⅲ-2]) 별풍선은 유의미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과 일상적 자기노출만으로 방송이 되는 간편함은 많은 이들이 BJ 활동에 뛰어들도록 유인한다.

---

29) KBS 뉴스 “달라진 장래희망…요리사·1인 방송인 ‘BJ’까지” (2017.05.06.일자 기사)

### [사례Ⅲ-1] 별풍선의 신세계를 맛보다

BJ양머리는 원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월 1000만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TV를 보는 친구를 통해 별풍선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방송 활동에 눈을 떴다. 지금 인터넷방송은 그의 생계형 전업이다. 다음은 그가 생방송 중 한 말이다.

“당시에 삼삼님이라고 있어요. ... 방송 30분 하는데 별풍선이 3000개, 4000개 터져. 그래서 ‘별풍선 원데?’ 하니까 친구가 3000개면 30만원 번거라고. 뭐? 30분에 30만원을 번다고? 어떨 때는 하루 매출, 장사 안 될 때 내 순이익이 30만원인데. ... (나도) 방송을 켜어. ‘가게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방제(방송 제목) 달고, ‘심심해서’ 이랬나? 방송에 100명, 150명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방송을 1시간 반 했는데 나도 한 4000개인가 5000개 받았어. 임마가 말하더라고. 형님 이거 40만원, 50만원입니다. 뭐 내가 좇 빠지게 손님들 똥꼬 빨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서 돈 버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진짜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 [사례Ⅲ-2] ‘큰손’ 시청자의 BJ 데뷔

BJ 막시무스는 여러 방송에서 열혈팬으로 활약하며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다. 인터뷰 시점 그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여유 시간이 날 때 ‘게임방송’과 ‘소통방송’을 하고 있었다. 방송으로 돈을 벌려는 심산은 애초부터 별로 없었다. 다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방송에 놀러와 별풍선을 주리라 기대했고, 이것이 (소소하게나마) 금전적 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는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나 유튜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관중’이라고 하죠. ... 저도 아프리카를 시작했던 이유가 이쪽저쪽 별풍을 많이 쏘니까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됐는데,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너무 많이 썼는데, 내가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팬 가입<sup>30)</sup>하러 오겠지?’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안한 건 아니에요.”

시급으로 따졌을 때 BJ가 한 회 생방송만으로 대기업 초봉보다 많은 금액의 별

---

30) “팬 가입”은 해당 BJ에게 1개 이상의 별풍선을 쏘는 행위를 말한다.

풍선을 받는 일은 아프리카TV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앞서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BJ가 남들보다 쉽게 돈 번다”는 인식은 현지인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돼 있다. 하지만 BJ 활동을 생계형 전업으로 하는 이들의 성실함과 방송에 대한 헌신을 보고 있노라면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BJ 활동이지만 “투 잡(two jobs) 뛰면서는 BJ 오래 못 한다”—즉 그만큼 BJ 일이 힘들다—는 것 또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이다. BJ의 삶에서 방송과 여가 사이 상당히 모호한 구분은 BJ 활동에 몰두할수록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 BJ를 직업으로 하는 이들의 일상 은 방송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BJ 개인의 일상

BJ는 저마다 고정 방송시간을 정해 방송국 첫 화면에 고지해 놓는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10시 사이”와 같이 적힌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매일 어김없이 방송이 시작하는 즈음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명시된 시작 시간대와 달리 한 번 시작한 생방송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으며, 쉽 없이 대여섯 시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방송(방송종료) 타이밍”은 주로 그때그때 분위기와 눈치를 보아 시청자와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다. 만일 누군가가 “연장풍”의 명목으로 별풍선을 쏘면 BJ는 자신이 원했던 방송종료 시간이 있더라도 “적절한 단가에 맞춰” 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

심지어 생방송 중 “48시간 연속 방송,” “72시간 연속 방송” 등의 “공약”이 즉흥적으로 성사되거나, BJ가 자발적으로 방송을 켜둔 채 카메라 앞에서 자기도 한다. 방송시간과 관련한 약속을 어길 경우 BJ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명,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sup>31)</sup> 생방송 중이 아닐 때는 다른 BJ의 방송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거나, 새로운 방송 기획을 구상한다.

---

31) 만일 사전 공지나 (빠른 시간 내의) 사후 해명글 없이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BJ는 다음 생방송에서 시청자의 거센 비난과 공분이 쏟아질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방송에서 자신(의 일상)을 노출하나는 질문에 “일단 방송을 켜면 누군가 별풍선을 쏘 돈을 버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냐는 식의 혼란스러운 답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상호 맞물린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BJ의 일거수일투족은 별풍선을 받음으로써 언제든지 불시에 상품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 2) 통념상 돈으로 살 수 없거나 사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가치(감정, 신뢰 등)의 물질적 교환이 아프리카TV에선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들에서 BJ의 방송 활동이 자본주의적 기반 위에 서 있고,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빠져나감을 발견할 수 있다. 별풍선 교환에 얽힌 금전적 수익성은 모두가 익히 인지하고 있지만, BJ가 시청자를 수입원으로 취급하는 식의 태도나 시청자가 별풍선으로 BJ를 사유화한다는 방식의 논리는 현지인에게 반감을 사고 배척된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은 일단 돈이면 뭐든지 다 할 듯 보이는 BJ를 겨냥해 현지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참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구체적 양상은 금전거래와 맞물린 선물교환의 논리로 펼쳐지고, BJ의 “괴물”됨에는 돈의 노예라는 자조·비판과 함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인정하는 의미가 함축해 있다(김수진 2017: 95-97). BJ와 시청자는 소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는 사이인데 BJ가 “진정성 없음” 것처럼 보이면 별풍선이 아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실시간 인터넷방송에서 BJ 개인의 일상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의’ 일로 확장된다.

## ‘우리의’ 일상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는 결코 BJ의 언행을 시청(視聽)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생방송 중 BJ의 일상은 채팅의 즉각적 관여와 함께 실시간으로 살아진다. 이런 상황을 BJ는 어떻게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꾸리는가? 한편 시청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에 왜, 어떻게 적극 관여하나? 특정 누군가들의 상황과 이야기가 당사자 아닌 수많은 이와 공유되는 과정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로, 먹방의 경우를 떠올려보자. 혼자 밥을 먹는 BJ가 있다. BJ 앞에 놓인 진수성찬을 보며 채팅은 자꾸 그에게 이걸 먹어 달라, 저것을 먹어봐라, 이것과 저것의 맛을 비교해 달라며 요청한다. 이른바 “먹방”<sup>32)</sup>의 흔한 모습이다. 시청자 자신은 정작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는 현대사회에서 억압된 욕망의 대리만족과 자기통치로 분석되곤 한다(김혜진 2015; 문영은 외 2017 등). 그러한 담론에서 실제 먹기를 수행하는 BJ는 타인이 지닌 욕망의 투사·재현물로 대상화된다. 하지만 뒤집어 말해, BJ에게 그러한 채팅 한 줄 한 줄은 오히려 자신의 머릿속 번잡한 ‘생

32) “먹방”은 ‘먹는 방송’이 줄임말이다. ‘

각1, 생각2, 생각3...’이 화면에 대신 가시화한 것이다. BJ는 이 여러 ‘생각’ 중 일부를 선택해 수행하며 시청자는 BJ의 선택의 결과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행연구를 반박하는 일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그림Ⅲ-2] ‘먹방’ 사례

“먹방”은 말 그대로 BJ가 음식을 먹는 방송이다. 일상방송 중 BJ가 방송을 켜놓고 식사를 한 모습이 예기치 않은 큰 호응을 사 일반화된 방송장르가 되었다. 이른바 “먹방 전문 BJ”는 한 사람이 한 끼로 먹기에는 많아 보이는 양의 음식을 준비해 다 먹는다.

생방송-채팅에서 아프리카TV 시청자는 BJ가 처한 관계나 사건에 대한 당사자로서 연루된다. 선후관계가 어찌됐든, 직접 당사자인 BJ 또한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을 유보해 시청자에게 그 여지를 넘긴다. 서로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empowerment) 방 안의 관계에서 BJ와 시청자는 각각이 항상 수동적이지도 능동적이지도 않다. 아프리카TV의 방송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간자로서 BJ가 자신이 ‘사적’으로 관련된 사람·상황(㉠)과 다수 시청자(㉡)를 연결한다. BJ가 없다면 ㉠과 ㉡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나면, BJ와 BJ의 지인·상황이 시청자를 매개로 관계하는 구도가 이차적으로—부차적인 것은 아니다—생성된다. 방에 펼쳐지는 모습은 채팅화면을 바라본 채 서로 상대에 대한 시선은 어긋나 있는 출연자들과 실시간 올라오는 채팅이다.

서로가 권한을 행사하는 ‘3자’는 어긋나는 진정성(의 지향)을 두고 경쟁과 타협, 갈등을 거듭한다. BJ는 일부러 방송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관계나 사건을 BJ가 방송에 소급해 “콘텐츠”로 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려 드는 시청자의 구속이 항상 즐겁지만 않다. 한편 “별풍선만 받고 간섭 받기는 싫어하는” BJ는 시청자에게 비난과 외면의 대상이 된다.

“내 말을 털어놓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다는 BJ하루나는 정작 방송을 하다 보니 “팬에게 내 얘기를 못하겠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BJ는 그 스스로가 방송 콘텐츠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인간’ BJ와 콘텐츠를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내(BJ)가 곧 콘텐츠”라는 주장과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 달라”는 호소가 동일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사전에 기획된 콘텐츠를 연행함으로써 이뤄지는 BJ의 “자 기브랜딩”(Gershon 2016; 이동후·이설희 2017: 150-152)은 BJ가 시청자채팅의 개입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 2) 돈놀이

별풍선이 실제 증여되는 현장은 어떨까? 가장 화려한 경광은 매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 펼쳐진다.<sup>33)</sup> 한 달의 마지막 날 평소처럼 BJ는 방을 연다. 방 안의 모두는 곧 ‘그 날’이 올 것을 들뜬 마음으로 예견하고 있다. 자정이 되어 누군가의 1일 첫 증여가 발생한다. BJ는 증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화답이 채 끝나기 전 별풍선이 잇따라 BJ의 말이 압도당한다. 평소보다 큰 수로 빠르게 터지는 별풍선 행렬로 BJ와 채팅의 “화력”도 격렬히 고조된다. 그 생생한 순간을 직접 목도하기란 관찰자적 경이로움을 넘어 진정 가슴 뛰는 일이다. 이른바 “월초 수금(收金)”이라 불리는 이 숨 가쁜 환호와 감탄의 현장은 몇 시간이고 계속된다.

아프리카TV에서 ‘어떤 BJ가 한 회의 방송만에 수천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받았다’는 전설적인 기록은 꾸준히 경신되고 있다. 그 소문은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퍼진다.<sup>34)</sup> 많은 이를 아연실색케 하는 점은 BJ에게 아무리 많은 별풍선을 주더라도 증여자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없으며 그로써 얻은 위세 또한 사이버스페이스 내 부로 고립돼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방에서 별풍선이 창출하는 이윤은 오로지

33) 매월 1일에 통신사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풀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

34) ‘별풍선 계산기 사이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 장의 [그림Ⅲ-4] 참고.

BJ에게 수렴한다.<sup>35)</sup> 손익을 따지는 합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낭비에 불과하다. 대체 시청자는 왜 별풍선을 주는 걸까?

설명의 난해함을 직감한 일반의 시선은 ‘합당한’ 사례를 들며 연민과 비난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sup>36)</sup> 명백한 문제 사태를 두고 별풍선이 조장하는 경쟁심 과열과 왜곡된 욕망을 비판한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언론에 의해 이렇게 강조되는 ‘특이사례’는 현지에서도 옹지 못한 극단적인 일로 여겨진다. 더욱이 ‘큰손’의 희귀함을 아는 BJ는 별풍선 수입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원치 않는다.<sup>37)</sup>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실제 대다수 아프리카TV 사람들은 나름의 합리적 계산에 따라 별풍선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왜 시청자는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별풍선을 쏘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 이것은 놀이이다

별풍선 선물은 아프리카TV 방송을 “재밌게” 만드는 놀이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듯, 별풍선에 돈을 쓴 자에게 투기(投機)적 효과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도박과 엄연히 다른 ‘돈놀이’이다. 그렇다면 돈을 갖고 하는 놀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선, 놀이의 역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놀이하는 행동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행동이** 표시하는 어떤 것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베이트슨 1998: 288)는 것이다.

베이트슨이 들었던 예로, 장난스럽게 무는 행동은 물어뜯는 행동을 표시하지만, (연구자가 쉽게 재해석해 보자면) 물어뜯긴 자에게 ‘진짜’ 상해를 입히는 것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동시에 진짜 상해를 입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난의 “틀”(ibid.)과 틀 밖의 것은 서로를 규정한다. 또한 그러한 배타적이며 내포적인 상호관련 때문에 장난스럽게 무는 행동의 ‘허구성’이 리얼리즘을 획득하기도 한다(ibid.: 292-293).

---

35) 별풍선 교환으로 창출되는 회사의 이윤은 별개의 경로의 것이다.

36) 어느 시청자가 별풍선 충전 금액을 마련하고자 벌인 횡령, 절도 등 범죄행위나 별풍선 과소비로 고통받은 아프리카TV ‘외부인’의 서사는 세간의 이목을 아프리카TV에 집중시켰다.

37) 이는 다수 BJ가 겪어 알려진 경험적 사례가 누적된 선견(先見)이다. 물론 BJ 입장에선 큰돈을 꾸준히 톡톡 써주는 사람이 많다면야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차라리 “매월 10만원 씩 별풍선을 주는 시청자가 여럿 있는 게” 유리하다. 한편 스스로 소화하지 못할 과잉지출을 했다가 변심한 시청자가 BJ에게 “환전”을 요구하기라도 하면, 법적으로 환전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여러모로 BJ는 난처해진다.

같은 논리에서, 방 안의 내가 별풍선을 주는 행동은 나의 돈을 낭비시켜 BJ의 돈을 벌어준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별풍선 “선물”의 틀은 자본주의적 소비·구매와 상호 관련되지만 그와 구별하려는 선을 긋고자 한다. 이러한 틀은 현장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것은 놀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도록 한다. 방 안의 사람들은 별풍선 증여에 참여하는 동안 ‘그 낭비적 소비가 아깝다’거나 ‘별풍선을 통해 BJ(의 서비스)가 상품화되어 매매된다’는 종류의 인식을 의도적으로 배척한다. 심지어 시청자들이 BJ를 소외시키는 척 하거나([사례Ⅲ-3]), 상당히 ‘의미 없어’ 보이는 별풍선 쏘기([사례Ⅲ-4])가 이뤄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 [사례Ⅲ-3] “백두산 타기”

꼭대기까지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을 은유하는 “백두산 타기”는 ‘1, 2, 3...’, ‘11, 22, 33...’ 등과 같이 수열에 맞춰 별풍선을 연달아 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명 혹은 소수의 “큰손” 시청자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소규모 증여자인 “시금치” 시청자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이뤄지기도 한다. 별풍선이 잇따라 터지는 동안 BJ는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주로 백두산을 타는 동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춤을 추거나 달리는 등 육체적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종종, 백두산 타기는 BJ가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나 ‘그만 쏘라’며 별풍선을 마다할 때에 진행된다. 이럴 때 시청자는 오히려 BJ더러 ‘네 볼 일 보라’는 식으로 그를 무심하게 대하며 “우리끼리 노는” 숫자 놀이를 이어간다. 참여자들의 관심은 그 수열이 얼마의 숫자가 될 때까지 이어지는지 자체에 집중돼 있다.

### [사례Ⅲ-4] 끝자리 수 맞추기

BJ가 송출하는 화면 한 칸에는 그날 받은 별풍선 총 개수가 띄워져 있곤 한다. 화면에 보인 누적 별풍선 개수가 예를 들어 ‘2899개’인 경우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시청자A는 별풍선 1개를 쏘며 “2900개 맞췄다”고 만족해한다. 시청자B가 A와 동시에, 혹은 A의 증여를 보고 뒤이어 별풍선 1개를 쏘다. 2901개가 된 숫자는 “오염됐다.” 그러자 시청자C가 별풍선 99개를 쏜다. ‘3000개’로 깔끔하게 떨어진 숫자를 보며 C를 비롯한 사람들은 만족해한다. 이런 “짤풍”<sup>38)</sup>에 대해 BJ의 리액션은 굳이 기대, 요구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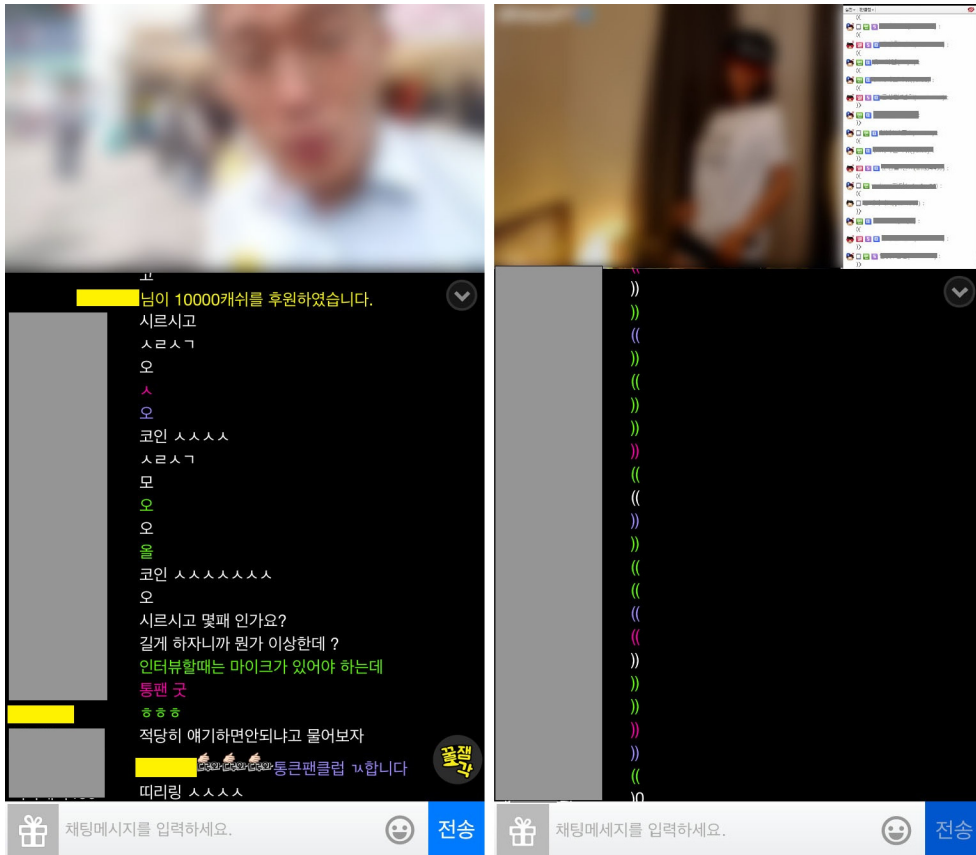
는다. 만일 숫자가 다시 ‘오염’되면, 끝자리 수 맞추기는 (증여가 시들해질 때까지) 얼마간 반복된다.

한편, 별풍선 선물은 돈의 전달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그 숫자(이미지)는 보는 사람들이 BJ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생각하게 한다. 네 자리(몇 십만 원대), 다섯 자리(몇 백만 원대)가 넘어가는 개수는 감탄을 자아낸다. 반면, 그 개수가 적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방 안의 큰손 시청자는 BJ에게 조금 더 “일당을 챙겨주고 싶어” 별풍선을 주기도 한다. 실시간 선물된 별풍선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단가에 맞는” 리액션이 적극적으로 따져진다.

가령, BJ가 별풍선 10개를 받으면 아주 쉽고 단순한 퍼포먼스만 하거나 리액션을 아예 생략해도 괜찮지만, 별풍선 1000개에 대한 리액션은 10개일 때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과장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1000개를 증여한 자가 ‘10개의 리액션’을 요청하거나 리액션을 요구하지 않으면 BJ는 일단 의아해한다(혹은 당혹스러운 척한다). 동시에 별풍선을 증여하지 않은 다른 시청자들이 증여자 대신 1000개에 상응하는 리액션을 제안, 요구한다. ‘관대한’ 증여자가 적극적으로 리액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등가성을 충족시키지 않은 BJ에게는 “창렬” 등과 같은 거센 비난이 쏟아진다. 반면, BJ가 열성을 다해 리액션을 수행하면 채팅은 “코인 들어갔다”는 자조 섞인 흐뭇함을 더러 표하기도 하며, 함께 현장의 신명나는 분위기를 돋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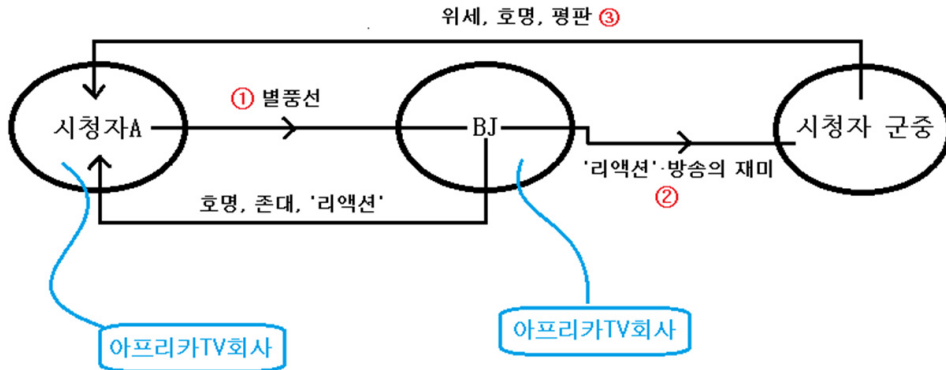
38) “잘풍”은 1개, 2개, 10개 등과 같이 방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소규모 별풍선 선물을 의미한다.



[그림 III-3] 별풍선 놀이의 현장

BJ와 증여자 간 ‘주고 받기(give and take)’가 이뤄지는 와중에 현지에서 증여자가 별풍선 지출 액수를 따져 BJ에게 자신의 권한을 집요히 행사하려 드는 행동과 태도는 강하게 배치된다. 방 안의 별풍선 교환에서 요구·형성되는 ‘거래의 등가성’은 상품적 매매의 성격을 내포하나 매매 관계와 구분되는 선물의 메타적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요컨대, 별풍선은 선물과 돈으로 분리된 영역을 상호 배타시키며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살린스(ibid.: 230)의 분석을 참조해 별풍선 선물의 순환을 도식으로 단순화해 본 것이다. BJ로부터 나오는 이중 화살은 그의 중간자적 위치를 표시한다.





### [도식Ⅲ-2] 순환적 고리

개별 시청자가 BJ에게 별풍선을 증여했을 때 발생, 순환하는 가치를 도식화해본 것이다. 아프리카TV 회사는 이 순환고리 바깥에서 기식자로 남아있다. 회사는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방송이 가능해지는 최초의 장을 마련하고 생방송-채팅 관계를 종료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다. 아프리카TV 회사는 세르(2002: 14)가 “폭포 같은 연쇄고리”에서 표시한 ‘P0=(최초의) 생산’과 ‘P4=소음’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P0과 P4가 같아질 때 연쇄고리는 파기된다. 그와 관련해서는 논문의 V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 인정 투쟁

별풍선 주기는 시청자가 BJ에게 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지지이다. 또한 별풍선을 통해 나의 지지 사실을 인정받는 일은 방 안에 내 자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별풍선으로 BJ와 내가 관심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는 방 안의 다른 시청자 군중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별풍선 증여자는 일차적으로 BJ가 시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재미를 별풍선을 통해 자신이 선사함으로써 관심을 획득한다.

별풍선 선물은 증여자가 BJ에게 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이나, 3자 구도로써 행해지는 격렬한 위세경쟁과 역할놀이, 즉 의례적 폭력이다. 별풍선 증여는 일종의 역할놀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규칙적인 형식, 의례적 패턴이 존재하지만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돈놀이는 미리 짜여진 의례와는 다르다. 누가 어느 역할 자리를 맡을지는 매 순간 즉흥적으로 결정된다. 방 안의 자리를 확보하는 “패스트 트랙(지름길, fast track)”으로서 별풍선 증여는 인정 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나아가 현지에서 권력이 분배되는 문제와 밀접히 맞물린다. 관련해서는 본 장의 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

루겠다.

### 3) 별풍선 교환 경로

“별풍선은 흐름이다.” 별풍선을 주기 직전의 본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누가 언제 별풍선을 선물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현지인은 동물적 감각이라도 발휘하듯 별풍선의 “흐름(타이밍, 분위기)”을 감지해낸다. 예를 들어 BJ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흐름이야?”라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채팅이 BJ보다 먼저 “ㄱㅇ39)”를 치기 시작하기도 한다. 방에서 별풍선이 “유도”되는 과정이다. 흐름의 성공은 누군가 머지않아 별풍선을 선물하는 것으로써 포착된다. 얼핏 참 쉬워 보이지만, 이는 결코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해서 통하지 않는다. BJ들은 “다른 방송 보면서 연구하고 따라해 보기도 하는데” 별풍선을 잘 받는 인기BJ의 행동을 흉내 낸다고 해서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BJ에게 별풍선을 주는 이유는 각자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양한 동기를 포괄하는 답은 결국 질문의 동어반복인 ‘내가 별풍선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도 연구자가 어쩌다 별풍선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재차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반복해 나열하거나 아프리카TV를 하다보면 별풍선을 “주게 된다”고 했다. 기실 별풍선의 작동은 참여자 개인의 의도만으로 설명되거나 그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 애초에 별풍선을 주는 사건의 발생에서 내가 별풍선을 쏘게끔 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증여자-BJ-시청자 군중’과 같은 3자 구도는 이 ‘무엇’과 관련이 깊다. 인간 행위자 ‘3자’의 구도는 예컨대 ‘인간-증여물-인간-증여물-인간...’의 연속적인 관계로 보다 세밀하게 펼쳐진다. 여기서 인간과 관계하고 있는 증여물의 자리를 새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행위자 간 관계 자체가 이후 행동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성을 지닌다. 이제 ‘왜 별풍선을 주는지’의 질문은 조금 다르게 살펴질 수 있다. 증여물의 이동은 어떤 궤적을 그리는가?

### 흐름의 형성과 종결

---

39) ‘뭔가가 시작되나?’ 하는 의미에서 ‘가나요?’를 묻는 초성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말과 별풍선이 교환의 고리를 여닫는 증여물이다. 한 시청자(아래 사례에서는 ‘현대판어그로’)가 방에 화두를 던진다. BJ는 그 채팅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말을 전달한다. 이와 실시간으로 다른 시청자 또한 그 화두에 주목해 각자 나름의 말을 쏟아낸다. 생방송 공간에서 모든 말이 증여되는 것은 아닌데, 증여에 성공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식별되는 것에 해당한다.

### [사례Ⅲ-5] 개시 선물(opening gift)로서 말 증여

현대판어그로(채팅): 혹시 고민 있는데 들어줄 수 있나요?

BJ공쥬: 어그로님 말씀하세요. (BJ는 이어지는 현대판어그로의 채팅을 소리 내어 읽고 대답한다.)

현대판어그로: 제 친구가 오늘 오후 2시에 입대합니다. 성명은 김현수이고요.

신바람: 추카해요

현대판어그로: 작별인사 or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만년제과: 살아 돌아오세요

BJ공쥬: 2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군대 가서도 사람 잘 사귀고요 [...] 거기 가서 생활 잘 하고 오십시오. (BJ는 자신의 말 중간중간 채팅을 소리내 읽으며 화제를 이어간다.)

그건그래: 힘내십쇼 어그로님

오순록: 국방부 시계도 돌아갑니다

신바람: 국가가 널 해칠지도 몰라 몸 조심해

그건그래: 현실팩폭 ㅋㅋ

멀티플러스: 그냥 군대에서 말뚝 박으세요. 현실입니다.

BJ공쥬: 군대에서 쌓은 인연이 오래 가더라고요. 힘들 때 쌓은 인연이라 [...]

오순록: 군대 가서 전역 후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면 시간 금방가요.

BJ공쥬: 군대 가는 게 암울한 게 아니라 사회 나와서 앞으로 뭐해 먹고 살까 하면 군대 시간이 더 소중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언 어느 정도 된 거 아니에요? [...]

오순록: 사회가 더 암울하죠 ㅋㅋ

신바람: 당신은 평생 함께할 전우가 생긴다.

그건그래: ㅋㅋㅋㅋㅋㅋ

만년제과: 부디 부사관으로 빠지지 않기를

(화제 전환)

한 명의 시청자가 제시한 화두가 방 안에 회자되며 말 증여의 구간이 형성되었다. 이후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이어진다.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앞서 ‘공주 방’에 있었던 양상만이 사례로 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 [사례Ⅲ-6] {말 증여 → 별풍선 증여} → {...}의 종결

BJ에게 묻는 형태로 방 안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던 시청자 ‘전세기’는 그에 대한 대답이 돌아오고 해당 화제가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자 감사 인사로 화답했다.

전세기: 감사합니다. 건빵 말도 잘 들어주시네요. (별풍선 10개 선물)

매니저칠퐁이: 전세기님, 10개 팬 가입 감사합니다.

BJ칠색조: 세기 10개 고맙다. 앞으로 자주 들어와. (짧은 손짓의 리액션 수행)

‘전세기’의 말로 개시된 말 증여 구간은 그의 별풍선 증여 구간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시 별풍선 선물에 대한 BJ의 리액션 되갚기로 일단락된다. 전세기가 계속 방에 머물며 채팅을 치더라도 (그런 상황과 별개로), 전세기의 감사 인사와 별풍선 10개 선물은 ‘종결 선물’이다. 시청자 군중은 10개의 소규모 별풍선에 대해 무관심했다. 잠깐 동안 전세기의 화제로 초점이 모였던 방송-채팅은 전세기가 별풍선을 선물한 즈음 다시 산만하게 흩어졌는데, 이는 곧 ‘전세기-말(질문)-BJ/시청자-말(대답)-BJ/시청자-말(화제 지속)-전세기-말(감사 인사)/별풍선-BJ의 리액션’이라는 큰 구간이 종결된 상황이다. 전세기가 아무 말 없이 방에서 사라지거나 감사 인사만 한 경우에도 화제는 다시 산만해지거나 초점을 옮겨가며 이전 구간의 종료를 지시한다.

이처럼 낮은 레벨의 교환으로써 높은 레벨의 교환 경로에 진입하는 원리를 보여 준다(Damon 1983 참고). 낮은 레벨의 교환에서 참여자의 말 증여나 소량의 별풍선-증여는 꼭 제3자의 관여를 호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은 증여자가 더 높은 레벨의 별풍선 교환 경로에 들어서도록 유인하는 개시 선물로 작용한다. 별풍선의 “흐름”은 바로 어떤 것이 개시 선물로 인식되었을 때 느껴지며 종결 선물(closing gift)이 증여되었다고 인식되면 끝난다. 요컨대 한 증여자의 개시-종결은 다른 증여자의 개시-종결과 맞물리며 연속적인 ‘말 증여 구간-별풍선 증여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례Ⅲ-7] {말 증여① → 말 증여② → 별풍선 증여} → {...}의 종결**

사례 Ⅲ-7과 같이 구간 포착이 가능한 말 증여①이 일어났다. BJ통구의 방에서는 말 증여를 개시한 시청자 ‘개리뷰티’가 별풍선을 선물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례Ⅲ-8에서와 달리 이는 관련한 또 다른 말 증여 구간을 만들었다. BJ통구: 아 근데 이 건빵 새끼, 팬가입 좀 하자.

채팅: | |

채팅: 팬가입 드루와드루와

채팅: | |

채팅: | |

채팅: | |

채팅: | |

채팅: | |

채팅: | |

**\*\*별풍선 100개 선물 (개리뷰티님, 8739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채팅: | |

채팅: 오오

채팅: 통큰 팬갑(따봉)

채팅: 오

이 ‘| |’ 표시는 물길을 트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말 구간의 종결이 새로운 별풍선 증여 구간의 개시 신호로 인식되거나 유도되며, 시청자가 합심해 물길을 트는 또 다른 말 구간이 형성된 양상이다. 개별 채팅이 ‘| |’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동안 BJ는 물음표 가득한 표정과 몸짓을 보이며 신나는 노래를 틀었다. 이 두 번째 말 증여에 꼬리를 문 ‘개리뷰티’는 곧 별풍선 100개 팬가입을 했고 BJ통구가 리액션으로 화답함으로써 해당 별풍선 증여 구간의 형성과 완결을 알렸다.

[사례Ⅲ-7] 상황 직후의 ‘공쥬방’에서는 앞서 사례들에 비해 별풍선 증여 구간이 형성되기까지 더 많은 경로를 거쳤다. ‘현대판어그로’는 ‘군대 고민’만 투척해놓고 침묵을 지켰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새 방을 나가버린 것이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방 사람들은 허탈해하는 반응이었다. 허나 현대판어그로의 말-개시는 의도치 않게 그날의 방송 ‘컨셉’을 만들었다. 방에 새롭게 등장한 건빵 시청자의 채팅을 화두 삼아 ‘고민 상담’을 해주는 형식/구간의 말 증여가 이어졌다. BJ가 고민 상담 중 자신의 현재 상황을 투영하며 별풍선이 종종 (노골적으로) 환기되었고 ‘자연스럽게’

별풍선이 유도되는 흐름이 조성되어 갔다.

### [사례Ⅲ-8] 다시 ‘공쥬방’의 상황

신바람: 올레티비(IPTV 서비스) 같은 거 보려면 돈 내야 되는 것처럼

신바람: 아프리카 방송도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BJ공쥬: (신바람의 채팅을 읽으며) 이렇게 하신 바람님, (웃음) 팬가입은 하실 수 있잖아요?

(채팅은 “ㅋㅋㅋㅋ” 등 웃는 반응을 보인다.)

\*\*신바람 별풍선 1개 선물 (신바람님이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신바람: 거금을 냈습니다. 너무 무리했네요.

BJ공쥬: 아 이렇게 팬가입 하시려고 본인이 발등 찍은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 몇 시간 방송했죠? 저 지금 두 시간 반 동안 수익 60원이네요. (웃음) [...]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한 ‘건빵’ 시청자 ‘옹골매’가 “나 메이저방 큰손이다”라며 ‘어그로’를 끌었다. 유명하지 않은 그의 이름에, BJ와 다른 시청자들은 “큰손일 리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옹골매는 자신이 “존재감 있는 건빵”이 되었음을 자부했다. 그런 옹골매에 대해 BJ 공쥬는 조금 전 별풍선 ‘수신료’ 상황을 상기해냈다.)

BJ공쥬: 자, 놀아드렸으니까 이제 시청료 주세요.

(BJ의 신호와 함께 채팅은 다시 “I I” 채팅을 치며 물질을 텃다. 타겟이 된 옹골매는 도망가 버렸다. 이를 본 다른 ‘건빵’ 시청자 ‘실버’가 “뽕뜯는 콘텐츠?”라며 비아냥거렸다. 그 등장으로 실버는 옹골매를 대체할 관심 대상이 되었다. 실버는 결국 적극적으로 유도 당하며 별풍선 100개 팬가입을 하고 말았다. 채팅에서는 “이야,” “오오오오,” “통 큰 팬가입,” “클래스가 다르다” 등 환호가 쏟아졌고, BJ는 열성적인 리액션으로 재미를 선사했다. 별풍선 흐름을 탄 것이다.)

BJ공쥬: 자 이번 손님은 누구신가요?

채팅: ㅋㅋㅋㅋ

신바람: 말하기가 두렵네요

신바람: 그래님 글이 많으신데

신바람: 풍선 쏘고 싶은가 봄

그건그래: 헐

BJ: 이쯤에서 두 분의 풍선 대결을 해볼까요? 누가 쏜 풍(별풍선)이 더 많은지? 대결을 하려면 같은 레벨에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바람 별풍선 1개 선물\*\***

신바람: 자 나 1개 쏜

BJ공주: 자, 그래님은 몇 개의 시금치인지 보겠습니다 [...]

신바람: (그건그래의 채팅이 잠잠해지자) 그래님 말 안함. 어떡하죠.

신바람: 줌 끝난거 같음

BJ공주: 그래님 제가 (누적 별풍선 선물 개수를) 공개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건그래가 선물한 총 별풍선 개수로 100개가 화면에 보인다.)

신바람: 이올, 100개씩이나-..-

그건그래: 후후후

신바람: 내가 뉘인거임?

**\*\*신바람 별풍선 98개 선물\*\***

신바람: 자 이제 뒤통?

(BJ는 98개에 대한 리액션을 수행했다. 리액션이 끝나자 신바람의 도발에 응수한 그건그래가 별풍선 100개를 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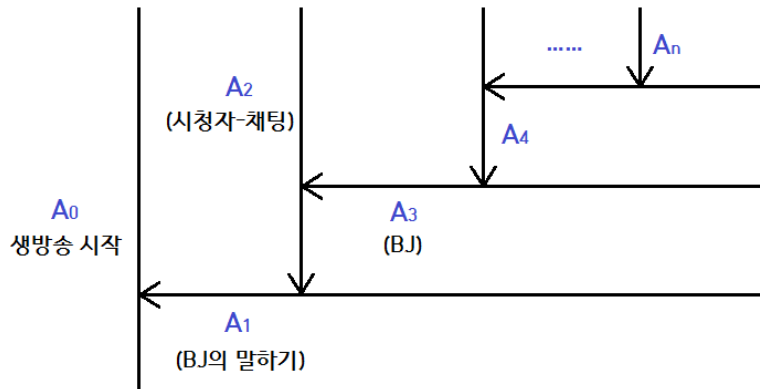
**\*\*그건그래 별풍선 100개 선물\*\***

신바람: 100개나왔음 다시 컴퓨터 확인해야겠음

그건그래: ㄴㄴ 저 이제 끝나쩌엄

(만일 이 두 시청자가 ‘큰손’이 될 감량이 있었다면 이후 별풍선 포틀레치가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큰손의 여력이 없었던 그건그래의 ‘항복’ 선언과 함께 대결은 종결됐다.)

아프리카TV에서 선행한 증여 구간의 완결은 이후 구간의 개시와 맞물리며 연속적인 고리를 형성한다. 누구에게 어떤 역할 자리가 옮겨갈지는 행위의 연쇄 속에서 이동하며, 이전에 그 역할 자리에 놓였던 개별 인물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금방 대체된다. 이는 그 누군가의 의도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단지 누군가의 증여가 발생했음 자체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현자인이 예민하게 감지하는 어떤 “흐름이야?”의 순간은 어떤 체계 속에서야 가능한 인지작용이다.



[도식Ⅲ-3] 아프리카TV 생방송의 사이버네틱스

도식에서 A는 행위소의 영단어인 ‘actant’의 약자이다. 행위자-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에서 행위소는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영향력을 지니며 번역/매개하는 모든 것”(이경목 2016: 315)을 칭한다. 특히 연구자의 분석은 행위자성(agency)의 개념을 확장시킨 겔의 논의에 착안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성이란 사건이 일어나도록 유발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다루기 위해 문화적으로 규정된 틀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 인간 행위자(person-agent)든 물건 행위자(thing-agent)든 이전에 그것을 의도했다고 상정되는 무엇인가”(Gell: 1988: 17, *ibid.*: 315 재인용)를 말한다.

앞선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듯, 방 안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시청자가 방을 나가더라도 다른 사건이 개입하고 그에 응수하는 반응이 나오며 행위망은 끊기지 않는다. 동시에 이는 다른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기존의 ‘연결구간-행위자’가 방해받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위 도식에서  $A_n$ 은 BJ, 시청자채팅, 별풍선, BJ와 채팅 사이 일련의 관계가 작용한 ‘무엇’들일 수 있다.  $A_1 \sim A_4$ 의 괄호 ‘( )’ 안 내용은 연구자가 임의로 예시를 든 것뿐이다.  $A_n$ 이 BJ에 의한 것이든, 운영자의 강제조치에 의한 것이든, 서버 장애 등 기술적 방해로 인한 것이든 생방송 종료 사건이 될 때 행위의 연쇄고리는 파기된다.

아프리카TV 사회의 체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단위는 ‘나’라는 신체적 경계나 의식적 주체로서 ‘자아’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동하는 행위망의 연쇄로써 끊임없이 자기 조절되는 역동적 체계이다(Bateson 2006, 오명석



2012: 190-196 참고). 이는 아프리카TV의 시간성이 단선적으로 퇴적되는 역사가 아닌 것과도 연관된다. 과거에 발생했던 유명한 양상이 일종의 전형처럼 생각될 지라도, 그러한 양상을 수행한 결과가 예측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유이다. 행위의 연쇄는 어떤 경계/기준을 생성하고 위반하기를 거듭한다. 별풍선의 이동 뿐 아니라 현지의 또 다른 “흐름”인 “민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방과 방 사이 이동

별풍선의 ‘흐름’은 강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전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있는 양상으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는(간다고 여겨지는) 별풍선 “유출”이 있다.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와 별풍선은 “돌고 돈다.” 말 그대로, A방에서 별풍선을 쏜 사람이 B, C… 등 다른 방에 가셔도 별풍선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닉네임이 어떤 방에서 ‘열혈팬’ 지위에 올라있거나 ‘큰손’의 유명세를 지닌 경우, 그의 별풍선 이동은 다른 현지인에 의해 추적당하고 유난히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A방이 본인인 열혈팬으로 유명한 내가 B방에 별풍선을 선물하는 의도 및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B가 좋아서’ 등의 연유로 B방에서 내 존재를 주장하고 인정받기와 관련된 측면(B방 내부); ② A와 B 사이 교류를 트는 가교 역할(A방과 B방 사이). 이때 B방에서는 앞서 분석한 선물의 논리대로 증여가 이뤄지고, A방 사람(특히 BJ A) 입장에서선 A방의 돈이 빠져나간 것처럼 여겨진다. 물론 그 의미와 효과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사례Ⅲ-9] 열혈팬의 “외화 유출”

BJ빈대의 열혈팬 회장인 ‘싱누나’는 빈대와 싸운 뒤 그와 비슷한 방송 컨셉과 시청자수로 경쟁관계에 있는 BJ양머리의 방에 가서 거액의 별풍선을 쏘았다. 사람들에게 이는 BJ빈대를 약올리려는 심산으로 보였다. 빈대의 방과 인방갤 등에서는 싱누나가 외화를 유출하고 있다며 빈대와 싱누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로 얼마간 떠들썩했다.

열혈팬의 이동에 따라 “외화 유출”에 민감한 BJ들 사이나, ‘민감한’ BJ와 열혈팬 사이에 실제로 반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때 예를 들어 A의 열혈팬 시청자는 A방에서 오명을 얻고(위세를 잃고) B방에서 “네임드”로 등극한다(위세를 얻는다).

#### [사례Ⅲ-10] BJ복산과 열혈팬 ‘치킨왕’, BJ라라의 삼각구도

BJ복산의 열혈팬 회장인 치킨왕은 이후 라라의 방에서도 열혈팬이 되었다. 라라는 치킨왕을 자신의 생방송 게스트로 섭외해 출연시켰다. 이를 알게 된 복산은 치킨왕이 라라의 방송에 나간 것을 불쾌해했다. 이 일을 계기로 셋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치킨왕은 ‘[BS]치킨왕’이던 자신의 닉네임에서 복산의 팬닉(‘[BS]’)을 떼어버렸다. 아래의 자료는 당시 치킨왕이 자신의 방송국게시판에 올린 글(오른쪽)과 그에 달린 복산의 댓글 내용(왼쪽)이다. 댓글에서 복산이 라라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인해 둘 사이 불화는 더욱 심해졌고, 이와 관련된 발언들은 현지에 ‘떡밥’이 되어 이어지는 논란과 비판을 야기했다.

<p>-작성자: 치킨왕</p> <p>-게시글 내용:</p> <p>[...] 저를 본 분이나 쪽지로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가 돌기에 말씀드립니다. [...] 전 B(치킨왕이 복산을 이니셜로 익명 처리한 부분)방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BJ L(라라를 이니셜로 익명 처리한 부분)방 열혈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L분께서 제 거주지 동네로 오신다 하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죠. 잠시 방송에도 출연합니다. 얼굴은 잠시 5초 정도?? 그러면서 (제가) 회장(열혈팬 최상위 1인)인 방에서 부회장의 연락을 받게 되지요. 제가 출연한 걸로 방장(BJ복산)이 기분이 상했다 [...]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처음 모 비제이 방송에 출연한 걸로 인하여 (복산은) ‘어쩔 수 없느냐, 잘 지내라’는 등 저와 결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차후 (복산의 방송국에는) 친목이라는 공지가 뜨면서 (저와 사이가 틀어진 이유를) 친목으로만 얘기하더군요. (...) 그 이후 다른 열혈팬 분께 연락이 와서는 (자신도 이러한 상황이)</p>	<p>- 댓글 작성자: BJ복산</p> <p>- 댓글 내용:</p> <p>팩트만 말할게요 형님. [...] (치킨왕이) 4일 동안 (라라 방에서 별풍선) 5만 5천 개 빨리셨다고 팬들 300명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웃으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사과하셨죠?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셨죠 ‘다시 그 방가면 사시는 동네 해수욕장에서 옷 다 벗고 춤을 춘다, 내가 니 방 회장으로서는 나는 니 방송할 때는 다른 방송 안 본다’고 저한테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사람 볼 줄 알아요 형님.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비제이(BJ라라)가 어떤 의도로 접근하고 형님한테 연락하고 다른 열혈들하고도 어떻게 하는지도 알면서 동생(BJ복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출연을 해야 했나 라는 의구심입니다. [...] 그 비제이는 형님을 빼가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간 거고 왜 형님은 그걸 알면서 동생 버리면서까지 나갔을까요? 그리고 형님이 연락처 아는 (복산의 열혈팬인) 사람이 2명이죠. 근</p>
--	---

<p>이해가 안 된다며 그 분도 본인의 생각 하에 팬닉('[BS]')을 땡니다. 또한 저와 만남도 하게 되지요. (...) 위 상황이 친목이라면 친목일 수 있습니다. 허나 방송 출연으로 인한 얘기는 없고 친목으로만 몰아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러므로 열혈들끼리 썸을 땀다는 등 추측성 얘기는 그만해주시고요. 절 욕하실 분이 있다면 하세요. 전 회장자리에 있으면서 해당 BJ가 최고가 되길 진심으로 바랐고 후회 없이 응원을 해왔기에 미련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금 팬닉을 벗어난 상황이 너무나 좋구요. 정말정말 좋습니다^^ [후략]</p>	<p>데 그 L방에 그 중 한 명이 나오네요?? 형님 믿고 발등 찍힐 줄 알고 했는데 결국 찍혔어요 형님. 저 아프다고 그 멀리서 병원 데려다주는 형님을 제가 블랙을 넣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나쁜 놈이 아니란 거는 형님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님 이글 지우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형님 말 안 들어보고 전화 안 하고 순간적으로 블랙 넣은 건 제 잘못이니까 돌아오세요. 그리고 정말 안 돌아오셔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다른 방 가세요 형님. 젊고 이쁜 여캠들 놔두고 그 나이 많은 요괴한테 빠져가지고... [후략]</p>
--	--

다른 경우, 열혈팬의 별풍선 증여는 A방과 B방의 친목을 다지는 외교 역할을 한다. 합방할 때 열혈팬이 별풍선을 상대 BJ방에 쏘는 이유로 여러 방에서 열혈팬인 시청자는 연구자에게 “자기 BJ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쏘고 싶어서만 쏘는 게 아니야. 합방을 하면 내 비제이가 끌리는 게 싫으니까 몇 천 개 던져주는 거야”라고 했다.

역으로 BJ가 다른 방 열혈팬의 환심을 사고자—즉 “유출”을 유도하고자—다른 BJ의 방에 놀러오거나 사적으로 직접 BJ와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친분이 쌓인 방의 시청자는 ‘본진’의 BJ가 방송을 켜지 않는 동안 “대기방”으로서 그 BJ의 생방송에 놀러 가며 방 사이에 연대가 창출되곤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합방은 “수지타산”에 맞춰 성사된다. 높은 등급 BJ 입장에서는 “모기짓”하는 BJ에게 “피 빨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고정 시청자도 ‘나눠주고’ 그에 따른 별풍선 “유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메이저인 BJ도 자신이 진짜 “피만 빨릴 것” 같다면 합방을 꺼린다. 합방/탐방을 통한 교류는 자신이 잃을 게 없거나 결과적으로 “윈윈(win-win)”일 거라는 판단이 섰을 때 성사된다. “BJ들끼리 합방 효과도 돈이 안 되면 합방을 절대 안 해요. 결국은 돈이에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컨셉이 겹쳐 경쟁관계에 있는 BJ들끼리, 혹은 합방의 ‘위험’을 감수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서로 합방을 피한다.

## 2. 별풍선 증여와 권력

### 1) BJ 등급화에 따른 위세

#### 시청자수-권력, 별풍선-권력(“풍력”)

BJ의 위세는 결국 시청자와 별풍선을 원천으로 한다. 생방송의 실시간 시청자수는 그 BJ의 최근 인기도를 알려준다. 연예인이나 셀럽처럼 아프리카TV BJ에게도 팬층—방에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고정 시청자”—은 든든한 아군으로 여겨진다. 종종 BJ(의 팬덤) 간 위세 경쟁은 각 BJ가 얼마나 많은 고정 시청자수를 보유하고 있는지로 판가름 난다.

#### [사례Ⅲ-11] 시청자 수 ‘10명 대 100명’

특히 다른 BJ와 상대할 때, BJ에게 자신의 생방송 고정시청자수는 내 편 사람들로 인식, 기대된다. 아프리카TV의 모든 생방송 방에는 “투표” 기능이 있다. 말 그대로 BJ가 방송 중 투표 주제와 선택 항목을 설정하면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주로 BJ가 이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민심”을 살피거나, 게임의 승패를 가를 때 사용된다. BJ현자는 이 투표 기능을 예시로 고정시청자수를 확보하는 것이 BJ에게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있는 시청자들에게 많이 마음을 얻어놓고 가는 게. 끈끈하게. 그래야 하다못해, 아프리카 보면 유명 비제이들이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거. (생방송에서) 노래대회를 해도 투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 (...) A라는 BJ(고정시청자)는 10명이고 B라는 BJ(고정시청자)는 100명이 봐요. 그래서 메이저급 비제이(B)가 ‘투표합니다 시작!’ 하면 [...] 그 차이는 나거든요 확실히. 인지도에서 차이도 좀 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A랑 B가 노래를 했어요. 노래 실력이 똑같아요. 그랬을 시에 아무래도 시청자수 많은 BJ가 투표를 많이 받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소 수천~수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수를 기록하는 BJ는 별풍선 수입도 높은 편이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시청자수가 많을수록 ‘티끌 모아 태산’의 효과가 나타나기 더 쉬울 것이다. 모든 시청자는 잠재적인 별풍선 증여자라 할 수 있기에, 현지인의 일상적인 화법에서 시청자와 별풍선은 상호 대체, 동일시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 드러나는 양상에서 BJ의 ‘시청자수-권력’과 ‘별풍선-권력’이 상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청자수가 많을수록 별풍선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일반화는 다소간 유보될 필요가 있는데, BJ를 서로 비교해 평균 시청자수가 훨씬 적은 방에서 별풍선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물되는 반례 또한 거의 매일처럼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Ⅲ-4] “별풍선 계산기”

인방깁에 올라왔던 ‘별풍선 계산기’ 사이트 캡처 화면이다. 2016년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구간에 선물 받은 별풍선 개수가 큰 BJ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최고 시청자수’와 ‘총 별풍개수’가 비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란 가림표시〉는 BJ의 닉네임과 아이디, 〈파란 가림표시〉는 해당 구간의 24시간 동안 각 BJ에게 별풍선을 최대로 많이 선물한 시청자의 닉네임과 아이디가 적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서 BJ를 등급화 하는 방식과 그에 맞물린 위세 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TV 회사에서 제도화한 BJ 등급—“랭킹”과

“메달” 시스템—과 현지인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등급화—“메이저”와 “하코”의 구분—가 서로 준하거나 어긋나는 지점을 분석할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 BJ의 등급은 서열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지만, 등급에 따른 위세의 서열화, 고착화를 비트는 움직임 또한 항상 함께 하고 있다.

## BJ 랭킹과 “메이저/하코”

랭킹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모든 BJ에 대해 여러 지표의 방송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주일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다. 아프리카TV 회사 정책에 의해 랭킹 산정 방식과 랭킹 카테고리는 수시로 개편되어 왔다. 위 그림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 랭킹 산정 방식이다. 각각의 랭킹 산정 자료는 모두 시청자의 실시간 생방송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위 시기에 랭킹은 ‘전체, 신인BJ, 모바일, 게임, 보이는라디오, 스포츠’의 7가지 카테고리로 나타났고, 지난 1주일 치 산정 값을 토대로 매일 오전에 순위가 갱신되었다. 랭킹은 같은 BJ의 시청자수-권력을 공식화하고, 카테고리 내 순위를 앞다투는 BJ(와 BJ의 팬덤)들 사이 경쟁을 자극한다. 순위에 민감한 BJ는 등수가 밀리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매일 빠짐없이 방송을 켜다. BJ는 그 결과 ‘이번에 랭킹 몇 위 달성했어요’와 같은 뿌듯함과 시청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한다.

**afreecaTV BJ랭킹**

BETA BETA BETA

랭킹 홈 전체 신인BJ 모바일 게임 보이는라디오 스포츠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BJ랭킹은 지난 일주일간 보라 카테고리에서의 방송활동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랭킹 산정 방식 안내 ?

통합랭킹 여자 남자

랭킹검색

순위	BJ	UP	최고시청자	팬클럽상승	스티커지수	
1 2+	[Avatar]	▶ 시청하기	20,814	9,935	348	554
2 -	[Avatar]	▶ 시청하기	35,834	9,643	296	956
3 2+	[Avatar]	▶ 시청하기	14,123	7,555	381	1,092

### [그림 Ⅲ-5] 아프리카TV 랭킹 화면과 설명

아프리카TV 웹사이트에 고지된 랭킹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랭킹산정 방식 안내]

BJ 랭킹은 다양한 활동 데이터별 순위정보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추천 (40%) : 지난 일주일 간 받은 총 추천수
- 최고시청자 (40%) : 지난 일주일 간 가장 높았던 시청자수 (비회원, 중계방, 멀티뷰, 오픈TV 포함)
- 팬클럽 상승 (10%) : 지난 일주일 간의 신규 팬클럽 증가 수 (별풍선 선물 개수와는 무관함)
- 스티커지수 (10%) : 지난 일주일 간의 총 스티커 점수 (스티커 점수=스티커 선물 시청자수 및 선물 개수를 일정 비율로 반영)

현지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하꼬”와 “메이저”의 구분도 시청자수를 근간으로 한다. 카테고리 별 랭킹의 초상위권에 있는 BJ가 “메이저”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소수 메이저를 제외하면 모두 하꼬”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메이저’ 호칭이 붙은 BJ는 ‘상류층 특권 계급’과 같은 반열에 올라있는 듯하다. 기실 ‘메이저’ BJ의 인기는 ‘메이저/하꼬’ 구분을 모르는 외지인이더라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실시간 시청자수가 십 단위~백 단위인 BJ 방이 많은 가운데, ‘메이저’ BJ의 실시간 시청자수는 거의 항상 천 단위 후반~만 단위의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메인 화면 상단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별풍선이 BJ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보상이라면, 랭킹 숫자와 ‘메이저’ 칭호는 BJ가 방송활동을 열심히 한 데 따른 명예의 성격이 강하다. BJ가 받는 별풍선 규모는 랭킹으로써 포착되는 명예와 유리되어 있다. 우선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BJ가 선물 받은 별풍선 규모는 랭킹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나마 별풍선 선물과 관련이 있는 ‘팬클럽 상승’도 별풍선 선물 규모가 아니라 아직 해당 BJ에게 팬가입 하지 않은 시청자의 참여 자체를—비록 그 참여가 1개 이상의 별풍선 선물로 가시화될지언정—촉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평소 별풍선이 잘 터져 ‘풍력’ 좋은 방으로 유명한 BJ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메이저’ 반열에 오르지 않는다.

BJ 입장에서 “(당장에) 별풍선 못 받으면 위안은 되지만, 시청자도 없고 별풍도 안 터지면 죽고 싶”은 심정이다. ‘등급’을 막론하고 BJ에게 최악의 상황은 시청자도 없고 별풍선도 못 받는 경우이다. BJ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또한 인지도를 밀천으로 살아가기에 관심을 받아야 한다. 시청자수 욕심은 (장기적 관점에서)

별풍선에 대한 고려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로부터 BJ에게 시청자수와 별풍선 규모가 의미화하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랭킹과 ‘메이저’ 칭호에 한해) 부는 명예와 권력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별풍선을 통해 표출되는 관심과 지지(BJ의 인기)는 방 안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성격의 것이라면, 상위 등급으로 명명되기는 BJ의 유명세가 방 안밖으로 확장되는 ‘공식적’ 지표라 볼 수 있다. 랭킹 수치, ‘메이저’ 평가의 근간이 되는 ‘고정 시청자수’는 BJ 입장에서 자신이 동원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여론의 세력—연구자가 ‘시청자수-권력’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위세의 차이와 경쟁은 방과 방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 [사례Ⅲ-12] “가서 팬가입 해주라”며 “좌표를 찍는” BJ

상대 BJ에게 자신의 위세를 별풍선으로써 발휘하는 현장이다. 실시간 시청자수가 만명 상당 되는 BJ가 이제 곧 자신이 방송을 종료하면 다른 생방송 중인 BJ 누구의 방을 찾아가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다. 시청자군중은 그 방에 일시에 몰려가 그 방의 시청자 수를 높여주고 별풍선을 선물하며 팬가입한다. 대규모 방문객을 받은 BJ는 방송에서 자신에게 좌표를 찍어준 BJ에게 감사해하고 그의 ‘팬’을 환대한다. 시청자수-권력이 ‘풍력’과 비례하여 행사되는 상황이다.

‘시청자수-권력’과 ‘별풍선-권력’이 맞물리고 결절하는 지점에는 ‘큰손’ 시청자가 있다. 시청자수가 많아도 그 방에 별풍선을 많이 주는 ‘큰손’이 별로 없다면 시청자수-권력은 ‘풍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동시에 전체 시청자수가 늘면 ‘큰손’ 시청자가 유입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으로 인해 시청자수-권력과 풍력은 분리되어 상상되지 않는다.

이 모든 권력은 “BJ의 고정 시청자/팬덤”, “BJ의 풍력” 등으로 말해지지만 사실 BJ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별풍선-권력은 BJ가 다른 BJ에게 직접 큰 규모의 별풍선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는다. BJ끼리 별풍선 주기는 “수수료가 아깝다”고 여겨진다. 또한 시청자의 별풍선(‘풍력’)을 자신의 금전적 수익으로 가로채는 결절점이 바로 BJ 본인이기, 시청자수를 ‘두(頭) 당 별풍선’으로 계산하는 BJ의 태도는 격렬한 반감을 산다.

## 합방의 상황



둘 이상의 BJ가 생방송에서 관계를 맺는 데에는 상대 BJ 방의 시청자와 별풍선을 “버프”를 받으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모기”는 주로 낮은 등급의 BJ가 높은 등급 BJ의 시청자(및 별풍선)를 “유입”해가는 시도나 효과를 일컫는다. 특히 ‘메이저’가 아닌 BJ에게 ‘메이저’ BJ와의 합방·탐방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기회이다. 더불어 “열혈컷(열혈 등급에 오르는 최소한의 별풍선 개수)”이 상당히 높은 ‘메이저’ BJ 방송에 있는 열혈팬 및 큰손 시청자의 관심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BJ의 위세와 권력이 등급에 비례해 작동하는 측면이다.

### [사례Ⅲ-13] “모기” 전략

‘BJ 굴탱탱’은 ‘모기짓’의 성공적 사례로 기록된다. 당시 고정시청자수가 두 자리 수에 불과했던 ‘하꼬’ BJ 굴탱탱은 ‘메이저’ 중에서도 “대통령” 칭호를 받는 BJ 핫몬의 방에 직접 찾아가 “푸파(foodfight, 음식 빨리/많이먹기)” 대결을 신청했다. 당돌한 선전포고에 감명받은 ‘대통령’은 대결을 즉석에서 응수했다. 1분 30초 안에 매운 라면을 더 빨리 먹는 자가 승리하는 내기였고 굴탱탱의 승리로 끝났다. 굴탱탱은 핫몬에게 벌칙으로 1주일 간 굴탱탱의 팬닉(‘탱탱의 핫몬’)을 달 것을 요구했다. 핫몬의 인지도에 기대어 굴탱탱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얼마 뒤 핫몬은 굴탱탱과 2차 푸파 대결을 벌여 설욕전에 성공했다. 패배한 굴탱탱은 벌칙으로 삭발을 요구받았다. ‘여성BJ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삭발을 진행한 굴탱탱은 이후 한동안 현지에서 “여자대통령”이라 추대되었고 “시청자수 버프(buff, 게임에서 일시적으로 캐릭터의 기본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효과 또는 스킬에서 유래한 말)”를 누릴 수 있었다.

만일 굴탱탱이 핫몬과 합방동안 재미를 살리지 못했다면 그녀의 명성은 널리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모기”로 전략했을 것이다. BJ간 인기도 차가 클 경우 시청자수가 적은 BJ가 재미를 주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채팅은 “모기 꺼져” 등을 도배하며 그를 외면한다. 그럴 경우 BJ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신의 방에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데 실패한다. “모기짓도 (BJ의) 능력”이다.

성공적인 “모기”는 상대 BJ 방의 시청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재미를 선사해야 하는 것을 기본이고, 상대 BJ 방의 “민심”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 [사례Ⅲ-14] BJ별밤의 “핫몬을 웃겨라”

BJ별밤은 현지에서 성공한 모기 케이스로 꼽힌다. 핫몬이 자신을 웃기라며 시청자에게 전화를 받는 콘텐츠를 했다. 별밤은 BJ이지만 핫몬의 방에 시청자로서 접근해 핫몬과 핫몬의 방 사람들을 웃기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핫몬에 약속한 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별밤은 핫몬에게 ‘자신같은 마이 너한 BJ한테 갑질을 하는 것이냐’는 ‘갑질 프레임’을 씌워 설득에 성공했다. BJ의 ‘시청자수-권력’이 ‘갑질’로 포착되는 것에 현지인이 민감하게 반감을 느낀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었다.

“갑질” 논란은 BJ의 지위에 따라 갑을관계가 행사되는 듯한 양상을 일컫는다. 상대적으로 위계가 인식되는 관계에서 상위 등급의 행동이 하위 등급 BJ에 대한 “갑질”로 인식되면 욕먹는다. 한편, BJ의 시청자수-권력은 항상 믿고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고정 시청자수/팬덤이라고 여겨지는 숫자에는 항상 ‘유동층’이 있기 때문이다. 팬과 팬덤의 분별은 항상 유동의 존재로써 미끄러진다.

#### BJ 메달

랭킹 외에 아프리카TV 회사에서 제도화한 또 다른 BJ 등급으로는 메달이 있다. 메달은 회사와 모종의 계약 관계를 맺은 ‘소수’ BJ에게만 부여된다. 주로 공개모집을 통해 회사가 BJ로부터 메달 신청을 받고, 선정된 BJ는 해당 메달에 요구되는 일정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메달을 유지, 회사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J 메달의 종류와 조건, 혜택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6] 아프리카TV BJ 방송국 화면의 메달 예시와 BJ 메달 규정



	방송리스트 상단	메달	시청인원	화질	특전	유지 기준
파트너BJ	전체	○	1000명	4000K	베스트BJ 혜택	1달 15일

					+ 아프리카TV 광고 수익 쉐어 퀵뷰, 스티커, 초콜릿(매월) 동영상 업로드 최대 2GB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생방송 핫이슈/이슈 배너 지원 유튜브 MCN 혜택(선택) 공식 방송 및 광고 방송 출연/섭외 우대 파트너BJ 정기 모임	40시간 이상 방송
베스트BJ	전체	○	500명	3000K	70원 환전 개인방송국 스킨(그린) BJ 전용 밴 지원 베스트BJ 게시판 이용 베스트BJ 인증 기념품 생일 축하 프로그램	1달 5일 15시간 이상 방송
모바일BJ	모바일 카테고리	○	400명	-	퀵뷰 30일권 (매월)	1달 7시간 이상 방송
모바일게임BJ	모바일게임 카테고리	○	400명	3000K	-	1달 10시간 이상 방송
스포츠BJ	스포츠 카테고리	○	500명	3000K	프리미엄 화질 7일권 2장 (매월 지급)	1달 5일 15시간 이상 방송
프로게이머BJ	-	○	-	-	시청인원(+100/+500)(6개월) 퀵뷰 선물권 30장 지급(6개월) 프로게이머 전용 페이지 노출 프리미엄 화질 아이템 지급(6개월) 매니저 추가(6개월) 파트너BJ 우선 심사 자격 부여	1달 15시간 이상 방송
방송대상BJ	-	○	-	-	퀵뷰 아이템 상금/트로피(상장) 다음 해 시상식 초청 (대상 BJ: 1,000명/3000K)	-
투데이BJ	-	-	-	-	1일간 아프리카TV 메인 소개	-
창업BJ	전체	-	500명	3000K	클라우드 펀딩 지원 (생방송 + VOD 동시 지원)	펀딩 기간 동안 자격 유지

표에 명시된 것 외에도 메달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메달을 부여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① BJ의 인기도 등 방송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파트너BJ, 베스트BJ 등); ② 전문화된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것(프로게이머, 스포츠, 교육 등); ③ 주요 방송 송출 기기에 따른 것(모바일). 이중 현지인 사이에서 시청자수 및 별풍선과 관련해 가장 예민하고 빈번하게 회자되는 메달은 파트너BJ와 베스트BJ이다.

파트너/베스트BJ 메달은 해당 BJ의 고정 시청층과 별풍선 규모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회사는 그 분명한 기준을 밝히지 않지만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메달의 효력은 시청자, 별풍선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고, 메달의 효력이 BJ의 시청자-권력, 풍력을 제거하거나 비껴간다. 파트너BJ인데 “하꼬”인 경우, 베스트BJ인데 “메이저”인 경우 등이 허다하다. 시청자의 구분법은 파트너, 베스트 BJ의 등급화와 엇갈리거나 그를 무시한다.

파트너BJ는 아프리카TV에서 BJ가 달성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여겨진다. 위세, 권력의 문제와 관련해 메달은 아프리카TV 운영자와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화한다. 예컨대 종종 아프리카TV 메인 화면 상단에 방송이 노출되는 홍보 지원을 받고, 회사가 기획하거나 지원하는 “공식방송”의 진행을 맡는 모습을 부러워한다. 운영자가 먼저 일반 BJ한테 연락해오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는 언행으로 사이트에 접수된 신고가 많거나, BJ가 탁월한 인기도나 별풍선 수입을 보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BJ에게 첫 번째 방법은 애당초 그렇게 하기 싫든지 위험부담이 크고, 두 번째는 혼자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BJ들이 방송의 흥행 전략으로 함께 단기적인 팀을 이루는 “크루”를 모집할 때에도 “재는 파트너BJ라 운영자랑 친하다”는 정황이 선출 명분으로 거론된다. 이는 아프리카TV의 “갑질 논란”의 논리를 차용한다. 현지인은 비슷한 행태에 대해 BJ 등급에 따라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여부나 수위가 다를 때 “우털식,” “갑질” 등으로 지탄하며 BJ의 메달 등급을 운영자와의 관계와 맞물린 ‘권력 작용’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정리하자면, 아프리카TV에는 위계적 권력화가 제도적으로 자리잡혀 있다. 그러나 현지인의 활동으로써 그 권력의 안착에 제동이 걸리며 아프리카TV에서는 반권력이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다.

## 2) 시청자 내 수직적 분화

당시 방에서는 ‘큰손’ 시청자가 별풍선을 주고 BJ한테 굴욕적인 ‘미션’을 시키는 만일의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간의 별풍선 기여도가 꽤 높은 ‘시금치’ 시청자 한 명이 ‘자신이 지금 열혈팬이 될 테니 그런 미션을 한 번 해보자’며 BJ를 도발한 것이었다. BJ는 ‘그런 미션은 안 하고 별풍선도 안 받겠다’며 자존심을 세웠다. 그 실랑이를 보며 BJ의 편을 드는 채팅이 다소간 올라오자 또다른 ‘시

금치' 시청자가 읊조렸다. “아프리카(TV)가 세상에서 제일 빈부격차 심하다.” 그의 말에선 모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묻어난 듯 보였다.

BJ 등급과 달리 아프리카TV에서 제도화한 시청자 등급은 오로지 별풍선 개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II장에서 간략히 살펴봤듯 시청자의 등급은 채팅 글자색으로 포착된다. 해당 BJ에게 선물한 별풍선 누적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열혈” 등급은 분홍색, “시금치”는 연두색, “건빵”은 흰색 채팅이 쳐진다. 특히 “열혈”에 들면 BJ가 확실하게 나를 기억해주고 쉽게 내 채팅을 무시하지 못한다. 즉,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가 높은 등급에 오르(는 효과를 누리)려면 돈을 많이 써야하는 구조이다. “빈부격차”라는 말마따나 별풍선 썸썸이로 판명되는 시청자의 부와 위세가 비례하는 모양새다. 아프리카TV 시청자, 특히 열혈팬은 자신이 BJ의 ‘돈주머니’마냥 취급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해하지만, 동시에 BJ에게 준 금전적 기여도에 준해 자신의 위세 행사를 정당화한다.

#### [사례Ⅲ-15] “BJ는 열혈과 단절을 지을 수 없다”

방송에서 BJ가 열혈팬의 채팅에 더 많이 화답하는 경향은 언뜻 봐서도 관찰된다. BJ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열혈팬 관리”를 한다. 방에서 매니저 자리를 준다거나, BJ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식이다.

“이게 회장(열혈팬 1위)부터, 열혈팬이 있다 보니까 그 서열에 대해서.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20등 이하로는 시금치, 일반팬 이러잖아요. 열혈부터 회장까지는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대우도 다르고, 시청자가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하니까 [...] BJ는 어쨌든 저하고는 단절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최대 후원자이기 때문에.”

“열혈컷”은 별풍선 누적 선물 개수가 많은 상위 20인에 들게 되는 하한선(별풍선 개수/액수)을 의미한다. BJ 방마다 열혈컷은 다르며 BJ는 시청자의 경쟁 심리를 자극, 존속시키고자 열혈컷이 얼마인지 잘 공개하지 않는다. 인기가 높지 않은 BJ라고 해도 열혈컷의 금액은 상당할 수 있는데, 특히 시청자수가 적고 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BJ의 별풍선 수입은 의외로 아주 쏠쏠하다. 일단 열혈팬 자리에 오르기 쉬운 만큼 경쟁이 불 붙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에서 ‘소통’의 재미—자신의 말 증여 성사—를 중시하는 이들은 작은 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열혈컷이 낮은 방에서 별풍선 위세 경쟁이 불붙는 것은

그만큼 내 위세를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과 맞물린다. 이미 그 위세가 확장되어있는 큰 방의 ‘네임드’도 작은 방을 “발굴”하러 다니기도 한다. “내가 이 BJ를 키운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열혈팬의 ‘관대한 소비’는 BJ 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 군중에 대해서도 행사된다. 의무는 아니지만 열혈팬은 시청자에게 “퀵뷰” 아이템을 뿌리곤 하며 인기 관리를 한다. 민심이 좋은 열혈팬은 BJ에게도 도움이 된다.

### **“열혈팬이라고 다 같은 열혈팬이 아니다”**

아프리카TV에서는 모두가 ‘건빵,’ ‘시금치’ 출신이다. A방 ‘열혈’인 나도 다른 방에 가면 ‘건빵’이나 ‘시금치’이다. 그러나 이 흰색, 초록색의 글자는 내 유명함과 나의 재력(잠재된 별풍선-권력)을 온전히 숨겨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열혈팬의 유명세는 그가 열혈팬으로 있는 방 밖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BJ는 다른 BJ의 열혈팬 닉네임을 알아보고 기억해둔다. BJ 대세남은 “다른 방 열혈팬 닉네임이랑 아이디를 포스트잇에 써 모니터에 붙여 놔다”고 한다. 그는 “닉네임은 바뀔 수도 있으니 아이디까지 외웠다”고도 덧붙였다. 만약 다른 방 열혈팬이 자신의 방송에 들어올 경우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미리 대비해두는 노력이다.

비슷한 이야기는 여러 방에서 열혈팬 지위를 달고 있는 ‘큰손’ 시청자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방 열혈팬임을 인지하고 있던 BJ에게 별풍선을 준 적이 있는 당사자였다.

### **[사례Ⅲ-16] 방 경계를 넘어선 ‘메이저방 큰손’의 유명세**

“아무래도 ‘혹시 거기 그 큰손 아니예요?’ 이러면 왠지 싸야 돼요. 왠지 싸야 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약간 [...] (BJ들이) 비로그인으로 이방 저방 자주 가요. 그래서 많이 쏜다 싶은 사람 닉네임을 기억해놔요. 그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오면 모르는 척 하면서 엄청 관심을 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 제가 뭐 A방에서 큰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쪽지가 날아와요. 쪽지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는 BJ 누구누구 매니저입니다. 이번에 (저희 BJ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보여줄 것이 많으니까 저희 방 와서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쪽지를 그렇게 날리고 홍보를 하는데...”

하지만 열혈팬이라고 해서 다 유명한 것은 아니다. 다른 현지인에 의해 자신의 이동이 잘 발각되지 않는 열혈팬도 있다. 그런 차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방에서 열

열팬인지, 한 명/소수의 BJ 방에서만 열혈팬이라면 그 BJ 방의 평소 ‘풍력’은 어떤 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열혈을 달고 있는 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을 넘나들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고, 각 방의 열혈컷을 넘길 만큼의 별풍선을 증여했다는 점에서 내 재력을 방증한다. 한편 메이저방의 열혈 출신은 그 방의 높은 열혈컷을 뚫었다는 점에서 내 재력이 증명되고 BJ의 인기도와 맞물려 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도 많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BJ거나 하꼬 BJ방인 경우 메이저 BJ 방에 비해 열혈컷이 확연히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메이저 방에서 큰손인 시청자의 방송국 누적 방문수는 수천~수만 명으로 웬만한 BJ의 방송국 방문수를 뺀치며, 그의 방송국에 찾아온 이들의 친교성 게시글이 남겨져 있기도 한다.

반면, 기존에 ‘큰손’ 인지도가 없는 채 이른바 ‘하꼬’ 방에서 열혈을 달고 위세부리는 열혈팬에 대해서는 반감과 비아냥거림이 관찰된다. 소수의 ‘작은 방’에서 열혈 등급에 올라있는 시청자 본인이 ‘큰손’으로 알려지기를 경계하기도 한다. 시청자 ‘코댕’은 “나는 큰손이 아니고 좋아하는 BJ한테만 별풍선을 준” 것뿐인데 큰손이라고 알려지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난처하다고 토로한다. 열혈팬으로서의 유명세는 별풍선 수익을 노리는 못 BJ의 사냥감으로 노출되는 위험 가능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Ⅲ-16]에서 막시무스의 말마따나, 내가 열혈팬 출신임이 인지돼 “짜야 되는 분위기”가 생겼을 때 별풍선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체면을 잃게 된다.

### 별풍선이 아닌 전략

아프리카TV에서는 수직적 분화가 계급적 차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제동이 걸린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지금은 별풍선-권력을 대체, 압도할 수 있는 시청자의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에서 BJ가 허공의 메아리에 그칠 수 있는 내 채팅을 증여물로 번역하는 의무통과점이라는 사실은 논의를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많은 돈을 별풍선 결제에 소비할 의사나 여력이 없는 시금치 시청자에게 별풍선은 값싼 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정 개수의 별풍선은 그 이미지 자체가 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별풍선 4개는 ‘사랑해’라는 의미로, 18개는 ‘씨발’이라는 욕설로 통용된다. 일차적으로는 방송의 현 상황에 대한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민심’으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별풍선 18개’-말증여가 개시 선물로 작용해 ‘별풍선 18개’ 흐름을 타면 이는 현재 시청자 군중의 반발, 반란이다. 같은 논리로 ‘별풍선 4개’의 흐름은 BJ를 지지, 응원한다는 민심을 의

미한다.

[그림 Ⅲ-7] ‘별풍선 4개’와 ‘18개’ 증여 현장



- 좌: 당시 BJ는 이른바 ‘월초 수금’으로 다섯자리 수의 별풍선을 받았다. 즉시 BJ는 ‘큰손’ 시청자의 채팅(리액션 요구)을 듣고자 그에게 매니저 자리를 주고 채팅방을 열었다. 채팅을 칠 수 없게 된 다른 ‘시금치’ 시청자들에 의해 ‘4랑해’를 표시하는 별풍선 4개 증여가 쏟아지고 있다.
- 우: BJ의 ‘중계방’에서 ‘시금치’ 등급인 시청자(주황색 가림 표시)가 별풍선 18개 증여했다. 화면에 별풍선 18개 그림이 크게 등장함으로써 별풍선을 통한 시청자채팅이 성사되고 있다.

### [사례 Ⅲ-17] “전자여성”을 통한 별풍선과 시청자채팅

BJ가 “전자여성” 유틸리티를 활용해 ‘진실게임’ 같은 콘텐츠를 진행 중이었다. 별풍선을 50개 선물하면, 선물 직후 일정 초수 내 증여자가 처음 친 채팅을 기계 음성이 자동으로 읽어주는 것이다.

아래의 화면 좌측 상단의 주황색은 방금 직전의 증여자 이름이다. 그는 별풍선 50개를 선물하고 “나는 솔직히 (지금의 콘텐츠를) 계속 할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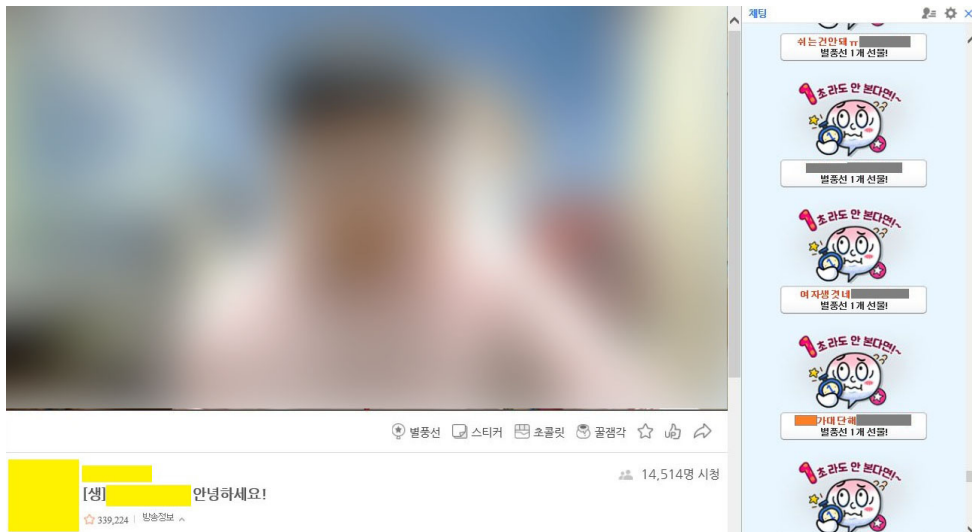
수금 때문에 단가를 (50개로) 올렸다 (맞으면) 예스 일베면 노”라는 채팅을 쳤다. 그의 이름과 말은 BJ의 영상화면 부분에 가시화하고 기계 음성을 통해 읽혔다.



채팅방에 보이는 “ㅋㅋㅋㅋ”...등의 채팅은 방 안의 사람들이 조금 전 ‘전자여성(을 매개로한 증여자 채팅)’의 발화를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다. 파란색 가림표시 부분은, 현재 시점에 50개를 선물한 다른 ‘시금치’ 등급 증여자의 이름이다. 그의 “나는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면 ○○보쌈해서 도망칠 꺼다”라는 채팅은 조금 뒤 전자여성에 의해 읽혔다.

이런 때에 BJ의 리액션은 딱히 요구되지 않으며 오히려 BJ가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이상하게 여겨지곤 한다. 시청자 군중이 별풍선 증여자를 딱히 추대하지도 않는다. ‘큰손’ 시청자의 대규모 별풍선 증여가 BJ의 리액션으로써 여타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원리라면, 시금치가 주는 자잘한 별풍선(“잘풍”)은 화면에 크게 부각되는 별풍선 그림으로 자신의 시청자채팅을 즉시에 성사시킴으로써 방 안 사람들에게 직접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또한 시금치 시청자가 주는 “잘풍”은 단발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열혈팬의 명성과 결과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점을 익히 인지하고 있는 시금치 시청자는 내 이름에 축적되는 명성에 관해서는 무심하다. 이들의 관심은, 나에게 돌아올 위세가 아닌 위세 경쟁 그 자체에 있다. 일일 회수 제한 없이 닉네임 변경이 가능했던 시기, 순간의 의사표현과 관심 끌기를 위해 시금치 시청자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기꺼이 포기하기까지 했다.



### [사례Ⅲ-18] 별풍선-말 증여: 닉네임 변경 후 별풍선 1개 주기

BJ는 방송을 얼마간 쉬고 싶다고 시청자에게 토로하는 중이었다. 당시 채팅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자 채팅방을 잠시 열린 상태였다. 이에 말이 가로막힌 시청자는 닉네임을 변경하고 별풍선을 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 “쉬는 건 안 돼요”, “여자 생겼네”, “(주황색 가림표시: 경쟁상대인 다른 BJ의 이름을 언급하며)ㅇㅇ가 대단해” 등의 내용이 보인다.

그림의 노란색 가림표시는 BJ의 이름 정보, 회색 가림표시는 시청자의 아이디이다. 닉네임과 달리 아이디는 계정을 삭제하고 재가입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영어,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디는 현지에서 보통 부차적인 이름값만 지닌다. 그림에서 예외적으로 두 번째에 보이는 별풍선에 전체 회색 가림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해당 증여자의 닉네임이 당시의 대화 내용과 무관해 연구자가 가린 것이다.

‘건빵’ 시청자채팅 중에 BJ를 놀리거나 위협하는 “어그로”가 유난히 많은 이유도 상기한 논의들과 결을 같이 한다. 별풍선을 1개(별풍선 구매 금액 110원)도 선물할 여지나 의사가 없는 건빵이 지닌 유일한 증여물이자 경쟁의 무기는 말뿐이다. (‘안티’ 건빵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건빵의 ‘어그로성’ 채팅의 목적은 무일푼으로 자신에게로 관심을 쟁탈하는 것이다. 이들은 ‘강퇴’나 ‘블랙’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관심 끌기에 성공했을 때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 [사례Ⅲ-19] ‘건빵’ 시청자의 “악플” 채팅을 통해 유명해지기 전략

“(특히 작은 방에서는) 채팅 많이 치면 네임드 돼요. 특정 닉네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는 자꾸 (BJ를) 비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름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악플을 달아요.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잖아요. 재는 왜 저러지? 다른 마이너 방송들에서 (일관되게) 다 악플을 달면 네임드가 돼요. 재 또 왔네 하면서 [...] 나를 알아보면 기분이 좋죠. (과거에는) 아무리 강퇴(강제퇴장) 당해도 규제가 없었어요. 다른 방 강퇴 당하면 또 다른 방 가서 강퇴 당하고 또 다른 방 가서 또 하고. (웃음)”

용기 있는 시청자는 ‘네임드’가 될 수 있다. 얼평(얼굴평가), 방송 게스트 출연, 전데(전화데이트) 등 마치 BJ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별풍선-민심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 별풍선-권력을 대체하려면 시청자도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전화데이트”에서 시청자는 자신의 음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제일 익명적인 시청자채팅을 성사한다. 그 과정은 동등한 조건에서 통화량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공정한’ 경쟁이다. 이로써 별풍선-권력이 ‘없는’ 건빵, 시금치 시청자는 일시적으로나마 BJ의 의지와 경쟁하거나 그를 압도하고 소수 열혈팬의 위세를 낚아챈다.

### 매니저라는 “완장”

“매니저”는 별풍선 선물 규모라는 기준을 또 다르게 비껴가는 지위이다. 기본적으로 BJ는 총 15명의 닉네임에게 매니저 권한을 줄 수 있는데, ‘고정 매니저’와 ‘임시 매니저’ 자리가 나뉜다. 임시 매니저 자리에 있는 시청자는 매니저 자리를 부여 받은 당일 그 방에 접속해있는 동안에만 매니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가 방에서 나가면 매니저 직위는 해제된다. 한편 고정 매니저의 권한은 그의 방 입·출입 여부와 상관없이 BJ가 매니저를 “해임”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 매니저는 BJ만 알 수 있는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BJ만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을 위임받는다. 주역할은 생방송 중 채팅을 관리하는 것이다: 채팅금지, 블랙, 강퇴, 팬채팅 전환, 채팅 얼리기/녹이기 등.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현지인은 매니저에 대해 “완장을 찬다/뗀다”고 말한다.

왜, 어떻게 해서 시청자는 매니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 한 방의 매니저는 그 방의 열혈팬(출신)인 경향이 있지만, BJ에게 별풍선을 많이 선물하지 않고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수시로, 장시간 진행되는 생방송을 지키는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송에 자주 놀러와 활발히 채팅을 치는 사람, “(긍정적 의미로) 좀 오지랖이 있

는” 시청자에게 BJ가 “매니저 완장을 채워주고 내 사람으로” 붙잡아 두기도 한다. 일반 시청자에 비해 매니저는 따르는 책무가 큰 만큼, BJ와 관계에서 독보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성을 지닌다. 대부분의 경우 매번 방송에 자리를 지키는 매니저에게 BJ가 따로 금전적인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는다.<sup>40)</sup>

### [사례Ⅲ-20] “[생] 소통의 신 마이아 고정 매니저 구합니다 열정페이”

BJ마이아가 생방송에서 새로운 고정매니저 자원을 받고 있었다. BJ가 밝힌 고정매니저의 조건은 자신의 고정 방송 시간대에 “3시간 이상 매일” 방송을 볼 수 있고 닉네임에 “[마이아] 팬닉”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 안에 있던 ‘시금치’ 등급의 시청자 ‘[마이아]×머리존예’가 고정매니저를 하겠다고 나섰다. BJ는 빠르게 흘러가는 채팅에 묻혀 머리존예의 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열혈팬과 BJ 팬닉을 달고 있는 시청자들은 BJ가 인식할 때까지 머리존예의 자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다음은 매니저 선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시의 시청자채팅을 간추려 제시한 내용이다:

[마이아]땅구: 머리존예님 매니저 희망한다는데

[마이아]×머리존예: 저 까였어요.

부빠부빠: 저 낮에 3시간 접속하면 매니저 주세요.

[마이아]지방시: (BJ가) 존예님 아직 언급 안함~~

(드디어 머리존예의 의사를 알아 찬 BJ가 묻는다.)

BJ마이아: 낮에 접속 가능해요?

[마이아]×머리존예: 5천명 방 매니저해봄

[마이아]구슬: 헐 5천명방

[마이아]땅구: 존예님 (방에서) 자주봄

[마이아]지방시: 출석을 좋으시던데

[마이아]구슬: 존예님 여성분에 출석 오진다

돌연변이: 마이아형 10시간 접속 가능한데 구매주세요. [...]

채팅에서는 매니저 자리를 희망하는 여러 시청자가 종종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존예가 ‘큰 방’ 매니저 일을 봤던 경력이 있고, 평소 마이아의 방에 자주 나타나 열혈팬들에게 이름이 낯익다는 점이 머리

40) 주로 ‘메이저 BJ’의 경우 BJ가 월급을 주고 매니저를 고용하기도 한다. 그는 방송 전후로 BJ의 업무를 보조한다. 예를 들어 야외방송 시 BJ 대신 운전을 해준다거나 콘텐츠 진행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를 받는 ‘매니저’는 방 안에서만 매니저 직위를 받는 매니저와 다르다.

존예의 말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결국 BJ는 [마이야]×머리존예를 새로운 고정매니저로 임명했다. 방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선언하며, 기존부터 있는 다른 고정매니저들에게 “이번달 동기 관리 잘 해”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방에서는 머리존예의 매니저 자리 등극을 축하한다는 채팅과 함께 축하의 의미를 담은 별풍선이 연달아 터졌다.

특히 ‘매니저 채팅’ 열혈팬이 아닌 매니저 시청자는 흡사 ‘무임노동’처럼 보이는 헌신적 활동으로써 ‘별풍선-권력’을 가로지른다. 채팅에서 매니저의 존재가 돋보이기로는 열혈팬 못지않다. 매니저 채팅은 PC화면에서는 매니저 마크가 닉네임 옆에 붙고, 스마트폰에서는 보라색(현재 청록색으로 바뀜)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또 채팅방 관리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매니저는 BJ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방송 외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생방송 중에는 BJ와 매니저 등급의 시청자만 접근 가능한 매니저 채팅방이 따로 있다. 모두가 같이 있는 방에서도 예컨대, 채팅 물타기가 일어나면 BJ는 매니저더러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하며 매니저의 채팅을 보고 판단하곤 한다. “팬심이 없으면 매니저 일 못 한다”는 말마따나 BJ는 매니저 시청자를 자신의 꾸준한 버팀목이 되는 팬으로 여기며 각별한 심임을 보이는 것이다. 매니저는 BJ와의 닫힌 고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로써 BJ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성과 신뢰를 받는 특권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다.

### [사례Ⅲ-21] 고정매니저 ‘희망퇴직 신청’ 모집 공지

- 제목: 고매 희망퇴직 신청 받습니다
- 작성자: 허기 (핫몬의 방에서 오랜 기간 신망받고 있는 고정매니저이다.)
- 내용: 아시다시피 본방 매니저는 15자리가 항상 FULL이라서 핫몬이 단발성 매니저 올리기 하려면 몇 명을 짜르고 올리고를 반복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관계로 핫몬은 저에게 고매 정리를 명하였으나 일개 시청자 중 한명이나 마찬가지로인 제가 어찌 갖가지 사연으로 올라온 분들의 고매 자리를 제 맘대로 칼같이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내린 결론은 먼저 고매에 계신 분들 중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것입니다.

**어그로가 끌리기 싫으신 분, 채팅을 자유롭게 치고 싶으신 분, 고매 자리가 부담스러우신 분 등등.** (고매 자리에 있으면 방에 입장할 때마다 입장 사실이 채팅방에 운영자 공지글 형태로 등장한다) **이유불문 고매에서 내려**

와서 두번째 자유의 삶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게시물의 댓글, 저한테 쪽지, 아니면 그냥 핫몬한테 쪽지 등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바랍니다. [...]

\*\* 희망퇴직자가 얼마 없을 경우 다른 분들과 협의 후 핫몬 고매 매관매직 이벤트 당첨자 위주(1만개 이하의 별풍)<sup>41)</sup>로 본방 채팅창 관리를 잘 하지 않거나 매니저 자리가 필요 없어 보이는 분들 위주로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권력이 안정적인 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BJ와의 차별화된 친분과 성실한 채팅관리 수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매니저의 자리에 있으려면 그는 자신의 채팅 활동이 제약 받거나 위협받을 가능성—“채팅을 자유롭게” 칠 수 없고 “고매 자리가 부담스러운” 제약과 “어그로가 끌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시청자 군중의 관여와 맞물려 매니저는 자신의 자유와 안전을 담보로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위계화된 제도를 장착한 아프리카TV에서 권력은 언제나 출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반권력이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 3. “괴물”의 탄생

#### 1) 비하적 명명의 함의

잠시 논의를 정리해보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방송을 진행하는 한 명의 BJ가 있다. 각 방에는 BJ에게 별풍선 선물로써 큰 비중의 금전적 수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20인의 열혈팬 시청자가 있고, BJ의 방송 진행이 원활하도록 돕는 매니저 시청자가 있다. 시금치와 건빵 시청자는 주로 채팅의 시청자채팅으로써 방송에 참여한다. 참여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생방송이 구성되는 특성 상 인터넷 개인방송의 진행자는 사실 BJ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방 안의 다수이다. 아프리카TV에 제도화되어있는 권력—사이버스페이스에서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남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발언권이다—의 자리를 참여자는 각자의 전술로써 쟁취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항상적으로 경쟁/착취하는 상태로 인해 어떠한 위계적 논리는 이곳에

---

41) 해당 괄호 안 내용은 원글의 설명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코 안착될 수 없다. 또한 위계의 논리를 구성하는 다층적인 선들의 얽힘 속에서 권력은 새롭게 재생성되고 거듭 전복된다. 이러한 행위들이 메타커뮤니케이션하는 이중구속의 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아프리카TV에서는 누군가가 관심을 독점할 수 없다.  
나는 관심 받고 싶다.

문제는 어느 한 쪽만이 진실이 될 수 없는 역설 사이에서 행위는 어찌됐든 발생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현지에서 스스로(의 사회)를 비하하는 자기부정의 언표는 그 스스로가 어떤 경계 위에 서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별풍선 교환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자냥괴)”은 흡사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BJ의 언행을 일컫는다. 주로 BJ가 자신에게 자기학대적으로 귀결돼 보이는 ‘성실한’ 리액션이나 ‘기발한’ 콘텐츠를 수행하는 경우에 따라붙는다. 예를 들어 BJ가 별풍선 증여자의 이름을 유성펜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몸에 기입하거나 BJ이 본인이 종종 대놓고 민망하는 애교 섞인 몸짓과 노출을 자행할 때, 별풍선 증여를 유도하는 행위로서 초를 재고 맵고 뜨거운 컵라면 10개 빨리 먹기 내기를 벌이는 ‘푸파(foodfight의 줄임말)’ 콘텐츠를 할 때 ‘자냥괴’를 말하며 즐거워하는 채팅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BJ에 대한 조롱과 찬사가 겹쳐있다(김수진 2017: 95-97).

한편, 이러한 행동을 두고 BJ가 스스로를 이른바 서비스의 형태로 상품화하여(잠재적) 증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에서 “괴물”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가장 극적인 형태를 지시한다. 허나 ‘자냥괴’의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괴물이 태동하는 모체로만 볼 수 있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작동에서는 이른바 서비스의 형태로서 BJ의 상품화와 그 상품화한 것이 시청자에게 선물되는 굴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논의에서 선물과 상품의 대조는 각각을 가치를 생성하는 서로 다른 체계의 기호(icon)로 접근하는 썩(Tsing 2013)의 분석을 빌려온 것이다. "만일 상품경제에서 사물(things)과 인간(persons)이 사물들의 사회적 형태를 취한다면, 선물경제에서 사물들과 사람은 사람의 사회적 형태를 취한다(Gregory 1982: 41, Strathern 1988: 134, ibid: 22 재인용)." 그녀가 다루는 민족지적 사례인 송이버섯의 경우, 이 자본주의적 상품(버섯)은 비-자본주의적 거래로부터의 전환을 통해 가치를 획득한다(ibid.: 21). 미국 오레곤의 자연에서 채집된 생물인 버섯은 → 사유물로 번역되어야 하고 → 여러 단계의 골라내기 작업을 거쳐 → 결과적으로 분리가능

한(alienable) 상품으로 전환, 수출되어 → 일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린 후 → 그것을 산 소비자가 다른 이에게 선물 용도로 증여된다. 쥘은 일련의 경로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전환을 발생시키는 번역자로서 ‘평가(scale)’가 있다고 분석한다.

아프리카TV에서 괴물의 칭호가 BJ에게만 붙는 양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방장인 BJ가 말과 별풍선을 증여물로 포착하는 의무통과점(칼롱 2010)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나아가 이 “괴물”은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영역의 경계를 가르고 그 양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영역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을 표상한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은 현지의 관점에서 “체계의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해주는 키메라(Gershon 2005: 106)”이다. 오히려 아프리카TV에서 “극혐(극도로 혐오스러움)”으로 불리는 대상은 ‘자넌괴’가 아닌데, 현지인은 괴물적인 실천보다 친목(“쫓목”), 극성맞은 팬/팬덤, 아프리카TV 운영자의 영향력을 격렬히 거부한다. 약간의 사변을 덧붙여볼 때 현지에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괴물’은 국가(적인 것)의 출현일 것이다.

## 2) 오명 찢어내기

아프리카TV 현지인이 스스로를 일컫는 비하적 명칭에는 기본적으로 자조와 명예가 겹쳐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지에서는 BJ뿐 아니라 유명한 시청자에 대해서도 비하적 명칭이 따라 붙는다. 아무리 방송-채팅의 구체적 양상에서 위세의 전복이 반복되더라도 일단 유명해진 자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명성은 그 이름의 소유주로부터 완전한 분리는 아닌 분리된 것으로서 돌아다니기 때문이다(Munn 1986 참조). “네임드” 시청자가 유명해지기까지에는 인터넷방송 활동에 투입해온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현지에서는 BJ에게 부착되는 괴물의 명명처럼 이러한 시청자를 비하적으로 기리며 “엠생”, “진성 인방충” 등으로 호명하곤 한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 오명으로 낙인찍힌다면 이는 이름에 붙은 가치에 다른 굴절이 발생한 것이다. 욕을 먹는 시청자는 그가 아무리 위세 높은 여러 방의 열혈팬일지언정 얼굴을 들기 힘들다. 어느 날 갑자기 흥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주인공이 사회적인 관계맺음을 번번이 좌절당하는 카프카의 소설<sup>42)</sup>에나 나올법한 초현실적인 이

---

42)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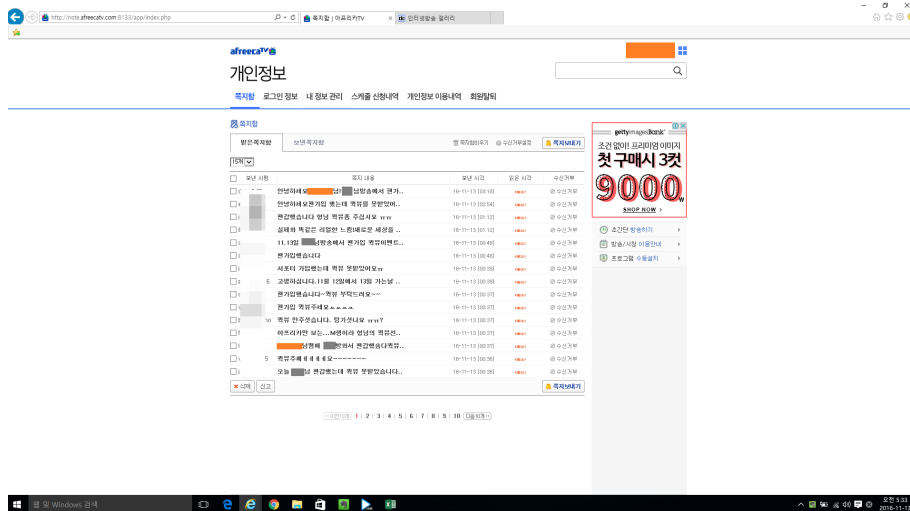
야기가 아프리카TV에서는 현실인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TV에서 이름의 출현 저지나 삭제는 곧 그의 죽음이다.

**[사례Ⅲ-22] BJ의 열혈팬 20인 목록에서 이름을 삭제당한 열혈팬**

BJ와 그의 한 열혈팬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는 인방갤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BJ는 해당 열혈팬이 자신의 방에 앞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블랙’ 조치를 했고, 아프리카TV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방송국 메인화면에 뜨는 열혈팬 20인 목록에서 그 열혈팬의 이름을 삭제했다.

**[사례Ⅲ-23] 자숙에 들어간 유명한 시청자 ‘준성’의 인방갤 게시글**

준성은 여러 큰방 BJ의 열혈팬으로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시청자이다. 당시 준성은 자신의 본진인 여성 BJ와 자신이 열혈팬으로 있는 다른 인기 남성 BJ 간 합방을 공모했었다. 여성 BJ와 남성 BJ의 합방에서 펼쳐진 로맨스적 관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두 BJ의 연애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이와 동시에 각 BJ 팬덤 간 싸움과 이간질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묻는 화살이 준성에게 쏠렸다. 그 유명세로 인해 그가 어느 방에서 등장하면 방송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그로”로 작용했고, 방에서 강제퇴장을 당하기 마저 했다. 결국 준성은 당분간 아프리카TV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힘든 지경에 이렸다. 다음은 당시 준성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아래의 캡처 화면과 함께 일련의 사태를 종결시키고자 자숙을 알린 인방갤 게시글이다:



[게시글 제목] 준성입니다.

[조회 26617 댓글 143]

[내용] 일단 존메리(남성BJ와 여성BJ의 이름을 결합해 줄인 말) 그림만 그리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존메리 우결(유사연애인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은 이제 그림이 잘 그려져서 제가 더 뭐 할 역할이 없기에 그리고 괜히 준성 풍으로 이어진 사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해서.. 이제 풍쓰면서 어그로 안 끌고 부캐(준성의 ID가 아닌 다른 계정)로 조용히 방송 즐기려고 합니다.

- 혹시 두 분 방송 상으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만 도움을 드리려는 생각!

오늘은 그림이 잘 그려져서 재밌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bj분들 방송 하시는데 나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모습들이 풍가지고 갑질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팬이었던 bj분 방에서 혼나고 그 방 앞으로 부캐로 가게 됨 ㅜ.ㅜ

제가 돈 가지고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해서 방송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풍쓰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대부분의 방에서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좀 울적해서 인방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도 써보네요.

뭐 여튼 위의 이유들을 떠나서 이번 달 큰그림 그린다고 월 한도정한 15만개를 진작에 훌쩍 넘은 것도 있어서 본캐(준성의 ID)로는 11월에 아프리카 접속 안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벌써 한 6일부터 쉬었어야 되는데

이왕 그림 그린 거 완성은 시키고 싶은 마음에 한도를 어기고 계속 아프리카를 했네요 ㅏ.ㅏ 제가 아프리카 중독(관중병)<sup>43)</sup> 고치는 중이라 사실 이 이유가 제일 큼니다 ㅏ.ㅏ

- 하이트(다른 여러 BJ들이 결성한 크루) 미션 약속을 해놨던 게 있어서, 전부 파토 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걸 진행하게 되면 그때만 접속할 예정!

뭐 마치 아프리카 접는 것 마냥 길게 글을 썼으나 사실상 부캐로 계속 시청을 할 것이고 풍도 월 한도 풀리는 날부터 다시 쓸 거라 쓰고 보니 민망하네요. 오해사고 방에서 쫓겨난 게 울적해서.... 해해

여튼 모든 인방갤러분들 어떤 bj분 팬이시든지 방송 재미나게 보시길~

오명은 그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프리카TV 체계의 경로로부터 이탈되고 배제된 자리를 표시한다. 이는 사회에서 인격을 지닌 자(persons)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론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다시금 환기하자면 인간적인 몸체를 지니지 않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닉네임은 곧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명을 산 시청자에게서는 자신의 오명을 지우려는 적극적인 실천이 나타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닉네임을 바꾸는 수가 있다. 하지만 유명한 시청자일수록 닉네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 아이디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점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에 오명을 산 유명인은 다른 계정의 아이디를 만들어 새로운 출현자로 가장(假裝)을 하거나 기존의 계정을 탈퇴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는 죽은 뒤 환생이 아닌 변신이다. 그러나 내가 '전생'에 쌓아놓은 것들이 유명처럼 존재하기에 자타에 의해 새로운 내가 이전의 나와 동일인이라고 추론, 증명, 확인되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이름의 문제를 둘러싸고 아프리카TV에서는 익명성과 반-익명성 사이의 위반이 거듭되는 것이다.

---

43) 해당 괄호 안 내용은 원글의 설명.

## IV. 반(反)친목-팬덤

별풍선 선물은 아프리카TV 사람들이 친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는 행동이다. 동시에 별풍선 교환의 구체적 과정에서는 투기(鬪技)적 성격이 분출된다. 이러한 현지의 호전성은 채팅과 게시글을 통한 말싸움에서 더욱 격렬하게 드러난다. 아프리카TV에서 말싸움은 예외적인 갈등 상황이라기엔 너무도 만연해 있다. 도대체 싸우면서 지속되는 관계란 무엇일까? 싸워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물론 ‘남의 집 불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는 옛말따마나 갈등 상황은 방송의 재미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싸움이 어떻게 관계의 연속을 낳는지, 그것이 과연 타협과 화해를 거친 평화 상태로 귀결하기 때문인지에 관한 의문은 답해지지 못한다.

이처럼 별풍선 선물과 싸움으로 대비될 수 있는 아프리카TV 내 활동 양상은 공교롭게도 증여와 전쟁에 관한 인류학에서의 오랜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증여론』에서 전쟁은 증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 즉 “결연과 교제를 거부(모스 2002: 74)”함으로써 선언되는 것으로 등장한다. 엄밀히 말해 적대를 가리키고 있는 전쟁은 증여의 투기적 성격과 맞닿는 듯 구별된다.<sup>44)</sup> 모스의 논의로부터 레비-스트로스는 교환과 전쟁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다: “적대적 관계와 호혜적 급부의 제공 사이에는 연결성, 연속성이 있다. 교환은 평화롭게 해결된 전쟁이고, 전쟁은 실패한 거래의 결과(Lévi-Strauss 1969: 67)”이다. 이에 대해 클라스트르(2002; 2005)는 레비-스트로스식의 교환주의적 담론이 무엇보다 전쟁에 열성을 다하는 원시사회의 민족지적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한다.<sup>45)</sup> 평화(성공적인 교환)의 결핍이

44) 『증여론』에서 모스는 ‘경쟁’, ‘투쟁’, ‘파괴’ 등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전쟁’이라는 말은 다음의 문구에서 처음 등장한다: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초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모스 2002: 74).”

한편 『증여론』 이전의 저작에서 그는 포틀레치를 증여를 통한 “재산 전쟁”이라 칭했던 적 있다(박정호 2009: 31). 이 유명한 사례는 증여의 호혜성이 격렬한 투쟁과 갈등으로써 실현되는 역설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는 통찰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순수한 적대가 아니라 명예를 겨냥하는 경쟁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피를 부르는 전쟁의 상징적 해소와 승화를 추구하는 전쟁(Sahlins 1976: 226, *ibid.*: 31 재인용)”이다. 즉, 호의와 적의가 결합된 사물의 순환 체계로 전쟁이 대체된다는 식의 사유에서 사실상 전쟁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45) 클라스트르에 따르면 레비-스트로스식 교환이론의 논리에서 “전쟁은 원시사회의 사회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향한-존재로서 원시사회의 존재의 비(非)실현을 표현(클라스트르 2002: 267)” 한다. 이때 전쟁은 “모든 제도적 차원을 상실”한 채

전쟁인 것이 아니라, 전쟁 또한 교환과 마찬가지로 원시사회의 구조라는 것이다.

아프리카TV를 교환과 전쟁으로 사유한다면, 3장의 별풍선에 관한 분석은 교환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증여자가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함으로써 발언권과 위세를 얻는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한편 연구자는 과거에 이미 한 번 아프리카TV 내 열성적인 말싸움을 클라스트르의 논의를 빌려 이해해보길 시도했던 적 있다(김수진 2017). 당시에 아프리카TV 사람들의 호전성이 반권력의 지향과 맞닿고 있음을 감지했었는데(ibid.: 99-108), 지금의 연구자는 원시사회로부터 온 통찰을 사이버스페이스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보다 세심히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첫째,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TV에서뿐 아니라 인터넷에는 수많은 전사('keyboard warrior')들이 활약하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한 경우 유명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기도 한 전사들에 비하면, 방송의 재미로 승화되는 아프리카TV 현지인 간 말다툼은 적대를 가장한 친교 행위로 보인다. 물론 이곳에서의 전투가 상대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전쟁이 전쟁 아닌 싸움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상대를 위협하는가의 여부보다 전쟁에 임한 자 스스로의 죽음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적어도 아프리카TV에 한해 전투에 임하는 현지인이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자의 죽음은 비록 '피의 죽음'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만도 아니다. 채팅을 치는 시청자 뿐 아니라 방송의 BJ에게도 말싸움은 언제나 누군가—BJ, 매니저, 아프리카TV 운영자, 운영자에게 신고하는 시청자 등—에 의해 자신이 처형당하고 존재가 삭제될 위협을 내포하는 행동이다. "고인(故人)"이 되어 어떤 "방"이나 전체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출현할 수 없게 된 자의 이름은 "-음읍"과 같이 묵음으로 일컬어지거나 아예 언급되기를 삼가진다.

둘째, 그렇다면 왜 전쟁인가? 이들이 전쟁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원시사회에서 원시인에게는 스스로 지켜야할 영토가 있었다. 영토 지키기는 곧 국가의 출현으로부터 사회의 자족성과 전체성을 지키는 의지였다(클라스트르 2002; 2005).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 활동을 증여와 전쟁으로 고찰했던 선행연구에서 디시인사이드는 '우리' 디시인들이 지켜야할 '영토'였다. 다시 말해 디시인들의 전쟁은 그 외부로부터 독립된 디시인사이드라는 장소를 사수함으로써 강력한 '우리'를 주장하

---

“사건적, 우연적, 비본질적 속성에 위치” 지어진다(ibid.: 268).

고 확인하는 일이었다(이길호 2012).

그런데 연구자는 조사 시기 아프리카TV ‘정주(定住)인’의 대규모 탈-아프리카TV “이주”를 목격했고, 과연 이곳 사람들에게 강력한 ‘우리 아프리카TV’라는 것이 요청되는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아프리카TV를 떠난 BJ를 따라 다른 곳으로 우르르 옮겨가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현지인에게 아프리카TV라는 장소보다 현재 BJ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BJ를 따라 움직이는 “시청자”의 또 다른 범주적 명칭은 바로 “팬/팬덤”이다. 이로부터 일차적으로는 아프리카TV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우리-장소’가 BJ “방”이라는 공간과 맞물린 “팬덤”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팬덤’은 바로 연구자가 이번 장에서 다룰 화두이다.<sup>46)</sup> 팬덤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빌리자면 아프리카TV의 팬덤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강준만 2017; 김수정·김수아 2015; 안진·최영 2016; 윤명희 2010; 이응철 2016 등): 아프리카TV의 팬덤은 ① 취향의 공유를 기반으로 출발해 ② BJ라는 스타를 매개로 형성되는 공동체로 ③ 공동체의 작동은 소속 욕구와 인정투쟁에 의존하며 ④ 디지털네트워크 공간에서 집단의 경계는 상황적, 맥락적이고 모호하다. 본 장의 논의는 상기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분석들이 전제하는 관점에 질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선행 연구들은 오늘날 팬덤의 성원권 개념을 해체하는 구성원의 불명확성과 유동성으로부터 전통적인 공동체와 다른 상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선 어떤 취향이나 행동의 공통점에 주목하며 시청자와 팬 사이 범주적 불일치를 봉합시키고 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요소—예컨대 소속감, 귀속의식, 스타를 향한 팬심 등—를 선별해 그로써 약분되는 인구만을 팬덤으로 추출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작 전통적인 공동체 관념에 문제를 제기했던 유동하는 자의 자리를 제거해버리고 있다는 맹점을 지닌다.

유동층은 집단 ‘내부’의 경계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도록 좌절시킨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에서 팬덤은 그 ‘외부’와 마주할 때—즉, 다른 팬덤과 관계할 때—가장 선명하게 집단적 존재를 드러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카TV에서 팬덤은 어떠한 (공동체적) 내부가 아니라 분할을 지칭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

46) 덧붙여 연구자가 검토할 마지막 조건으로 ‘아프리카TV에서의 전쟁이 무엇에 대항하는 싸움인가’가 남아있다: BJ 팬덤이 다른 BJ 팬덤과 열렬히 싸우는 항상적 전쟁 상태는 ‘무엇’에 대항하는 전쟁인가? 혹은, 무엇에 ‘대항’하고 있는가? 그러나 관련한 논의는 본 논문의 5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모종의 ‘국가론’을 고찰하는 문제와 맞닿으며 단지 지금의 논의 전개를 위한 조건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까? 궁극적으로는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집단들의 분화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친목 기반 커뮤니티

### 1) 팬덤: “작은방”의 사례

“작은방”은 평균 실시간 시청자수가 적은 방을 일컫는다. 그 규모에 대해 정확히 합의된 수치는 없지만 현지의 상식에 준하는 한에서 본 절은 시청자수가 대략 10~20명 안팎인 방송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연구자는 ‘작은 방’을 아프리카 TV 생방송의 “태고 유형”(모스 2002; 박정호 2009: 18-22 참고)<sup>47)</sup>으로 접근한다. 궁극적으로는 방마다 이질적인 리듬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생동하는 사회관계의 구조적 원칙—이른바 ‘반친목-팬덤’—을 발굴하고자 한다.

아프리카TV에서 교환은 방의 생산조건이다. 기본적으로 방송이 이어지려면 BJ의 말에 채팅으로 화답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대화가 별풍선 증여로 이어져야 한다. 유독 시청자수가 적은 방에 “가족 구합니다”와 같은 방송제목이 많은 경향은 방의 생존을 위해 친목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이 같은 방송에 들어가면 BJ는 적극적인 말-개시로써 시청자와 친교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IV-1] “가족”을 구하고 있는 작은방 BJ의 방송 제목

47) 모스의 방법론은 사회를 단순/복잡의 유형구별로써 설명하기를 초월한다. 요컨대 증여는 “단순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멍아 형태로 움튼 후 단계적으로 점차 복잡한 유형으로 성장하는 ‘발생론적 사실’이 아니라, 항상 ‘복잡한’ 사회를 전개 지평으로 삼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잡한’ 현상(박정호 2009: 14)”이다.

#### [사례Ⅳ-1] 2017년 7월 중 연구자의 필드노트를 정리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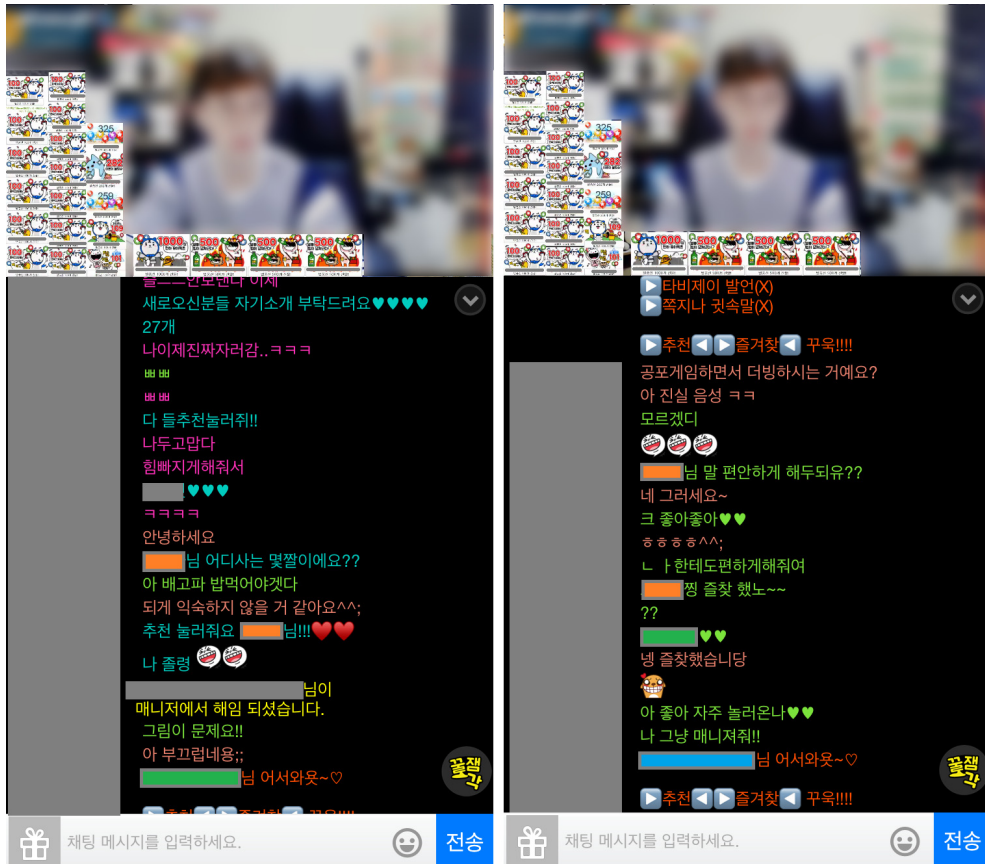
평소처럼 아프리카TV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가보는 BJ의 방송에 들어가 봤다. 당시 실시간 시청자수는 나를 포함해 7명 정도였다. “작은 방”에서 관계 맺기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수천~수만 명인 “큰방”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입장과 동시에 방 안의 관심은 내게 집중되었다. BJ는 내게 몇 차례 자기소개를 부탁해왔고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나는 침묵하거나 곧바로 방을 떠나버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고 무엇보다 BJ가 여러 번 먼저 말을 걸어주니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채팅을 치게 되었다. 며칠 뒤 그 방에 다시 들렀을 때 역시 서로를 아는 체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다. 각 시청자에 대해 밝혀진 사적 정보와 평소 문체 등을 바탕으로 “캐릭터(성격)”가 잡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은 “사장님”, 어떤 사람은 “폰수”였고, 나에게서는 “서울대생”이라는 캐릭터가 생겼다. 이후에도 그 방에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니 사람들은 “이제 우리 방사람 다 됐네”라며 나를 “패밀리원”으로 인정해주었다.

경쟁이 심한 큰 방과 달리 작은 방에서는 시청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BJ가 먼저 그를 호명해주고 말을 건넨다. 이러한 경험은 시청자가 방에 안착하도록 하는 첫 계기로 작용한다. 방의 고정시청자는 BJ와 대화를 나누면서 “(BJ의)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 처음 빠지게” 되었고 “사랑,” “정,” “애증”의 감정으로 자신의 팬심을 설명한다. 이들은 꾸준하고 높은 참석률을 자부하며 “(BJ의) 좋은 꼴 싫은 꼴 다 보면서도 묵묵히 방을 지키는” 신임을 보인다. 별풍선 선물은 팬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팬들에 대한 BJ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것—이는 곧 BJ와 시청자가 조우하는 장소로서 방이라는 공간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일이다—과 채팅에 ‘적절한’ 관심을 배분하기이다. 일단 BJ와 개별 시청자 사이에 관계가 트이고 나면, 개별 시청자와 방 사람들 간 친분은 그가 방의 고정시청자로 자리잡도록 유인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친목질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큰방과 차별화되는) 작은 방의 매력”이다.

한편 사람들은 우리끼리의 친목이 새로운 시청자에게 배타적 경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별풍선 수입과 인지도를 밑천으로 살아가는 BJ에게 시청자 늘리기는 아프리카TV에서 살아남는 문제와 직결된다. BJ는 새로운 “건빵” 시청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줌으로써 채팅의 진입장벽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를 방에 붙잡



아두려 한다. 이는 곧 방 안에 이어지던 대화의 흐름을 끊어놓는 일이지만, 기존의 방 사람들은 이러한 ‘방해’를 기꺼이 감내한다. 나아가 팬들은 친목 활동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BJ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BJ와 함께 신참자를 환대하고 그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림Ⅳ-2] 작은 방에서 새로운 시청자에 대한 환대

작은 방에서는 시청자 대부분이 열혈팬, 매니저, 팬 등급이며 ‘BJ 팬닉’을 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참자의 채팅은 단연 눈에 띄 수밖에 없다. 황토색 글씨가 이 방에 처음 들어온 시청자인 연구자의 채팅이다. BJ뿐 아니라, 채팅의 다른 시청자들 모두 연구자에게 친교성 대화를 건네는 모습이 나타난다.

- 빨간색 채팅: 작은 방에는 종종 로그인 상태의 시청자가 입장하면 곧바로 “○○님 어서와욧~♡ 추천과 즐겨찾기 꾸욱!!!![...]”과 같은 BJ의 채팅이 뜨

도록 자동설정 되어있다. 때문에 방에 들어온 시청자가 먼저 채팅을 치지 않아도 방 사람들에게 그의 등장 사실과 이름이 알려진다.

- 청록색 글씨: 주황색으로 가려진 이름의 새로운 시청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매니저 채팅이다. 어디 사는 몇 살인지 등을 먼저 물으며 대화를 유도하고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 연두색 글씨: 해당 BJ의 고정 시청자들의 채팅이다. 새로운 시청자가 밝힌 나이를 보고 “나한테도 (말을) 편하게 해줘여”, “아 좋아 자주 놀러온나 ♥♥” 등 친교의 말을 건네며 어법을 조율하는 모습이다.

### 반의명적 공간

작은 방에서 사람들은 각자 [호명과 환대→말·별풍선의 반복적인 증여→‘방 사람’으로 자리잡기]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되어간다. 낯선 이방인에게 질문은 건넨다는 것은 그에게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달리 생각하면 이는 방 안에 ‘적’을 들일 위험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방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작은 방에서의 익명성 거부는 이와 관련이 깊다.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정도의 친목관계와 맞물려 작은 방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이름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닉네임을 갈아치울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해줄 안정된 이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다. 반면 뭔가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듯한 태도는 서로를 잘 안다는 믿음에 위반되는 것이다. 웬지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이름이 출현하면 ‘누구의 부캐가 아니냐’는 추론과 자백, 폭로가 왕왕 발생하는 이유이다.

### [사례Ⅳ-2] ‘부캐’ 의혹과 추궁

‘다즐링’은 평균 시청자수가 스무 명 안팎인 ‘BJ대세남’의 열혈팬이자 매니저이다. 매일 같이 대세남의 방송에 출석하며 왕성한 채팅 활동을 펼치는 인물로, 그는 방안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그런 그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며칠 간 방에 나타나길 뜸했다. 이 시기, 대세남의 방에 낯선 닉네임 ‘사탕’이 등장했다.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중 BJ는 불현듯 사탕에게 “다즐링 부캐 아니냐”며 추궁했다. 다즐링이 사는 곳, 그의 습관적인 채팅 문체, 채팅에서 보이는 태도 및 분위기가 사탕이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이유였다. 방 안

의 사람들도 그러한 의혹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사탕은 자신은 다즐링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며 다즐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러한 의심과 추궁은 이튿날 방을 찾은 다즐링한테도 이어졌다. 다즐링 또한 자신은 사탕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결국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합의에 가까워 보이는) 판명이 났다. 사실 그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의혹이 불식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직접적인 물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다즐링의 꾸준하고 활발한 채팅 참여에 있었다.

낮선 이름의 채팅을 작은 방 사람들이 적대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엔 아주 친절한 그들이 ‘이 사람 어그로다’ 싶은 채팅이 보이면 예외적일만큼 단호한 것이다. 이 배제당하는 시청자의 ‘어그로성’은 주로 낮선 닉네임의 건빵 시청자가 맥락없이 BJ에게 시비를 걸거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로 판별된다.<sup>48)</sup> 그런 이에겐 애초에 어떤 질문도 건네지 않으며 무시로 일관한다. 그럼에도 ‘어그로성’ 채팅이 계속되면 직접적인 말로 “나가라”고 내쫓거나 그를 강제퇴장 시킨다. 요컨대 익명성은 방의 평화로운 상태를 위협하는 공격의 의미와 겹치며 적극적으로 격퇴된다.

### 친목의 양면성

아프리카TV에서 소통의 비대칭적 구도는 친목에 참여하는 시청자와 BJ 간 입장 차이를 낳는다. “시청자한테는 BJ랑 자기가 1대1 관계지만 BJ는 1대다(多)를 상대”해야 한다. 방 안의 사교적인 분위기는 시청자가 방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하도록 만드는 토대로 작용하지만 BJ에게는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 다음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작은 방 BJ가 “친목질”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낸 내용이다.

#### [사례Ⅳ-3] BJ가 원하지 않는 친목

“(시청자끼리 사이 틀어지면) 나만 왕따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 둘이 싸웠는데 둘 다 나갔다고. 그럼 나 왕따 되는 거야 (...) 그니까 원래 방송은 BJ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BJ는 냅두고 지네끼리 막 이렇게 ‘밥 먹었냐, 뭐했냐, 어디 봐봤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BJ)가 원래 주목이 가야

48) 그런 면에서 3장의 [사례Ⅲ-8] ‘공주방’의 상황은 일견 예외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주방 역시 “작은방”에 속하는데, 시비조로 말하는 건빵 시청자에게 전면적으로 대응하기가 한시적으로 방송의 컨셉이자 재미로서 흐름을 뒀던 것이다.

되는데, 채팅이 자꾸 자기네들 위주로 나가버리니까 [...] 친목질할 거면 내가 뭐하러 방송을 해. 니가 방 파고 둘이 얘기하면 돼 그럴 거면. 경험한 적 엄청 많죠. 그럼 블랙. 열혈이든 (별풍선을) 많이 쏘는 놈이건 적게 쏘는 놈이건 그냥 블랙. 그렇게 하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BJ는 방송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종종 팬들을 불러 모임을 가질 만큼 친목 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친목’과 위 인터뷰에서 말하는 ‘친목’은 같지 않다. 전자는 BJ가 참여하는 친목이라면 후자는 BJ가 배제된 친교 관계를 지시한다. 사실 방송에서 친목을 필요로 하는 중심에는 BJ가 있다. 만일 아프리카TV가 방을 개설하는 “방장(BJ)”이 따로 없는 인터넷 게시판 공간과 같다면 친목은 집단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방송에 부수적인 것 이상의 효과를 드러낼 때 시청자끼리의 친목은 BJ의 자리를 침범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작은 방에서는 BJ뿐 아니라 팬들도 “쫓목질 하지 말라/말자”고 스스로 제동을 걸며 BJ를 보호하고자 한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의 친목질이 괜찮은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친목을 향한 엇갈린 기대들로 인해 방 안의 친목은 언제나 반목의 가능성을 안을 수밖에 없다.

BJ와 기존의 방 사람들 간 친목의 균열은 작은 방 시청자수가 급증할 때 쉽게 관찰된다. 방 안의 인구와 비례해 채팅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소통은 점차 BJ를 향해 일방향적으로 집중된다. 새로 유입된 시청자채팅의 증가는 우리끼리의 친목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BJ와 기존의 방 사람들은 관심의 분배를 둘러싼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인다. BJ의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고정팬을 위주로 신경 쓰면 “쫓목질이 심한 방”으로 인식되어 유입 인구가 떠나버릴 것이고, 유동층을 붙잡는 데 몰두하면 기존 팬이 서운함을 느끼고 떠날 수 있다. 한편 기존 팬은 BJ 방송의 흥행을 응원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오는 관심이 적어지고 친목질을 자제받는 상황에 다소간 어색함을 느낀다. 기존 팬은 “(방송이 크니까) BJ가 변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유입 인구로 인한 상태적인 박탈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물갈이”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 인기 BJ의 경험담처럼 “어제 방송을 성공했어도 하루만에 육먹는 게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만일 유동층의 유입이 일시적인 거품에 그치면 새로운 고정층이 형성될 때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곤 한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친목질하다 방송을 몇 달 쉬었다’고 회상하는 여느 BJ들의 말은 아프리카TV에서 집단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 방은 생존을 위해 친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집단의 존속은 친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 아프리카TV에서는 방마다 친목의 가시화 정도가 다름에도 공통적으로 반친목주의가 선언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IV-2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2) 바깥에서의 친목

아프리카TV 사람들 간 친목은 종종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에서의 교류로 확장된다. 방 안의 친목이 방송을 성립시키는 토대라면, 방 바깥에서 이뤄지는 ‘특정’ 관계자 간 ‘적절한’ 만남은 BJ 방송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다져준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열혈팬과 BJ, 매니저와 BJ, BJ와 BJ, 운영자와 BJ의 오프라인 만남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BJ가 참여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열혈팬은 BJ가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고객’이고, 매니저는 BJ의 ‘동업자’ 혹은 ‘부하’이며, 타 BJ는 ‘직장 동료’, 운영자는 ‘직장 상사’이다. BJ의 방송활동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친목 관계—요컨대, 비즈니스적 협력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관계들—의 공간적 확장은 정당한 명분을 확보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바깥’에서의 친목 활동은 명분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온라인/오프라인 공간 분리

아프리카TV에서는 굳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성’을 오프라인으로 소환해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곳의 사회적 관계는 ‘익면(匿名)’의 상태로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 오히려 오프라인 만남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사람들은 ‘누가 어디서 사적으로 만났다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러한 만남을 “친목질,” “쫓목질”로 비하한다. 만남이 어디서 이뤄지는지가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 걸까? 다음의 사례는 아프리카TV의 소통 관계에 공간 분리가 함축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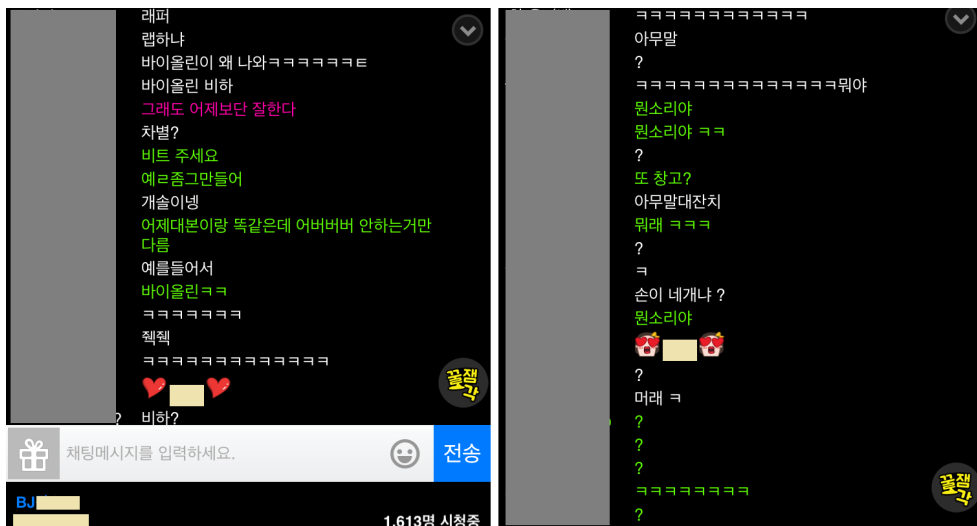
#### [사례Ⅳ-4] “[생] 2017 지역간담회 대구편”의 온/오프라인 상황

매해 지역별로 번갈아 회사에서 주최하는 ‘지역간담회’ 때는 운영자와

BJ, 열혈팬·매니저가 한 데 모인다. 연구자는 연구 사실을 알고 협조해준 회사측 배려로 2017년 6월 대전과 대구에서 하루씩 열린 지역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사측이 밝힌 간담회 취지는 “유저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회사와 BJ·유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소통과 다른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아프리카TV 자체가 실시간 소통 플랫폼이지 않은가!) 간담회 행사는 참석한 BJ의 개인방송뿐 아니라 아프리카TV 사측 계정의 “공식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된다. 공식방송 방에는 아프리카TV 회사 대표인 ‘BJ케빈UP’이 채팅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표가 직접 다른 시청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며 “유저와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평소 BJ가 시청자와 맺는 소통관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방 안의 상황과 방송에 비춰지는 실시간 상황인 행사 현장은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시청자채팅은 자신이 보고 있는 간담회 현장의 맥락에 전혀 개입할 수 없이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유리된 채 관객의 위치로만 존재한다.



위 화면은 BJ(연노란색 가림 표시)가 자신의 방송에 무대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놓고 무대 위에서 강연을 펼칠 당시 방 안의 모습이다. BJ의 말이 목표하는 청자는 방의 시청자가 아닌 간담회 참석자이다. BJ가 부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녹방’ 때처럼 BJ 눈치를 보지 않고) 시청자

는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 법도 하건만, BJ가 무대에 선 20여분 내내 여느 때처럼 BJ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열심히 그를 놀려대고 있었다. 자신들이 아무리 말을 내뱉어도 소외된 구경꾼에 그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혹은 모르는 듯이 말이다.

지역간담회, 체육대회, 연말 BJ 시상식 등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현지인은 개별 행사 내용과 상관없이 “친목질 하러 간다,” “쫓목 행사” 등으로 일컫는다.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연루해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장은 아무리 그것이 생방송에 비취지고 있는 내용인들 ‘바깥’ 세상이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와 맞물려 친목은 어떠한 닫힌 관계를 지시하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 친목은 단순히 BJ 팬덤 내 유대와 지지관계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 **바깥과 안의 분리-접합**

‘사례 IV-4’는 실시간 인터넷방송이 단순 송출 기능에 충실할 때 공간 분리가 관계를 분리시키는 경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TV 생방송은 BJ와 시청자 간 즉각적인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 BJ가 실물공간에서 하는 활동이 방송내용을 이루지만 이에 실시간으로 시청자채팅이 연루한다는 점에서, BJ는 온전한 ‘바깥’ 지대도 아니고 ‘안’도 아닌 사이에 위치한다. BJ와 다른 등장인물이 실물공간에서 함께 있는 ‘인터뷰 방송’이나 ‘게스트 방송’은 BJ와 등장인물 간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에서의 친목이 방 안의 관계성으로 접혀 들어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시 간담회 현장에서 연구자가 목격했던 상황을 살펴보겠다.

간담회처럼 오프라인 만남의 기회가 생겼을 때 BJ는 다른 BJ와 인맥을 형성하고 싶어한다. 초면에 서로 데면데면한 분위기에서 이른바 “인터뷰 방송”은 다른 BJ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인터뷰 방송이란 자신의 방송에서 상대 BJ를 잠시 인터뷰함으로써 그를 홍보해준다는 명목과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하는 BJ는 그 방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고, 방 안의 시청자는 평소 보기 힘든 “새로운 그림”을 본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BJ가 둘 다 방송을 켜 경우엔 서로 상대의 방송에서 번갈아 인터뷰를 하는 호혜성이 지켜졌다.

인터뷰 방송은 출연한 BJ들이 같은 물리적 장소에서 있다는 점에선 ‘합방’의 형태를 띠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전(全)과정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상대하는 BJ가 짧은 호흡으로 바뀌는 ‘탐방’이다. 여느 탐방 때처럼 채팅은 이 BJ의 인맥 형성에 적극적인 가담자이자 공모자로 자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어쩌다 연구자에게 인

터뷰 요청을 해온 한 BJ는 “저희 지금 채팅 보세요”라며 연구자를 “칭찬하는” 채팅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환대 제스처를 취했다. 이밖에도 인터뷰방송 중 즉석에서 BJ들 간 이후의 합방 약속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시청자채팅이 먼저 합방을 제안하거나 약속이 성사되도록 분위기를 몰아주고, 그 모든 과정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BJ들 간 인터뷰 방송(탐방)이 이토록 활발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의 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탈(脫)-사이버스페이스 상태로서 BJ는 보다 자유로워진다. 평소 탐방이나 합방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로서 지켜야한다고 여겨지는 “상도(商道)”가 훨씬 간편해진다. 당연히 상대 BJ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볼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이 용이하다. ‘기왕 만난 김에’ 하는 생각에서, 서로 방송과 관련한 이해타산은 계속 고려되더라도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점과 맞물려 개별 인터뷰이의 단발성과 인터뷰 방송의 연속성은 타 BJ의등장이 ‘내 방송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내 시청자를 뺏어갈 수 있다’는 식의 계산을 다소간 보류시킨다.

그러나 ‘탐방’으로 시작한 인터뷰 방송이 ‘합방화’ 하면, 탈(脫)사이버스페이스로 출발한 두 BJ의 관계에 사이버스페이스 관계가 강하게 도입된다. 예컨대 A의 인터뷰 방송에 B가 출연했다. 둘 사이 대화거리가 소진되고 방송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A는 다른 인터뷰 대상을 찾아 떠난다. 그것이 인터뷰 방송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만일 B가 계속 A의 방에 머무르려고 하면 B는 시청자채팅으로부터 “모기짓” 한다는 비난을 사고, 둘 중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쪽이 이내 자리를 뜨며 관계는 단절된다. 한편 “둘이 텐션이 좋으면” 어느 합방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탈사이버스페이스로서 만난 두 BJ의 관계가 보다 방 안의 관계로 접혀 들어간다. 이제 두 BJ는 본격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 안과 그 바깥 어느 사이에 끼어 방송의 흐름을 탄다.

### 친목이 “쫓목”이 된다는 것

탐방, 합방과 같은 방송 형식이 인기를 끄는 것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시청자는 BJ 간 친목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비록 자신이 항상 관여할 수 없는 관계맺음이지만 BJ 본인을 위해 좋은 일이고 방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시청자는 BJ가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글자로 존재하는 시청자의 ‘익명적’ 상태와 달리, BJ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스스로가 공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따라서 탈사이버스페이스는 BJ에게 익명화의 자유를 안겨준다. 근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관점에서는 오프라인이야말로 익명의



공간이다.

같은 맥락에서 BJ가 시청자와 생방송 바깥의 시공간에서 교류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청자는 BJ에 대해서만 ‘탈익명화’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 사실이 현지에 밝혀지면 “쫓목”의 의심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열혈팬 시청자와 BJ 간 바깥에서의 교류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묵인된다. BJ에게 아낌없이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는 열혈팬은 그만큼의 투입을 하지 않은 여타 팬들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허나 만일 생방송에서 BJ가 그 특정 시청자에게만 관심을 주는 것 같거나 채팅이 그 둘만 아는 이야기를 언급하려 들면 방 사람들은 이를 단번에 친목질로 인식하고 경계한다. 그 누구에게도 방은 결코 ‘그들만을’ 위한 친교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한 2자 관계는 그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소외시킨다. 따라서 방 안에서 특정 당사자들 간 친목 관계의 가시화는 3자—BJ, 시청자, 시청자 군중—의 축을 끊어놓는 위협이다. 오프라인 친목 활동의 존재 유무와 별개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만은 친목이 비가시적인 것으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정리하자면, 아프리카TV에서 친목은 집단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개인의 친목에 대한 욕망은 사회의 욕망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친목을 가시화(현실화)하려는 개인의 욕망이 사회의 욕망을 넘어설 때 그것은 ‘쫓목’으로 규정된다.

## 2. 집단 재생산 원리로서 친목 금기

### 1) 반친목주의

다음은 현지에서 통용되는 아프리카TV에 관한 진술이다:

- BJ는 자신의 편이 돼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와 별풍선은 돌고 돈다. (그래야 한다.)

이 두 사실은 친목과 반친목의 씨앗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 친목이 활발한 ‘작은 방’에서도 친목은 그 이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로 수다를 떨었던 것 같건만 ‘친목질 하지 말아 달라’며 어느 날 올라온 BJ의 공지는 혹자의

시선에 참 난데없어 보일 수 있다.

#### [사례Ⅳ-5] 작은방 BJ 방송국에 게시된 ‘친목질 금기’ 공지

- 제목: 방 수칙 필독  
- 내용: 어딜 가도 사랑 받는 시청자 되기  
꼭 지켜주세요.  
친하다고 닉을 부르거나 개인적인 질문은 웬만하면 삼가 주세요.  
쭈지나 꺾속말 친목을 위한 일이라면 적발 시 블랙 조치!  
사람들이 대화에 낄 수 있게 처음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타BJ 발언이나 홍보성 글은 채금, 강퇴, 블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이를 제대로 모르신다면 존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길끼빠빠(길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잘하는 눈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BJ는 노리개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

아프리카TV에서 ‘친목’은 상호존중을 토대로 한 친교적 활동(만)을 일컫고 있지 않다. 현지에서 ‘친목’은 닫힌 2자 관계의 출현과 고착화 가능성을 지시한다. 위 사례에서 “쭈지나 꺾속말”이 “친목”으로 규정된 것 역시, 그것이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 둘만 볼 수 있는 닫힌 고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친목질,” “쭈목질”로 친목이 부정되는 ‘반친목’은 단순히 적대적 관계와 동의어이지 않다. 친목의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친목은, 2자 관계의 닫힌 빗장을 기어이 열어놓고 마는 반대행이다.

#### 집단 재생산 원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반친목은 집단 재생산의 문제와 관련된다. 생물학적 생식이 불가능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집단이 존속하려면 신참자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기존 구성원 간 친목 행위는 아프리카TV 이외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신참자에게 장벽이 되곤 한다. 소외감을 느낀 신참자는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기에, 친목은 그곳의 사회적 재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TV와 친연한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뉴비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조건”(이길호 2012: 211)인 반친목은 “모든 유대관계를 철폐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철폐를 통해 하나의

공통의 집단을 유지(ibid.: 213)”하는 원리이다. ‘우리는 디시인,’ ‘우리는 코깅러’와 같은 장소적 범주로서가 아니라면, 디시에서 고정된 이름을 중심으로 무리를 형성하는 사회적 유대관계는 강하게 배척된다.

아프리카TV 현지에서도 “친목질하면 망한다”는 말은 하나의 경구처럼 강조된다. 특히 친목 금기 규정이 시청자 사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디시에서와 유사한 논리를 따른다. 새로운 시청자/팬이 유입하고 기존 성원이 대체되기가 반복돼야 방은 망하지 않고 오래 존속할 수 있다. 방 안의 고정 시청자끼리 호명하며 대화가 활발하면 새로 온 이는 채팅에 끼기 힘들고 방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TV에서 연구자가 ‘반친목’을 ‘반친목주의’라 하는 이유는 친목 금기가 강하게 주장되나 실상 친목 관계는 이곳에서 필수적이며 도처에 항상 묻어있기 때문이다. 즉, 태생적으로 아프리카TV는 친목을 기반으로 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반친목은 하나의 ‘지향(-주의)’으로서 의식적, 지속적으로 선언돼야 하는 문제이다.

다음은 시청자 유입과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작은 방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반적 전개이다: ① A방에는 누군지 식별가능한 수의 개별 고정 시청자가 있다. BJ를 포함해 이들은 서로를 ‘가족같이’ 아낀다. 높은 참석률을 보이는 고정 멤버들은 활발한 시청자채팅과 더불어 A에게 꾸준히 별풍선을 선물한다. ②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연유인지 A와 특정 시청자 간, 혹은 특정 시청자 몇몇 간 갈등이 불거진다. 집단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경우는 시청자끼리 BJ가 없는 공간에서 A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던 것이 뒷담화가 되어 방 안의 긴장이나 갈등으로 가시화하는 것이다. ③ 방의 분위기는 한동안 살얼음판이 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낀 멤버는 방을 떠나 버린다. BJ에게 고정 시청자의 잠적은 별풍선이 끊기는 것이기도 하다. ④ 이들의 자리가 새로운 시청자로 대체되기란 쉽지 않다. 이전엔 ‘우리’끼리 너무 친해서 어려웠다면 이제는 방송의 분위기가 불편하고 재미없어 유동 시청자가 금방 들어왔다 나가버린다. ⑤ BJ는 물심양면으로 타격을 입고 방송은 위기에 처한다. 쉽지 않은 재기로 인해 BJ가 아예 방송을 한동안 쉬거나 관두기도 한다.

그래서 현지인은 스스로 친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친목질 하지 말라’는 모순된 말을 내뱉는다. BJ는 자신이 시청자와 ‘바깥’에서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시청자 간 연락처 공유나 BJ가 추진한 “정모(팬미팅)”가 아닌 때 시청자끼리 만나는 것은 강력히 금지시킨다. 이들이 무리를 이뤄 공통 관심사인 BJ를 험담하게 되고 방을 떠나버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런 모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에게 ‘반친목(反-親睦)’의 주장은 반목(反目)을 초래하기도 한다. 허나 언뜻 봐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나타나는 반친목 규정은 사실 모두 하나의 논리에

있어선 충실하고 있다. 요컨대, 특정 구성원 간 친목의 가시화 정도는 방마다 다를 지언정 어떤 경우라도 BJ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BJ의 말마따나 “내 위주로 친목은 인정”하지만 “내가 모르는 얘기는 친목질”이다. 아프리카TV에서 BJ를 배제시키는 시청자 간 관계는 BJ에게 적대적인 의도나 양상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쫓목’이다.

#### [사례Ⅳ-6] 시청자 ‘친목질’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BJ

“[...] (이미 서로 너무 친해져버린) 이 사람들은 얼굴 보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만났고 사실 여기서 틀어지고 제 방송을 안 봐도 그 사람들은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잡아야 되는 실상이고. 근데 둘이 너무 친해져버려서 잘 지내다가 조금만 사이가 어긋나버리면 둘 중 하나가 안 들어오든지 둘 다 안 들어오고. 아니면 둘 때문에 방송의 콘텐츠가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친목을 하면 안 된다 [...] 옛날에 시청자 적을 때는 어땠냐면, 시청자가 2명이에요. 근데 둘이서 싸워요. 그러면 둘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연구자: 왜 싸워요?) 한 명은 제 방송 열심히 보던 여자애였고, 한 명은 남자애인데 맨날 들어와서 악플 쓰는 애예요. 악플 자주 쓰니까 여자애가 좀 ‘하지마’ 하니까 여자애한테 ‘니는 뭐냐’ 하면서 싸움이 되어버리고. 저는 시청자도 안 그래도 2명인데 둘이 싸우고 있고 그러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또 여자애가 매니저여서 개를 강퇴하고 자기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BJ현자가 친목질의 폐해라며 연구자에게 들려준 자신의 일화이다. 이외에도 다른 경험들이 겹치며, 그는 친목이 BJ의 의도와 상관없이 방송에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현재 그는 매니저와 열혈팬에게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사적인 교류를 최소화하면서 지낸다고 했다.

#### [사례Ⅳ-7] 집단 생존을 위협하는 친목 활동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lt;필독사항&gt; 시청자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li> <li>- 내용: [...] 번호를 주고받는다든지 만난다든지 따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BJ 방송이지 여러분들끼리 만나고 연락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 생방송 때 비제이인 저희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채팅창 내용으로 서로 저희와 소통이 안</li> </ul> |
|---|

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는 생일 축하, 개인적인 말(사적인 얘기)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끼리 간단한 인사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사적인 얘기로 방송에 방해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방송을 진행하길 원하시지 않나요? 그러시다면 친목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친목은 방송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저희 방송에 못 버티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는 사적인 말 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방송에 관련된 얘기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하는 얘기, 그걸로 공감이 가며 소통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 말에 서운해 하신다면 그건 저희 방송을 오래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목으로 BJ가 소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친목이 강조된다는 점은 아프리카 TV의 반친목주의가 여타 인터넷게시판 공간에서와 차별화되는 역설적 부분이다. 방장인 BJ는 방의 대체 불가능한 자이다. 시청자의 BJ를 향한 친목은 허용되고 또 필요하기에 반친목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청자로부터 BJ가 배제 당하는 것은 BJ 입장에서 생계 위협이다. 그리고 이는 BJ가 개설해야만 있을 수 있는 방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소멸 위협이다. 집단 소멸은 친목의 폐해이며 반친목의 실패이다.

한편, 방 안의 ‘유일한’ BJ와 달리 사실상 대체가능한 인구로서 개별 시청자에 대한 ‘소외’는 만연해있다. 채팅이 있는 한 시청자채팅자가 되는 BJ와 다르게, 시청자채팅의 말은 BJ에게 ‘입히지’ 않는 한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여자인 개별 시청자 또한 반권력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배척당하곤 한다. 그가 증여로써 발언권과 관심을 독점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면, 그와 BJ 사이 닫힌 2자 관계를 안착시키려는 ‘쫓목질’로 인식되고 시청자 군중에 의해 ‘민심의 재판’이 이뤄진다. 이러한 시청자에 대한 배제는 집단 재생산의 조건으로서 반친목주의와 부합한다.

### 반친목과 반권력

논의를 정리해보자. 한 BJ 방을 단위로 생각되는 팬덤이 반친목의 역설로 유지되는 데에는 집단의 존속과 관련된 두 가지 비밀이 있다: ① 방에는 새로운 시청자/팬이 유입되어야 한다; ② 방장인 BJ가 배제당하지 말아야 한다. 즉, 친목이 “친목질”로 배척되는 순간은 ‘우리 안 타자’를 타자화시킬 때이다. 반친목주의는 반권력의 문제와 맞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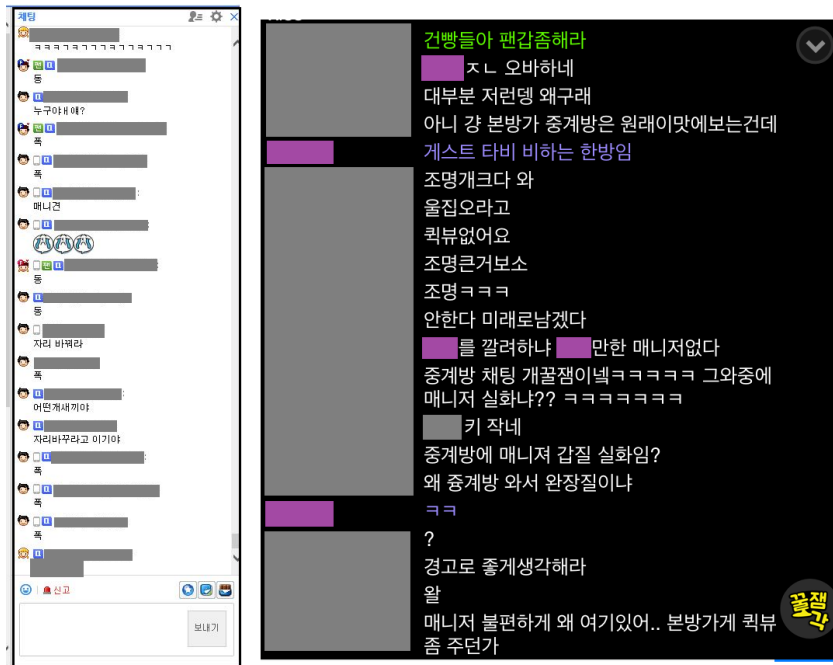
방에서는 “BJ 중심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팬덤의 ‘스타’이자 방장으로 서 대체불가능한 자인 BJ에게는 ‘권력 없는 권력자’의 역설이 나타난다(김수진 2017: 99-103). BJ는 바로 그의 팬/시청자 군중에 의해 방 안의 권력자로 군림할 수 없도록 제동이 걸린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BJ는 누구의 채팅을 증여물로 받아들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BJ 마음대로 특정 시청자와 친목이 한정되는 것은 거부된다. 시청자채팅의 기회를 ‘박탈’ 당한 시청자 군중은 BJ와 특정 시청자가 “쫓목질”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그 비난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방을 떠나버림으로써 BJ에게 위협이 된다.

이러한 원리는 BJ의 권한을 위임받은 매니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매니저는 BJ 및 다른 매니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과 역할 분담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다른 시청자채팅을 규제하기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청자 군중이 매니저 임무 수행의 평가자로서 BJ와 매니저 간 닫힌 관계가 세력화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권력의 저항은 시청자 군중이 매니저를 “욕받이”로 위치시킴으로써 이뤄진다. 매니저는 방 안에 ‘안전하게’ 자리를 확보하려면 제재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존재감 없이 있거나, 여러 매니저 중 누가 제재를 수행했는지 침묵해 ‘익명적’ 상태로 위치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한다. 전자의 예로는 매니저 위치에 “임명”은 되었지만 그 자리의 위세와 권력을 기꺼이 포기하는 열혈팬이 있다. 보다 적극적인 매니저는 BJ의 방송 준비를 ‘충성을 다 바쳐’ 보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 군중에게 인정받기와 더불어 시청자채팅으로써 방 안에 재미를 선사하는 방식으로, (흡사 BJ처럼) 우호적 민심을 얻고자 신경 쓴다.

### [그림Ⅳ-3] “매니저 욕받이” 현장

- 좌: ‘본방’ 채팅방의 모습이다. 생방송 중 채팅 도배와 물타기가 심하자 누군가 채팅방을 잠시 열렸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을 사고 비난받은 대상은 그 직전까지 채팅이 저격해오던 BJ가 아니라 매니저였다. 채팅방 열림이 풀리자 “누구야?,” “어떤 개새끼야?,” “매니견(매니저+犬)” 등 권력을 행사한 자가 누군지 추궁하는 채팅과 함께 “폭,” “동”이 도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우: ‘중계방’ 채팅방의 모습이다. BJ가 생방송 중에 보지 않는 중계방은 본방보다도 “자유가 수호”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공간이다. 당시 중계방에 매니저 등급의 시청자(보라색)가 들어오자 “매니저 불편하게 왜 여기있어,” “중계방 매니저 갑질 실화임?” 등과 같은 반발감과 “크뷰 없어요,”

“킵뷰 좀 주던가” 식으로 매니저에게 기식하려는 듯한 채팅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매니저는 이후 “건빵 형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난 중계방에서만 논다 (...) 본방가면 강퇴만 해야해ㅠ”라며 자신은 매니저 역할을 하러 중계방에 온 것이 아님을 밝히고 다른 시청자채팅과 어울려 놀았다.



반친목과 반권력의 지향은 방과 방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한 BJ의 팬덤은 다른 방(팬덤)과의 관계에 놓일 때 활발히 동원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양된다. BJ는 다른 BJ 팬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팬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팬이 다른 BJ 방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식으로 상대방에 ‘공격’을 가하면, 그 결과적인 위협은 자신(의 방)에게 돌아온다. 다른 방에 대하여 팬덤의 고착화와 세력화는 방 외부의 구성원인 유동 인구를 배척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방 스스로의 집단 재생산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에서 “팬덤”은 항상 “친목질,” “쫓목 세력”과 유비되고 있다.

## 2) “비즈니스”로서 이성애적 로맨스

아프리카TV에는 ‘여자’와 ‘남자’가 있다. 방송에 실물의 모습이 드러난 BJ의 성별은 비교적 육안으로 판별 가능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프리카TV에는 남성 시청자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고 여겨진다. 시청자의 성별은 사이트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따라 식별되고 채팅방에서는 닉네임 옆에 성별 아이콘이 붙는다. BJ는 이 정보에 근거한 자신의 방송 인구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허나 회원가입자의 성별은 닉네임 사용자의 성별에 대한 사실 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 주민등록번호 당 하나의 계정만을 생성할 수 있는데 동일자가 여러 개의 부계정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상기한 식별법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통계적 수치가 따르는 식별법에 의존해 아프리카TV에서의 ‘젠더’를 논하지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내가 어떤 성별을 재현하고 있는지가 곧 실재하는 성이다. 남성중심성이 강한 아프리카TV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짝으로서 존재한다. 아프리카TV 사회는 페미니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생방송에서 BJ는 이성애 규범적인 이념형에 극적으로 ‘충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패러디하고 있다(버틀러 2004 참고).

### 여캠

아프리카TV에는 여성혐오적, 이성애규범적 언행이 만연하다. 대표적으로 “여캠” BJ는 방송에서 애교 넘치는 언행과 신체적 노출로써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적극적으로 연행한다.<sup>49)</sup> 남성 BJ가 시청자 일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여캠 BJ는 “오빠”의 호칭을 사용하고 별풍선을 받으면 애교 섞인 동작, 몸매를 드러내는 춤, “의첸<sup>50)</sup>” 등을 보인다. 별풍선과 창녀를 합성한 줄임말인 이른바 “별창”의 오명은 여캠 현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남성 BJ들은 여성 BJ들이 그저 여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번다”며 부러워하고, 이러한 인식은 현지에 꽤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다. 심지어 “여캠은 콘텐츠가 없다”고 자타에 의해 평가절하 당

49) 남성의 몸을 가진 ‘여캠’인 “남캠” BJ도 존재한다. 남캠 BJ는 시청자 일반으로서 “누나” 혹은 “우리 애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매력을 어필한다. 여캠 BJ와 남캠 BJ의 행동은 서로 다른,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는 상반되기도 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아프리카TV에서 “남캠” BJ는 남성의 몸을 가진 ‘여캠’에 해당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0) ‘의상 체인지(change)’의 줄임말이다. 별풍선 리액션으로 BJ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인데 주로 노출이 심한 옷이 기대되고 등장한다.



한다. 일반적으로 ‘캠방은 콘텐츠가 없다’는 인식 또한 여캠에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캠방이 콘텐츠”라 한다면 그것은 “별창짓”, “젓팔이”이다.<sup>51)</sup>

여캠방에서 작동하는 이성애규범적 시선은 이른바 “열혈 터렛”에서 단적으로 표출된다. 다른 ‘남성’이 “자신의 BJ”한테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이면, BJ 본인보다도 열혈팬이 나서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 [사례Ⅳ-8] ‘여캠 탐방’에 대한 여캠방 열혈팬의 배타적 태도

생물학적 여성의 몸이 없는 남성 BJ들은 전략적으로 “여캠 탐방”을 콘텐츠로 삼으며 자신의 시청자에 대해 “젓팔이”를 대리수행 하기도 한다. 남성 BJ가 생방송이 진행 중인 여캠방에 들어가 탐방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여캠 BJ의 생방송 화면을 자신의 방송 화면에 띄우는 것이다. 이때 남성 BJ는 소정의 별풍선을 여성 BJ에게 선물하고 시청자들을 위해 그녀의 주특기 리액션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 BJ가 동의를 구하는 대상, 그리고 그를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성 BJ 본인보다도 그 방의 시청자들이다. 방문을 당한 여성 BJ가 “저희 방 팬 분들한테 여쭙 봐야 해요”라며 탐방에 응하길 주저하는 모습은 의례적으로라도 등장한다. ‘매너 좋은’ 여캠방 열혈팬은 그 일시적인 접촉과 교류를 허락하거나 그에 침묵한다. 허나 여성 BJ의 열혈팬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면 탐방이 성사되지 못한다. 탐방 온 남성 BJ 방안의 시청자들은 “터렛이 심한” 해당 열혈팬과 방 분위기에 대해 비아냥거리지만, 남성 BJ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물러난다. BJ가 상대 BJ방에 사전 합의도 없이 찾아가 그 방 시청자 민심을 혼란시키는 것은 “상도에 어긋나는” 짓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남성 BJ 시청자들이 “저기는 열혈 터렛 심하니 가지 말라”는 여캠방도 있다. 누군가 자기 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자신(의 방)의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기에, 여캠 BJ 본인이 탐방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때문에 여캠 BJ의 방은 그들만의 닫힌 공간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여캠 BJ가 연행하는 ‘여성성’의 양상은 이른바 ‘내 남자 앞에서만 야해지

---

51) 한편 여캠에 열광하는 남성 시청자도 “현실 연애는 못하는 호구”나 “물소” 등과 같이 비하된다. 그러나 이 조차도 여성혐오적인 어원을 갖고 있다.

는 조신한 여성'의 상을 반영한다. 여캠방에서 BJ가 남성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 방송에 드러나는 것은 금기시 된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그 여성 BJ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생존을 위협 받는다. 실제로, 여캠 BJ가 남성 BJ와 사귀고 있다거나 열혈팬 누구와 방송 외적으로 단둘이 만나는 사이라는 사실 혹은 루머가 확산되는 일은 왕왕 발생해왔다. 이런 경우 팬들이 여성 BJ에게 단체로 별풍선 환불을 요구하거나, BJ가 비난을 못 이겨 방송을 접은 결과가 초래되었던 바 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여캠 방송을 하던 BJ가 탈-여캠을 선언하는 언행에 대해선 이제 그 BJ가 “별풍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상 오인에 가까운 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방에서 여캠 BJ가 상대하는 ‘내 남자’—BJ에게 ‘듬직하고 매력적인 (열혈) 오빠’로 위치하고 싶어 하는 시청자—는 한둘이 아니며, 이들은 심지어 같은 장소에 실시간으로 함께 존재해 있다. ‘여성’ BJ를 열망하는/‘열혈 터렛’의 심리를 갖고 있는 ‘남성’ 시청자는 스스로 뺏을 놓는 셈이 되면서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역설에 빠진다:

- ‘여성’ BJ와 관계는 그 어떤 ‘남성’에 의해서도 ‘사유화’될 수 없다.
  - 나는 (별풍선을 선물함으로써) ‘여성’ BJ의 관심을 독점하고 싶다.

여성 BJ에게 열렬한 지지와 애정 공세를 펼치는 시청자는 “사심충”, “망상충”으로 비하된다. 여캠 BJ방의 나는 다른 이들을 별레로 비하하기 때문에 사심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잘’ 감춰야 한다. 의도치 않게 “사심충”으로 명명되는 순간 여성 BJ를 향한 나의 관대함은 훼손되고 내 체면과 위신이 깎인다. 그래서 이곳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성애규범성은 이성애로 안착, 실현될 수 없다. 여캠 BJ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비록 여캠 활동을 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곤 하지만, 그녀는 이 관계를 전유하며 자신의 ‘여성됨’을 방송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 [사례Ⅳ-9] “솔직히 나도 가슴 까면서 뒀어”

“솔직히 나도 가슴 까면서 뒀어. 부끄러웠지. 원래 나는 집 앞에 편의점 나갈 때는 수면마지 입고 나가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뜨려고 관심 받으려고 노출하기 시작했어. 방송할 때는 ‘어떤 옷 입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BJ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고 그럴까’ 생각하다가 방송 끝나면 또 되게 힘들고 부끄럽고. 그래서 평소에 어디서 내 직업이 BJ라고 못했어.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 방송을 좀 오래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욕심을 버려야 하더라고. 현자 타임(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왔어. (물론) 힘들어. 지금

시청자 줄어서 하꼬하꼬 하는데, 나도 다시 가슴 까면 금방 천명 찍는다. 근데 내 가슴은 소중한니까 (웃음) [...] 얼굴이 미친 듯이 예쁘거나, 가슴을 까거나, 핫몬처럼 유명한 사람 피를 빨거나, 여자 BJ가 아프리카에서 뜨려면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제 BJ판은 어영부영한 사람이 뜨기 힘든 판이야. [...] 내 행복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몸매를 드러내는 연행을 하지 않고 앉아서 말만 하는 상황이라는 뜻에 가깝다) 기본 시청자가 300명인 게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노출 안 하는 웃) 입어도 나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려고 많이 오는 거. 내 팬닉이 느는 거.”

수년 간 여캠 방송 활동을 해온 BJ 하니는 방송 중 여캠 활동을 하며 느껴온 속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에서는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여성 BJ의 현실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묻어났다. 신체적 노출을 하며 수치심도 들고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자신의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그녀는 노출이 거의 없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방송을 하곤 했는데, 저 날의 방송 이후 그녀가 다시 여캠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시청자 유입이 느는 조짐이 보이거나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녀는 과감한 신체적 노출을 감행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계하는 ‘여성’ BJ와 ‘남성’ 시청자의 짝짓기는 항상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즉, 여캠 BJ는 ‘남성의 욕망에서 비롯한 이성애규범’에 기이할 정도로 충실한 연행을 보이지만, 결코 둘의 이성애는 실현될 수 없다. 한편으로 현지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른바 “여캠은 못 믿는다”, “여캠은 믿고 거른다”는 식의 속설이 정설처럼 회자된다.

이성애규범적 관계의 욕망을 조롱하듯 흥내내어질 뿐인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여캠 BJ와의 관계는 ‘반-이성애규범성’의 영역을 생성한다. 다시금 상기하자면, 그 단 둘이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에서 관계를 맺는 일은 현지인 스스로가 처놓은 덫으로 인해 쉽게 이뤄질 수 없다. 무엇보다, 그러한 친목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존재와 집단을 위협하는 금기 위반—“쫓목질”—이다.

### 유사 연애를 통한 한시적 결연관계

아프리카TV의 방송 트렌드는 빠르게 바뀐다. 최근 몇년 새 현지에는 남녀 BJ 간 가상연애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방영된 MBC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두 연예인이 연인 관계를 모방, 연출하는 모티프를 따온 이른바

“우결” 콘텐츠이다. 이때 여성 BJ와 남성 BJ 간 짝짓기는 ‘현실의 이성애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실시간 시청자채팅은 두 BJ 간 이성애적 호감의 기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연출되길 요구한다. 그러나 남녀 간 짝짓기를 둘러싼 현지의 활동은 어떠한 전복적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BJ들 간 ‘우결 콘텐츠’는 ‘합방’의 한 종류이다. 남녀 BJ가 합방 도중 우연히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풍긴 것이 시청자의 호응을 사 “우결로 발전”하기도 하고, 애초에 BJ들끼리 사전에 이를 기획해 진행하기도 한다. 초기 발생이 어떠한 우결 콘텐츠를 함께 하는 두 BJ 방 사이에는 결연관계가 형성된다. 그 일반화된 형태를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sup>52)</sup>

#### ① 개시선물 교환:

여성 BJ [여자]와 남성 BJ [남자]가 있다. [여자]와 [남자]가 우결을 하게 된 계기는 앞서 언급했듯 여러 요인이 있다. 만약 두 BJ가 탐방, 합방 등으로써 이전에 면식이 있던 사이가 아니라면, 주로 한쪽 방에서 온 유명한 열혈팬(혹은 BJ 본인)이 다른 방에 별풍선을 선물함으로써 관계의 물꼬를 튼다. 예를 들어, [여자]의 열혈팬 H<sup>53)</sup>가 [남자]방에 가서 “우리 BJ랑 언제 합방을 해 달라”고 직접 부탁하거나, H의 별풍선 선물을 본 [남자]방 시청자 군중이 “[여자]방 회장님이시다”고 아는 체를 하며 합방을 제안하는 흐름을 형성한다. [남자]는 “[여자]방 회장님이세요?”, “아이고, (별풍선을) [여자]한테 쓰시지...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말로 H를 예우를 갖춰 환대하고 [여자]방에 탐방 간다. [여자]가 동시간대 방송 중이지 않을 경우엔, [남자]가 나중에 [여자]와 연락해 논의해 보겠다고 약속한다. 요컨대, 명성과 위세 높은 인물의 별풍선-증여(와 시청자채팅)은 ‘[여자]-[남자]’ 짝짓기의 개시선물로 작용한다.

#### ② ‘BJ-방 사람들’ 간 합방을 통한 결연관계 형성:

[남자]와 [여자]가 우결 방송을 한다. 종종 BJ는 합방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예컨대, 합방을 하러 가는 길에—자신의 방송을 진행한다. 합방 때 시청자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합방이 시작하면 BJ는 둘 중 한 명의 방송으로만 진행한다. 만일 두 BJ가 [여자] 방송을 켜기로 합의했다면<sup>54)</sup>, [남

52) 이하의 내용은 비단 우결 상황에 관해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합방 상황에서의 양상과 원리이기도 하다.

53) 시청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BJ 편에서 시청자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남성 BJ 방에 먼저 방문,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지만, 한 시청자가 양쪽 BJ 방에서 모두 열혈팬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자]는 자신의 시청자에게 ‘[여자] 방송으로 와 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남자]-시청자’와 ‘[여자]-시청자’가 한 장소에 모인다.

방송을 켜 채 이뤄지는 두 BJ의 유사 연애는 ‘제3자’인 시청자가 관여할 여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방송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서로만) 바라보는 대신 시청자채팅을 매개로 관계하며 설레고 흥미진진한 데이트 상황을 연행한다. 우결 방송 중 [남자]방에서 유명한 ‘[남자]-시청자’가 별풍선-증여를 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우리 방 큰손 누구다’라는 식으로 그를 소개한다.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합방 중 자신의 팬닉을 단 시청자가 별풍선 증여를 많이 하면, BJ는 팬스레 으쓱해진다. 단, 너무 많이 하면 “외화 유출”로 인식돼 이후 자신의 별풍선 수입이 줄까봐 내심 신경이 쓰인다. 동시에 BJ는 어떤 행동이 혹여나 자신과 상대 팬들(특히 열혈팬)의 민심을 잘못 건드릴까 의식한다. 방 경계를 교차한 별풍선-증여와 시청자채팅이 이뤄짐으로써, 우결 생방송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여자]>-시청자’가 된다.

### ③ 우결 방송이 끝난 뒤 각 방 사이 결연관계:

성공적으로 우결 방송을 마치면 [여자]와 [남자]는 각자의 집(개인방송 공간)에서 짧게라도 “귀가 인증 방송”을 한다. 특히 귀가 인증의 책무는 이곳의 ‘이성애규범’에 따라 여성 BJ에게 더욱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각자의 방송을 켜면 서로 상대의 시청자가 방에 찾아와 ‘오늘 방송 잘 봤다, 수고했다’는 내용의 인사를 한다. 예를 들어, [남자]/[여자]의 팬닉을 단 시청자가 [여자]/[남자]방에 와 별풍선을 증여하며 “우리 BJ를 잘 대해줘서 고맙다”고 [남자]/[여자]방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식이다. 합방을 계기로 상대편 방 시청자 인구가 자신의 방에 유입하는 과정에서, 그 유동해온 시청자는 자신의 고정팬이 되기도 한다. 해당 방송이 있었던 날 이후에, [여자]/[남자]방 사람들은 [여자]/[남자]가 방송을 켜길 기다리는 동안에 [남자]/[여자]가 생방송 중이면 그 방을 “대기(待期) 방”으로 삼아 ‘유동적-고정’ 시청층이 되어준다. 아프리카TV 시청자는 기본적으로 유동하는 자이며 누가 어느 방 사람이라는 식의 연결은 언제나 복수(福數)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우결 방송을 통해 맺어진 두 BJ방 간 결연관계는 집단의 유기체적 합일을 의미

54) ‘각주10’과 마찬가지로 합방 시 누구 방송을 켜는지에 BJ의 성별 자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개 두 BJ 간 평균 시청자수와 인기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인기도 높은 BJ의 방송으로 진행된다. 시청자 유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금의 서술에서는 단지 연구자가 예시를 들은 것일 뿐임을 밝힌다.

하지 않는다. 특히 아프리카TV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남녀 BJ의 짝짓기는 언젠가 다시 찢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사이버스페이스 바깥에서 이뤄졌던 두 BJ의 만남이 제3자의 관여로써 둘만의 닫힌 고리를 형성하지 않게끔 저지되는 것과 맞물린다. 시청자의 존재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미치는 위력은 우결 방송 중일 때보다 오히려 해당 방송이 끝난 뒤 더욱 가시화한다.

말을 남겨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현지인은 여느 때처럼 BJ와 방송에 대한 가십을 BJ 방송국, 디시 인방깬 등에 (재)생산, 전달한다. 우결 방송에 출연한 한 BJ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나타나면 다른 BJ 편에서의 반박과 이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방 안에서 ‘<[남자]-[여자]>-시청자’ 결연관계로 묶여있던 ‘[남성]-시청층’과 ‘[여성]-시청층’은 각 집단의 개별성을 드러내며 새롭게 재분기한다. 나아가 특정 BJ 편에 서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도 현지인은 [남자]/[여자] 편 가르기를 적극적으로 시도, 규정한다.

하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글쓰이가 ‘[여자]-팬’인지 ‘[남자]-팬’인지는 본인과 예외적인<sup>55)</sup>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 없다. 팬닉을 단 닉네임은 위장, 변신일 수 있고, 글쓰이는 그저 어떤 이름을 가진 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A팬덤’은 누가 A팬인지, ‘A팬덤’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언제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팬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상호 규정적으로 자신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밝히려는 ‘무의미한’ 작업에 현지인이 과도할 만큼 집착을 보이는 이유이다.

이 유령 같은 ‘A팬덤’과 ‘B팬덤’ 간 ‘실체 없는’ 싸움은 날개의 구체적인 말들이 전달됨으로써 BJ에게 현실화한다. BJ는 그러한 “이간질”을 불식시키고자 해명에 나서는데, 그의 말은 또다시 가십거리가 되어 불붙은 “이간질”에 부채질만 한다. 한없이 생산되는 가십과 맞물려, BJ 본인의 의도와 실천의 결과는 계속해 어긋난다. 최악의 경우, 우결 방송을 함께 했던 BJ 사이 반목이 초래된다. 주목할 점은 정작 두 BJ가 서로 악감정이 없을지라도 그 사실관계와 거리를 둔 채 각 ‘팬덤’ 세력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J가 말한 사실은 의혹을 증식시키고 ‘알 수 없는 사실’이 사실로서의 정보값을 획득한다.

물론 가십 생산자 중에는 그러한 현실을 깨닫는 현지인도 있다. 그들은 공격 대상을 특정 ‘BJ-팬덤’이 아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로 재조정 한다. 이른바

---

55) 각 BJ방의 소수 네임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할 수 있다. 여전히 그들조차도 여러 방에서 네임드로 활약 중이거나, ‘원래는 어느 BJ 팬 출신인데 어떤 BJ 팬인 척 가장한다’는 식의 의혹을 받기도 하지만 말이다.

“망상충”, “우결충/쫓결충”으로 비하되는 ‘<우결>-시청자/팬’의 탄생이다. ‘망상충’이란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을 모두 사실이라 믿고 싶어 하고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는 듯한 양상을 지시한다. 우결의 형태가 아닌 다른 결연관계에선 잘 등장하지 않는 ‘망상충’은 아프리카TV 사회의 강한 ‘이성애규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 제3의 집단은 ‘[남자]편’과 ‘[여자]편’의 대립 구도를 해소해주는 공공의 적이 된다. 예를 들어 우결방송으로 한창 관심물이를 하다 결국 두 BJ(팬텀)의 사이가 틀어진 시점에 인방겔에는 “(우결 방송을 했던 다수의 BJ 조합을 열거하면서) 개청자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좋았던 사이도 틀어지게 마련이지”, “개청자들의 장점이 우결을 막는 거네”와 같은 논쟁과 여론이 나타났다.

#### [사례Ⅳ-10] 결연관계의 종식

BJ[여자]는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극약처방을 내렸다. “타BJ 언급 금지” 규정을 내세워 자신의 방에서 [남자]를 언급하는 채팅을 제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연관계의 상태에서 이는 짝-집단을 배척해버리는 일이다. [여자]의 판단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남자]-시청자’는 [여자]방을 떠나거나 [남자]방에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 [남자]는 시청자의 이런 전달이 어려모로 그리 달갑지 않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방송에서 ‘둘의 우결 관계는 끝났다’고 공식 선언한다. 이후의 상황에 시달리며 BJ에게 우결은 ‘서로 상처만 남긴 이별’이 됐다. 관계의 종식을 선언하며 BJ는 “제발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 달라”고 호소한다. 이로써 ‘패배한 공공의 적’인 “우결충/망상충”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본인이 ‘우결충’이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결연관계에 미련이 있어 보이는 팬은 “우결충”으로 규정되며 “관짝에 들어가라”, “관짝 닫아라”고 부정 당한다. 시청자는 제 안에 잠재한 비하된 신분을 숨긴 채 ‘[남자]-시청자’ 혹은 ‘[여자]-시청자’의 분류 속으로 재귀한다.

현지에는 우결로 맺어진 남-녀BJ 짝이 진짜 연애편제—이른바, “진결”—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공유돼 있다. BJ들의 연애편제가 방송에 가시화하면 “(둘 중 적어도 한 명의) BJ가 파괴 당한다”는 위기의식이다. A와 B의 관계가 진짜 로맨스로 귀결되면(귀결된다고 여겨지면)<sup>56)</sup> 예컨대 A방 시청자는 자신의(혹은

56) 물론 실제 연인관계에 있는 BJ도 존재한다. 이때에도 각 BJ방 사이에 결연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결코 두 BJ의 방-집단 사이의 단일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연인관계에 있는

자신이 현재 있는 A방의) 별풍선이 B한테 빠져 나간다—별풍선이 A와 B 둘만의 수익으로 안착, 종결된다—고 여기며, A에게 별풍선 주는 행위를 “호구”라고 비하하고 아까워한다. 한 BJ가 같은 BJ와 우결 방송을 몇 차례 지속하는 과정에서 BJ의 열혈 팬이 떠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우결 콘텐츠로 맺어진 관계는 방송에 재미를 선사하되 궁극적으로 각 방의 개별성을 고수하는, 두 BJ들 간 “비즈니스” 차원에 머무르길 요구 받는다. BJ의 “진결”은 각 ‘방-시청자’ 및 ‘우결-시청자’의 연루를 축소, 차단시키는 닫힌 2자 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프리카TV 사회의 친목 금기를 어기는 것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우결충’이 폄박받는 것도 그들의 활동이 BJ들 간 닫힌 고리를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두 BJ의 진짜 연애는 이곳 ‘이성애규범적’ 공간의 ‘반-이성애규범성’에 또다시 반한다. 여러모로 아프리카TV에서 남성BJ-여성BJ 짝은 결별해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진다. BJ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감과 상처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우결은 왜 여전히 흥행하는가? 그 비밀은 “내로남불”의 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 “내로남불”은 한 BJ 스스로의 모순된 언행이나 BJ에게 편향적으로 보이는 시청자/팬의 이중잣대를 지적할 때 쓰인다. 결연관계에 있는 때 ‘내로남불’은 두 ‘팬덤’이 서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논법이다. 그러나 ‘내로남불’은 자기부정의 역설을 담고 있다. 사실 우결 관계에 아프리카TV 시청자는 실시간 채팅으로써 관계하는 로맨스 당사자이다. 우결 방송에서 시청자는 단지 누군가의 로맨스나 불륜을 관음하기를 벗어나 ‘내가 하는 로맨스’로 관계에 연루한다. 한번 로맨스의 맛을 본 ‘우결충’은 언제든지 출몰한 준비가 된 채 현지 곳곳을 도사린다. BJ에게 우결 콘텐츠는 시청자와 별풍선을 유인할 위험한 “치트키(cheat key, 필살기)”이다.

어느 날, 누군가의 방에서 또 다른 우결의 기류가 나타났다. 기회만 엿보던 ‘우결충’의 유령은 빼꼼히 고개를 내민다. “나 이제 관짝 열어도 되냐?”

### 3) 금기 위반 활동: 안티

---

두 BJ가 연애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각자의 방송활동을 계속한다면) 각 BJ 방의 독립성은 유지된 채 여타 합방의 경우처럼 방 사이 연대가 맺어지는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상대의 관심을 쟁탈하려는 항상적 경쟁 상태에 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아프리카TV 현지인 사이 관심의 교환이 반친목주의의 역설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반권력주의와 맞물린 집단 재생산 원리임을 살펴보았다. 현지에서 반친목적인 언행은 종종 상호 투기(鬪技)적 양상을 취한다. 예컨대, 채팅은 BJ를 동네북마냥 약 올리길 좋아하고 ‘맥락 없이’ BJ에게 인신공격적인 말을 내뱉곤 하는 것이다. 때문에 드러난 모습으로만 봐서 반친목과 반목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하다. 이러한 틈새를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안티”는 현지의 반친목주의를 전용하는 반목 집단이다.

### 메타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은 안티일까?’

통상적으로 ‘안티’는 ‘건빵’과 ‘시금치’ 시청자 군중 속에 숨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큰 규모의 별풍선 선물을 잘 하지 않는) ‘건빵’과 ‘시금치’ 시청자가 대부분 개별 이름이 잘 인식되지 않는 ‘익명적’ 존재라는 점과 관련된다. 그러나 아프리카TV에서 ‘안티’ 시청자는 비단 숨어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못 현지인처럼 자신의 존재를 채팅으로써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어떤 시청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안티’로 규정되는가? 우선 누군가 ‘안티’로 의심받는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 [사례Ⅳ-11] 자주 면모를 바꾸는 ‘안티’ 시청자

“어떤 시청자가 제일 당황스럽냐면, 막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하는 사람. 어떤 식으로 보면 흔히 관심종자인데 물론... [...] 욕하는데 내(BJ)가 막 무시하고 있으면 알아서 나가. 나가거나, 다음날 들어오면 다음날엔 이상하게 칭찬이야. ‘솔히(BJ)님 너무 예쁘네요’ 해서 (BJ가 고맙다고) 반응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태세 전환이 빨라요. 개네들이 원하는 건 관심. 포커스가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사람...”

위 BJ의 말처럼 ‘안티인가?’ 의심스러운 (낯선 닉네임의) 채팅은 태세 전환이 빠르다. BJ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는 곧 비방을 멈추고, BJ의 환심을 사고자하는 (듯한) 말로 모습을 바꾼다. 어떤 면에서 BJ에 대한 채팅의 공격은 진짜로 그를 적대하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BJ는 종종 그러한 ‘안티’<sup>57)</sup>의 가능성을 방송에

57) 현지인이 용법에서 ‘안티’의 또 다른 표현으로 ‘악성 채팅’, ‘악플(리)’가 있다. 본 글에서 연구자는 현지의 방식에 따라 이 세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다만 BJ

적극적으로 전용한다. 현지인은 ‘누가 내 편이고 적인지’—즉 ‘이것은 위악(僞惡)적 놀이일까? 악의의 공격일까?’ 하는 의문—를 계속해 환기시키는 틀에서 경계놀이를 한다. 이 틀에서 어떤 시청자가 내뱉는 말의 초기 의도나 내용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사례Ⅳ-12] BJ 방송국 콘텐츠 공지 “악플을 견뎌라!!! 댓글 달아주세요.”**

생방송 중 BJ용희가 자신의 방송국에 공지를 하나 올렸다. 그는 방 안의 사람들에게 ‘잠시 뒤 악플 건디기 콘텐츠를 할 테니 지금부터 공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노래 한 곡이 채 끝나기도 전 8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채팅은 “오피셜 날린다(BJ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직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가 댓글을 보기도 전에 “멘탈 흔들렸다”, “콘텐츠 종료”라며 BJ를 놀렸다. 추후 상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악플’로서 달린 댓글은 대부분 BJ의 심기를 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무차별적 인신공격으로 보이는 말이나 BJ가 평소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내뱉는 식이다. BJ가 ‘예민하게’ 주목했던 댓글 중에는 “지금 이 콘텐츠 하는 것도 별로 빠치지도 않으면서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하는 거 극혐이다”, “이것도 결국 지가 웃기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웃어야 웃기는 콘텐츠네” 등과 같이 방송의 메타적 틀 자체를 조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BJ는 발끈하는 반응을 연출하면서도, “공격력이 낮은” 댓글에 대해서는 “노잼”이라고 간편히 무시했다. 시청자는 “ㅋㅋㅋㅋ(웃음소리)”, “ㄸㄸㄸ(부들부들)”과 같은 채팅을 도배하며 BJ가 곤란해 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BJ의 반응이 단지 과장된 흥내 내기처럼 느껴지면 다른 댓글로 넘어가자고 요구했다. BJ를 포함한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더 센” 발언이 등장하길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위험한 줄타기’로 인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례Ⅳ-13] ‘건빵’ 시청자의 채팅 공격 → BJ의 제재 → 관심 끌기 성공**

“제 친구 애긴데 (...) 개는 한 8년 전부터 꾸준하게 (BJ)와사비 방송가서 ‘게임 존나 못한다’고 맨날 욕만 하는 애예요. [...] 와사비 방송 보는 애들은 다 개 아이디를 알고 와사비도 개 아이디 알고. 아! 개 때문에 방송에서 사

---

의 방송을 정지시키는 진정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흠뻑옴표를 치지 않았다.

다리도 탔어요. 방송에서 와사비가 ‘애를 블랙 시킬까 말까’ 막 사다리타기 게임 해가지고 ‘너 골라라’ 해서 (인터뷰이의 친구가) ‘2번’ 골라가지고 블랙 걸리면 블랙 넣고. 근데 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 며칠 있다 또 보니까 블랙 풀려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또 욕하고. BJ는 ‘아 이 새끼 또 왔다’고 ‘블랙 풀어줬더니 또 왔다’고 막... [...] 다 그냥, 온 방에 가가지고 다 욕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 좀 재미없으면 (채팅으로 BJ한테) ‘아 이 새끼 씹선비네’ 하면 다음날 (그 방송에) 들어가려고 보면 또 블랙 되어있고. 그럼 ‘나 애 방 블랙이다!’ 자랑 하고.”

위의 인터뷰를 해준 시청자는 연구자에게 그 친구(A)를 “확실한 관중”이라고 강조했다. <BJ를 약올리는 채팅 ‘어그로’→BJ에 의한 강제퇴장이나 블랙→BJ의 제재 조치 해제→A의 재방문과 다시 시작된 채팅 ‘어그로’→사다리 게임 등 BJ 및 방 사람들과 농담관계→BJ에 의한 A의 강제퇴장이나 블랙...>의 패턴을 계속해 반복되며 A는 인터뷰 당시까지도 와사비 방에 생존해있다고 했다.

위 사례들에서 BJ를 향한 공격성 발화는 모두 적대를 가장한 놀이의 틀로 포섭되고 있다. 내 말은 관심을 끌고 재미를 유발하는 것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러한 의도와 별개로 전유된다. 그런 때에 ‘악플’은 BJ와 방송을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방송의 “흐름”을 생성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안티 세력

### [사례Ⅳ-14] BJ와 방송의 ‘목숨’을 끊어놓은 채팅의 적대

“예전에 여잔데 스님처럼 해서 하는 BJ가 있었어요. (다른 인기 BJ처럼) 엽기 컨셉으로 해서 별풍선 쏘면 물구나무 서기 하고. 근데 한 달을 욕만 먹는 거야. 그래서 (BJ가 방송을) 접었어요. (그래도 시청자수가 꽤 많았다는 맥락에서) 한 100명 보는데도 맨날 욕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BJ가) 채팅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게 전부 다 욕밖에 없어. 그럼 (만약) 내가 콘텐츠가 없잖아요,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니 방송 보는 거는 우리가 욕을 하기 때문이다, 니가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욕을 하기 때문이다, 니 방송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런 글이 짝

올라오거든요. (...) 그러면 방송이 진행이 안 돼요.”

BJ를 향한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악플’이 곧 안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악플’과 달리 진정한 안티는 방송의 ‘흐름’이 애초에 생기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거나 끊어놓는다. 방 안의 BJ 및 시청자 뿐 아니라 안티 또한 방송의 흐름을 전용한다는 점에서, 경계 놀이는 언제나 위험성을 지닌다. 방 안의 BJ와 고정 시청자가 변덕스런 ‘진빵’ 채팅을 일단 경계하고 보는 이유 역시, 안티의 활동이 현지의 서로 관심 받고자 하는 항상적 경쟁 상태를 전용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시청자/팬의 모습을 하고 방에 나타나기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누가 안티인지 여부는 BJ와 방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만) 판명될 수 있다. 안티 활동에 가담한 적 있는 한 시청자는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줬다.

**[사례Ⅳ-15] BJ 방송정지 징계를 ‘달성’한 안티 시청자의 기습 공격**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BJ가. (생방송 콘텐츠로) 인방깁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서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단독방(BJ의 방송을 정지시키고자 안티 시청자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야 인방깁에 글 올리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그 한 명이 남자 성기 사진을 (BJ의) 이름이랑 (인방깁 게시글에) 적어서 올린 거예요. 제목을 낚시를 해가지고 (BJ 이름으로 글이 검색되게끔) 올린 거예요. 그 BJ는 모르니까 그냥 놀렸는데, (생방송에) 성기 사진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BJ가) 정지당한 적이 있고.”

아프리카TV에는 “영정위원회<sup>58)</sup>”라는 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안티 세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안티의 세력화는 시청자 간 쪽지와 귓속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드물게는 안티 시청자 본인의 개인방송 개설 등을 통해 모집, 구축된다. 안티 세력은 BJ의 방송을 징계 당하게 하고 폐쇄시키려는 단일한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 ‘외부’ 장소에서의 세력화를 동원하는 이유는 생방송 중 BJ를 신고할 만한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반친목적인 겉모습으로 위장한 안티 시청자는 친목을 적극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현지의 친목 금기를 위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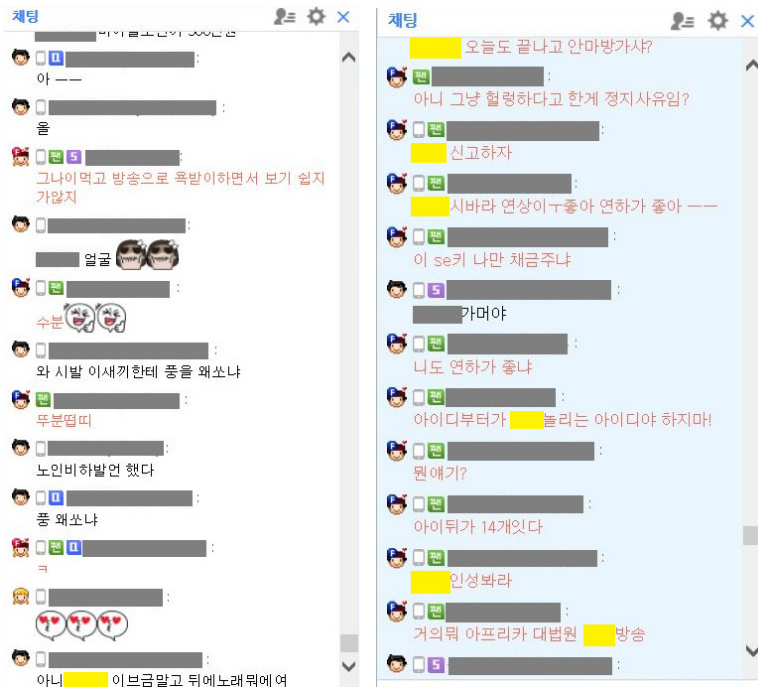
엄밀히 말해 안티 시청자는 비단 BJ와 고정 시청자에게 닦선 누군가라고만 할

---

58) ‘영정위원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수의 유동적 집단(들)이다. ‘BJ의 방송을 영구정지시키기 위한 위원회’라는 뜻이다. [사례Ⅳ-15]의 시청자가 가담했던 ‘단독방’의 이름 역시 “영정위원회”였다.

수 없다. 안티는 자신(들)의 표적이 된 BJ 방에 상주한다. 평소 이들은 ‘건빵’, ‘시금치’ 시청자로 위치한 채 여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겉모습을 바꿀지언정, 그의 묘한 낯색은 완벽히 감춰지지 않는다. 이들이 시도하는 시청자채팅은 BJ를 공격하다 편들기를 진동하는 방식으로써 (BJ에게 자칫 위협으로 이어질 만한) 채팅 ‘물타기’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다.

안티 세력의 ‘물타기’ 성공과 지속은 곧 BJ의 발언권을 쟁탈하고 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안티 세력의 목소리가 방에서 활성화하면, 안티 세력에 공모한 적 없는 시청자도 이 군중에 편승할 수 있다. 안티의 입장에서선 방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세를 불린 셈이다. 어느 순간 예민해진 BJ가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거나 어떤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면, 안티 시청자는 불시에 숨겨놓았던 은장도를 꺼낸다. BJ의 ‘문제가 된’ 방송을 캡처, 녹화해 아프리카TV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상부 감시기관에 신고하며 자신들의 승기를 올린다.



[그림Ⅳ-4] 안티 시청자가 들끓기로 악명 높은 BJ방의 상황

회색 가림표시는 시청자의 닉네임과 아이디, 노란색 가림표시는 BJ의 닉네임이다. 당시 한두 명의 열혈팬이 방에 있었지만, BJ를 적대하는 ‘건빵’, ‘시금치’ 채팅이 방을 점령한 상태였다. BJ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를

궁지에 모는 채팅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다. 당시 채팅은 별풍선 증여자가 나타나면 “이 새끼한테 풍을 왜 쏘냐”며 증여자를 비난하고, BJ에 대해 “정의(正義)”에 입각하여 “노인 비하 발언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연구자가 목격한 바로 해당 BJ는 노인을 비하하지 않았다.) BJ가 그러한 채팅을 무시하거나 경고를 주자 채팅은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혈령하다(성적 비하의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는 표현임)고 한 게 왜 정지(채팅금지) 사유임?”, “거의 뭐 아프리카TV 대법원 방송”과 같이 BJ를 비꼬고 반발했다. “아이디가 14개 있다”며 단발성 제재를 비껴가는 안티의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티 시청자의 신고와 그로 인한 아프리카TV 운영자의 BJ에 대한 제재 및 경고가 반복되자, 결국 해당 BJ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남기고 수년째 이어오던 아프리카TV 활동을 접었다: “최대한 채팅창을 관리하는데도 아프리카가 보시기에 채팅창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재는 계속 올 것이고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기 (방송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방송 분위기를 지배해버리는 안티성 채팅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생방송 활동을 접도록 합니다[...]

안티는 이처럼 현지의 반친목주의를 사실상 반(反)하는 방식으로 그를 전용해 세력화한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건전한 방송을 만들자는 ‘외부’의 작용을 전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숨긴)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 허나, 외부에서 형성한 닫힌 고리를 통해 방에서 BJ와 다른 시청자의 발언을 압도해버리는 안티의 세력화는 현지의 반권력에 반하는 부정행위이다. 무엇보다, BJ의 방송을 징계 당하고 폐쇄시키며 안티 권력은 아프리카TV의 집단 재생산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이다.

안티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BJ는 소수의 악명 높은 닉네임 외에는 안티 세력을 추적할 방도가 쉽지 않다. 최후의 수단으로, BJ는 적발된 아이디를 추적해 개별 시청자를 고소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별 시청자를 고소하더라도 아이피 추적에 한계가 있거나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사례Ⅳ-16] 안티 세력의 단독방에서의 친목 도모와 위협

“BJ들이 왜 그만 두냐면 (...) 너무 갈구니까. 그게 단체가 되어버리고. 개들이 저 같은 경우는 단체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영정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방통위에 신고하고 그랬잖아요. 신고

접수되면 정지 실제로 받는 거죠. 단톡방은 근데 제가 어떻게 못해요. 단톡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를 못하죠. [...] 별의별 일이 많아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찾아온 적도 있고. (...) 무섭죠.”

안티 세력을 추적하기 힘든 점 외에도 BJ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다. 현지인은 안티—“어그로를 끄는”—라고 인식되는 시청자채팅을 “관심종자”로 규정한다. ‘관심종자’로 유비되는 ‘악성’ 채팅은 특히 BJ에게 특히 양가적으로 다가온다. BJ 만식이가 악성채팅에 관해 남겼던 다음의 말은 그러한 BJ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아프리카하는 사람(BJ)으로선 돈줄이 개네예요. BJ들의 슬픈 지점이 솔직히 관심종자가 싫은데 관심종자한테 관심을 받아야 돼요.” BJ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은 BJ의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입고소<sup>59)</sup>”라고 풍자하곤 한다. 안티 역시 마찬가지이다. BJ의 앞서와 같은 설명은, 공교롭게도 온 채팅이 적대적 발언으로 들끓는 방에서 안티 시청자가 주장하는 논법과 겹쳐있다. ‘안티-팬’은 BJ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오히려 BJ가 자신들에게 고마워할 것을 주장한다: “너한테 욕하는 것도 다정이 있어서다”, “관심 없으면 이런 짓도 안 한다”, “우리가 있어서 너가 방송하는 거다”....

무엇보다 운영자의 언어를 그대로 모방한 그들의 논리는 운영자가 과감히 배척할 수 없다. 안티의 ‘악의’를 느끼면서도, 털미가 잡혀 신고가 들어오는 BJ 방송을 운영자가 제재하지 않을 순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중구속의 논리 자체를 전용해버리는 안티는 BJ뿐 아니라 아프리카TV 운영자가 자신들의 세력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기 어렵도록 마비시킨다.

### 안티와 친목의 유비

한편, 안티 세력은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팬덤과 유사해 보인다. 안티와 팬덤은 다른 양상의 같은 논리를 취하곤 한다. BJ에 대한 지지를 가장 열렬히 표출하는 열혈팬은 적군으로 돌아설 위험이 가장 큰 세력이기도 하다. 안티와 팬덤은 친목 활동을 동원함으로써 배타성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 [사례Ⅳ-17] 열혈팬 단체 이탈 사건의 전모

방송에서 여러 BJ가 모여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었

---

59) 말로만 고소한다는 뜻.

다. 해당 시기에 BJ양머리는 20명의 열혈팬 중 과반수 이상이 BJ를 등지고 떠나버린 시련을 겪고 있었다. 사태의 원인으로 열혈팬들 간 친목질이 문제시 되고 있다.

BJ보이차: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열혈은?

BJ양머리: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이제 다시 새로 들어 오셨죠.

BJ보이차: (양머리 방) 열혈컷이 상당히 높을 텐데..?

BJ샤파: 어떻게 된 건가요?

BJ양머리: 열혈끼리 친했다가 저희끼리 열혈끼리 친목이 되다 보니까.

BJ샤파: 아 친목질 절대 그거 금지시켜야 하거든요.

BJ양머리: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하거든요. BJ 빼고 만나는지 저는 몰랐죠. 그 자리(BJ가 모집한 BJ와 열혈팬 모임 술자리)에서 제가 술을 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죠.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과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꺼지라고 말실수를 했죠. 한 명이 나가니까(BJ가 술자리에서 먼저 집에 가니까) 이제 (열혈팬끼리 서로들) 친하니까 안 좋은 얘기가 막 퍼져서 [...]

BJ샤파: 그래서 단체 이탈하게 된 계기가 그거 하나가 아니라...?

BJ양머리: 인성이 쓰레기니까, 제가...

BJ보이차: 그 외에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탈한 팬들이 왜 방송까지 하면서 그걸 해명을 하고,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냐?

BJ양머리: (BJ방을 떠난 열혈팬이) 자기 방송을 켜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한 방 먹이려고... 그 분들도 인방깡이랑 다 알아요. 제가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를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켜고 일종의 어그로를 끈 거죠. (BJ도 자신의) 방송을 켜서 저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 말은 다 안 믿어주죠.

BJ샤파: 어차피 열혈은 돌고 도는 거니깐요.

진정한 친목과 진정한 적대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닿고 있다. BJ의 ‘안티를 고소하겠다’는 엄포는 ‘친목 집단을 블랙시키겠다’는 경고와 같은 논리 선상에 있다. 이는 어떠한 닫힌 고리를 형성하는 집단에 대한 전쟁 선포이다.



### 3. 집단 분화와 환대-적대

#### 1) 농담관계: 우리와 손님의 구분

이방인에게 말 걸기가 관계를 트는 일이라면 농담 건네기는 이 사람이 나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농담행위는 그것의 적대적 요소가 사람들 사이에 공격으로 의미화하지 않아야 농담일 수 있다. 놀이의 틀에 함께 있지 않는 자에게 농담은 모욕이다(Bateson 2002[1972]; Goffman 1974). 나아가 농담관계는 집단이 분화하는 구조와 맞물린다. 누구에게 농담을 건넬 것인가, 누구와 농담이 오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포함과 배제의 논리를 함축한다.

래드클리프-브라운(Radcliffe-Brown 1940)에 따르면 부계사회에서 외삼촌과 생질(누이동생의 아들) 사이에는 친근한 관계가 성립되어 농담을 주고받는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서도 친근감이 표시되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오히려 정면으로 대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동 경향이 있다. 농담관계와 회피관계를 엮는 교점에는 아들의 아버지 남성과 결혼한 여성(외삼촌의 누이동생)이 있다. 아프리카TV의 맥락에서 그러한 여성의 위치에 있는 자는 친목과 반친목을 동시에 소환하는 구심점인 BJ이다.

생방송 방에서 이미 ‘우리’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자에게 농담은 편하게 오간다. 채팅이 방장인 BJ를 가장 동네북처럼 놀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반면 방 안에 같이 있더라도 “게스트”에 대해서는 일단 친절함과 예의를 갖춘다. 이로써 외부인이 방 안의 관계성에 접속하도록 뗏을 놓고, 그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BJ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 [사례Ⅳ-18] 실시간 길거리 게스트 섭외 상황

당시 BJ는 길거리에서 일반인 여성을 즉흥적으로 인터뷰하고 게스트로 섭외하는 “야방(야외방송)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기 꺼려하거나 잠깐의 인터뷰에는 응하더라도 게스트 출연은 거절했다. 두 시간이 넘도록 섭외가 번번이 좌절되는 가운데 BJ는 시청자를 향해 “매너채팅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대개 인터뷰를 할 때 여성은 BJ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의 채팅방(본방)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채팅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여성이 “더 겁먹을”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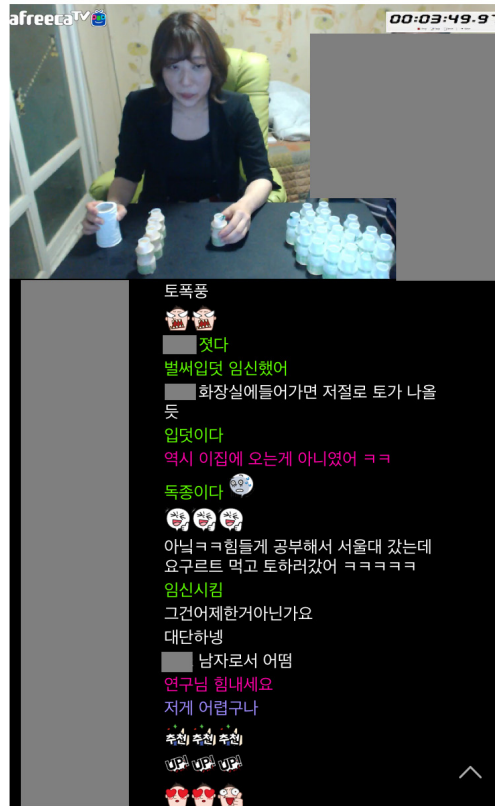
BJ가 그를 게스트로 섭외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자와 BJ는 “한몸”이 되기로 했다. 인터뷰 동안에는 출연 중인 여성을 칭찬하는 말로 일색이다가 여성이 떠나면 채팅은 그녀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중계방에서는 본방 채팅과 BJ의 공모관계를 두고 “본방 알바냐”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중계방은 BJ와 일반인 여성이 주목하지 않는 공간이기에 굳이 외부인에게 환대를 베풀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자가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평소 BJ의 방송에 채팅으로 참여하던 시청자가 일반인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몇 가지 지위의 변환이 발생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글자였던 내가 인간의 몸을 지닌 자로 양태를 변화하는 것은 방 사람의 일원에서 손님으로의 지위 변화와 겹친다. 그리고 외부자에 대한 환대가 농담으로 이어지고, 그 와중에 어떠한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행동이 수행되기까지 한다면 그 손님은 방 안에 포함되는 ‘우리’가 된다.

#### [사례Ⅳ-19]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연구자의 위치 변화

BJ공칠은 자신을 연구해주려 서울대생이 찾아왔다는 점이 방송 콘텐츠로서 신선함을 줄 거라 기대했다. 방송 전 BJ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형식을 곁들여 ‘먹방’을 진행했다. 카메라 앞에 처음 나선 연구자의 걱정과 달리 생방송 초반 채팅은 나에게 칭찬과 호기심 어린 환대를 표해주었고 짓궂은 채팅은 주로 BJ를 향했다(위쪽 그림).

채팅이 BJ와 실시간으로 합작해 내가 다소간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장난을 걸기 시작한 것은 먹방이 끝나고 무슨 방송을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채팅, BJ, 나 사이의 실랑이 끝에 결국 BJ가 평소 방송을 진행하는 개인공간으로 옮겨 “요구르트 푸파” 대결을 펼치기로 했다. 손님으로 등장한 내가 푸파 대결에 응하고 성실히 임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채팅의 농담은 BJ뿐 아니라 나에게도 향하고 있었다(아래쪽 그림). 해당 출연 방송에서뿐 아니라 연구자에게 “카메라 앞에 앉았으면 너도 일단 준(準)BJ”라는 BJ의 말은 ‘우리’ 안 게스트의 입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채팅은 나에게 “즐거웠다,” “BJ와 방송 잘 해줘서 고맙다”며 예의를 갖춘 인사를 했다. 이로써 나의 지위에는 ‘생방송-우리’로부터 다시 ‘손님,’ 방송을 떠나는 ‘외부자’로 위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환대-적대의 원리는 BJ끼리의 합방에서도 나타난다. BJ 간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성공적인 결연관계 형성과 맞물려 있다. 합방이 처음 시작하면 서로 다른 방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례적 환대의 증여와 농담이 오간다. 한 BJ와 BJ팬은 상대 BJ와 그 BJ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자 ‘매너있게’ 행동한다. 물론 일반인 게스트를 대할 때보다는 쉽게 농담이 오가는 편이다. 그럼에도 각 방 사람들에게 ‘내 BJ’를 놀리는 건 괜찮지만 어떤 ‘적정 선’을 지키는 것이 “상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농담과 공격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농담을 가장한 공격이 쇄도하면 합방 후에 BJ가 “파괴당했다”, “악성 가축들은 역시 극혐이다”는 반응이 나온다. 어떤 연유로써 구체적으로 말해지든, 아프리카TV 사회로부터 BJ 간 결합은 결국 “비즈니스”로서 찢어질 것을 요구받는다.

## 질문을 건넬 수 없는 자

### [사례Ⅳ-20]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BJ케빈UP’)의 생방송 데뷔

BJ케빈UP “아 해런님 별풍선 50개 (합장을 하며) 감사합니다. 와, 뭐 어떻게 이거 방송을 할 수가 없네.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자대표 케빈, 신입남캠 첫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영님 일더하기 일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5년 넘게 만에 처음 방송을 시작합니다. 채팅은 이따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강퇴 채금 없고요. 운영자들도.. 다만 이상한 드립 도배, 정치인 비하는 자동 로봇트가 강퇴합니다. (별풍선 인사) 손 병구? 병군가? 병구 고맙다. 프릭스 갓(아프리카TV 사원의 닉네임)!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프릭스 갓이)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지금 철구님과 이설님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만우절 이벤트 아프리카 만우절 이벤트 방송의 하나로 ‘영자 방송을 찾아라’ 영자 중 하나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첫 방송에 주제를 3개 잡아봤어요.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많죠. 오늘 방송하는 취지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화면에 별풍선이 올라오자) 100개 리액션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비제이들 진짜 대단하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인사) 소통! 플랫폼 기능에 대한 부분 운영서비스 정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우리 아프리카 발전 방향에 대한. 이제동(BJ닉네임)! JD제동아 감사하다. 오늘 뭐든 다 대답을 해줄 순 없을 거 같아요. 누구 베비 시켜주세요, 또 뭐 정지 풀

어주세요, 입사지원해요, 킥뷰 주세요, 이런 건 제가 대답 못할 거 같고요. 배당금 회사 경영에 대한 건 대답 못할 거 같고요 [...후략]

위 내용은 아프리카TV 회사 대표가 BJ로서 첫 데뷔한 방송에서 처음에 한 이야기이다. 케빈의 방에는 일순간 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렸다. 여느 BJ 방송처럼 케빈은 별풍선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했고 소통을 하기 위해 방송에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는 채팅을 한줄 한줄 읽으면서 대답해주려는 시도를 했다. 허나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신입남캠”을 자처하는 그의 ‘소통방송’은 일반적인 소통방송에서와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케빈의 생방송은 회사 대표로서 미리 준비해온 내용과 사측의 원리원칙만을 반복하는 일방적인 발화에 가까웠다.

생방송 초반에 채팅은 케빈에게 적극적인 환대의 제스처를 표하고 “리액션해쥬,” “여캠 탐방ㄱ,” “츨춰쥬요”라며 와 평소 BJ가 하는 행동을 과연 회사 대표인 케빈도 할지 호기심을 표했다. 허나 점차 BJ의 발화와 채팅이 따로 노는 상황이 펼쳐졌다. 채팅은 케빈이 말하는 화제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는 소통이 아닌 소음에 그치는 모양이었다. 이에 “소통 좀 해”라든지 “대선 출마하나요,” “진지충,” “설명충,” “교장선생님”이라며 케빈을 비꼬는 시청자도 있었으나 이러한 말 역시 증여되지 못한 채 공중으로 흩어졌다.

어떤 경우든 상호 간 농담이 모욕과 진정한 적대의 의미로 전환되는 순간 의무와 연대의 관계는 깨진다. 허나 농담과 대립하는 관계는 적대가 아닌 회피이다. 아프리카TV 공간 안에는 애초에 어떠한 질문과 농담이 건네질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아프리카TV 운영자이다. 그는 현지에서 ‘우리’도 아니고 ‘손님’도 될 수 없는 외부자이다.

## 2) 팬, 유동층, 가십

BJ 방 사이의 위세경쟁은 BJ들과 BJ팬덤 사이 가십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팬’은 플랫폼 상 규정되듯 별풍선을 1개 이상 선물한 시청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구성원’의 식별 대신, ‘팬’은 어떤 가십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BJ의 편을 드는 자로 규정된다. 가장 이상적으로 지향되는 팬의 매너는 어떠한

가십도 방 안에서 언급하지 않고, 가십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내 입장을 다른 방을 유동해 다니며 전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BJ 입장에서는 가십과 관련된 BJ들끼리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다. 아프리카TV의 “타비(타BJ) 발언 금지” 규정은 이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현실을 이상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 [사례Ⅳ-21] ‘고정’과 ‘유동’의 분별을 둘러싼 갑론을박과 이중구속

BJ홍빈은 아프리카TV의 여러 팬덤 집단 중 유난히 “팬덤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당시에는 홍빈과 다른 BJ와의 불화설로 인해 두 ‘팬덤’ 사이 전쟁과 “이간질”이 들끓고 있었다. 이미 수차례 자신의 입장 표명과 당부의 내용을 담은 공지를 올렸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BJ는 그간 심사숙고했던 바를 방송에 털어놓았다.

BJ: “고정이랑 유동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고정은 내가 숨쉬기만 해도 봐주는 게 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정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자가 사람들에게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방송을 오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고정이라고 생각하고. 유동들은 그냥 들어와서 레전드만 보면 되고 헬파티 나도 되고 BJ가 정지를 당하든 그건 상관없는 [...]”

이에 한 채팅이 “아니 우리 니 못 고치는 거 알거든? 그냥 방송만 재밌으면 민심은 챙긴다”고 말했다. BJ는 순간 그 채팅을 직접 언급하며 질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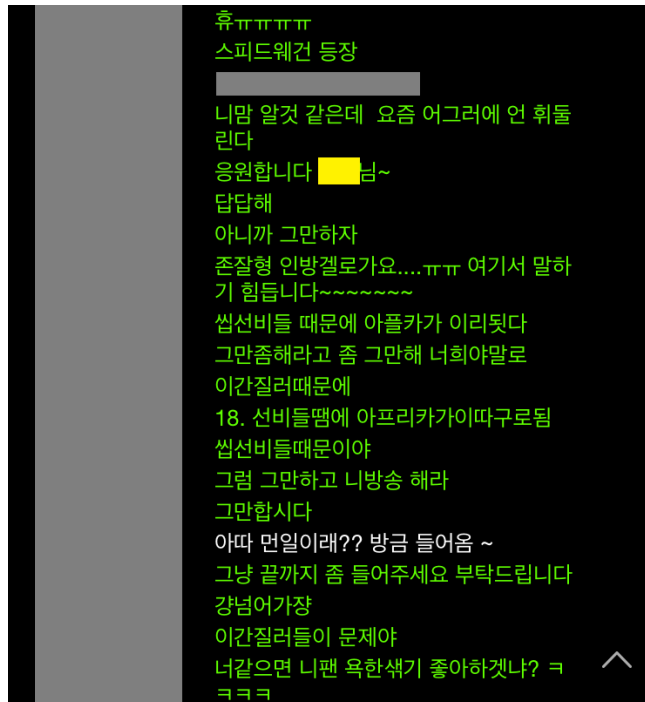
BJ: “그게 유동의 마인드야. 고정은 또 틀려. 내가 그걸 좀 깨달았어.”

그의 말에는 자신의 팬덤을 길들이면서(BJ의 지향에 맞게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팬덤’을 약화시키려는 역설이 담겨 있었다. 이는 사실상 시청자가 BJ에 대해 이도저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이중구속이었다. 방 안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자신이 그의 편이라고 지지하지도 못하겠고 짓궂게 BJ를 투기(鬪技)적으로 대하거나 쓴소리를 내뱉지도 못하겠는 상황에 놓였다. 그저 BJ의 실시간 발언에 대해 사족을 달지 않고 짧은 동조를 표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방법인 듯 보였다.

방 내부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참여자들의 관계는 다른 방과 만났을 때 ‘아군’으로 단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BJ에게 ‘팬덤’은 나에게 유리한 여론의 힘으로 작용

한다. 이른바 ‘물타기’ 수법은 방 안에 있는 개별자의 발언권을 압도하는 군중의 목소리라는 점은 이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BJ를 중심으로 한 팬덤화는 때문에 다른 방(팬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동시에 지양된다. BJ는 팬의 지지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지만, A의 팬인 내가 A방 밖에서도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면 “이간질,” “맘충” 등으로 비하된다.

[그림Ⅳ-5] 팬덤—“이간질러”—“씹선비”



[사례Ⅳ-22] BJ부덩이 올린 방송국 게시글

- 글 제목: [공지] 이간질
- 글 내용: [...] 그냥 방송 오래하며 살고 싶을 뿐이라... 할줄 아는 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를 언급하며 타비제이 분과 이간질하시면 제 팬분들은 상대 비제이를 색안경 끼고 방송 시청을 하기에 뭐든지 안 좋아 보여서 싹다 신고하게 되고 상대 비제이 팬분은 저를 싹 다 안 좋게 보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시청자분들께선 볼 방송이 사라지고 전 백수가 됩니다. 물론 일부러 저 띄어주며 하시는 이 더 많은 걸 알지만 그 중에 진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 하지 말아주세요.

집단 차원에서 가십이 팬덤화와 적극적으로 맞물리는 것은 반친목주의의 집단 재생산 원리를 저해하는 효과를 지닌다. 달리 말해, “팬덤”(의 고착화와 세력화 양상)은 해당 BJ방 외부의 현지인에 대해 선긋기를 함으로써 유동의 존재를 배제시키는 “친목질”로 지적된다. 나아가 합방 중 방 안의 채팅 민심이 어느 한 쪽 BJ에게만 유리해보이면 현지인은 그 BJ가 팬들을 “매수”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BJ는 시청자수-권력을 마냥 믿을 수만 없다. 아프리카TV에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동과 팬의 위상을 동시적으로 지니기에 팬덤과 팬의 맞대응은 거의 항상 미끄러진다. 유동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반목을 촉진시키는 “이간질러,” 즉 가십 전달자이다. 이는 팬덤의 분화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팬덤의 불명확성을 스스로 증명한다.

게시물 검색결과

번호	제목	갤러리	날짜	시간
1232	● 116.69 얼마 매 상남견 <b>검거</b> 된적 있는데니 <b>이간질</b> 달하는거조심 ● ...	이전 인터넷방송	2017.10.04	00:32
1231	염방갈에 <b>검거</b> 된 42.82 C9글타임 염퀴들사이에선 유명하놈인데 <b>이간질</b>	이전 인터넷방송	2017.10.03	20:08
1230	<b>이간질</b> 대놓고하는데 <b>이간질검거</b> 이지알하는새끼를 똘대? - 인터넷방...	이전 인터넷방송	2017.10.03	19:41
1229	■의 광부랄 정채알려준다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10.01	05:26
1228	■가 짚견이인 이유 ㅇㅇ...jpg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30	21:46
1227	무슨 겔에 뉴비들만 가득한거임? 아님 NS를 단독 돌린 거임?? - 인터...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30	15:50
1226	훈훈하게 끝난 방송 특절 BJ 공격하면서 <b>이간질</b> 하는새끼를 정채 - 인...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30	02:36
1225	[팩트] 왜 남가놈이 욕먹고있냐고 ? ㅋㅋㅋㅋㅋ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30	02:28
1224	견이힘을 진짜 ■한테까지 버려지면 끝인데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30	02:21
1223	●할갈봉얼 점있고만 누가 <b>이간질</b> 하냐???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30	01:17
1222	그동안 가족 vs 봉퀴 프레임 <b>이간질</b> 하던거 짚견이였네 - 인터넷방송 ...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22:06
1221	봉신새끼가 누가 가족 염퀴를 찾았나 봉퀴만 찾았지 니들이 <b>이간질</b> 의 ...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19:58
1220	★가족 남견 염퀴들은 개추박자)■이 현재 방송국을 안여는 이유...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19:54
1219	봉퀴가 갈주야 포기해라 남견이들아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19:49
1218	적이 많긴 개줄이나 많아 어차피 봉퀴VS남견 싸움이야 - 인터넷방송 ...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19:46
1217	오늘자 ■ <b>이간질 검거</b> . jpg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03:21
1216	오늘도 위장해서 <b>이간질</b> 하는 짝팔견 한마리 <b>검거</b> 완료 ㅋㅋㅋㅋ - 인터...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9	02:24
1215	아프리카 각 팬덤 비교 해준다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8	08:32
1214	■이가 머리는 xㄴ 갈쓰더라 -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8	06:12
1213	일단 오늘 ■이가 ■와 손잡고 ■한데 맞장 뜬 팩트지 예전 ...	이전 인터넷방송	2017.09.28	04:48

#### [그림Ⅳ-6] “검거”: 팬덤의 사실화와 불명확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역설

아래의 그림은 연구자가 디시인방갤에서 “이간질 검거”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이다.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만 7일 동안 19개 이상의 글이 검색될 만큼 어떠한 팬덤 세력을 추궁하는 것이 현지에 초미의 화두임을 방증한다. BJ팬덤은 ‘-퀴(바퀴벌레의 줄임말),’ ‘-견(개를 뜻하는 말),’ ‘가족’ 등과 같이 비하적으로 명명되는 가운데, 특정 네임드 시청자가 팬닉



에서 드러나는 바와는 다르게 실제 어느 팬덤 세력일 것이라 추측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팬닉을 단 닉네임이라고 해서 예컨대 “NS(팬닉)라고 모두 남견(해당 BJ의 팬덤 명명)이 아니고, C9(팬닉)를 달았다고 가축(해당 BJ의 팬덤 명명)이 아니고, Moo(팬닉) 달았다고 봉퀴(해당 BJ의 팬덤 명명)가 아니며, K(팬닉)를 달았다고 광어전(해당 BJ의 팬덤 명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지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프리카라는 곳은 닉네임을 3초면 바꿀 수 있고 바뀌서 팬인 척 하며 이간질”을 해댄다. 그 목적은 이간질에 괴로워하는 BJ가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고정이 떨어지고 (인기가) 더 아래로 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TV 사람들은 이곳에서 “누가 방송을 해도 살짝 틀어지거나 (분위기가) 망하면 누구든 까이는 곳”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다.

#### 가십의 행위력



[사례Ⅳ-23] “일류들의 전쟁”: 가십 전달자로서 “폭탄”이 된 유동-팬덤

아프리카TV에서 가장 큰 팬덤을 지닌다고 여겨지는 ‘BJㄸㄱ’가 다른 ‘BJㅅ’과 갈등을 빚었고 그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 없이 급하게 방송을 종료했다. 그러자 해당 BJ의 방에 있던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다른 BJ들의 방을 옮겨 다니며 “ㄸㄱㅇ(up,업)”과 “해명하라,” “소신발언” 등의 채팅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어떤 무리의 채팅이 언제까지 누구의 방송을 옮겨다닐지는 애초에 계획된 바 없었으며,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명명된 이 모든 사태는 즉흥적으로 30여분이 넘도록 이어졌다. 이후 이 사건은 현지에 “일류들의 전쟁”이라는 전설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었으며, 누군가 해당 무리의 유동을 추적하여 편집한 유튜브 영상이 올려 아프리카TV 및 인방갤 등지에서 화제가 되었다. 다음의 화면은 그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모습과 각기 다른 BJ 방에서 일관되게 “해명”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도배성 채팅이 일어나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A~J까지의 알파벳은 BJ의 이름이다.

“폭탄 돌리기”는 기존의 “좌표찍기”가 변용된 것이다. ‘좌표찍기’란 한 BJ가 자신이 방송을 종료하면 어떤 BJ 방송으로 가라고 지시하면 그 방에 시청자가 몰려가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시청자수 밀어주기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그 시청자무리가 “폭탄”이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스스로 폭탄이 된 시청자군중은 다른 BJ의 방에 들어가 다짜고짜 “해명하라”며 이슈몰이를 한다. 이로써 해당 방의 BJ와 상관없는 가십을 전파한다.

이 무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발단이 된 초기의 사건에 관한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다. 차라리 가십 그 자체가 행위의 목적으로, “-빠이”의 이름으로 명명된 팬덤 무리는 가십 전달의 매개자가 되는 폭발적인 위력을 발산한다.

아프리카TV에서 가십은 가치를 변환시키는 주술과도 같다(Munn 1977, 1986 참조). 말을 붙여넣음으로써 어떤 사건의 당사자-아닌-자를 당사자로 연루시키며 말(가십의 발단이 된 내용)—팬덤 세력(“-빠이”)—유동자—“폭탄”—“아프리카TV 문화”의 변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십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는 ‘팬덤이라는 것’이 발생적으로 현실화하고 동시에 흩어진다. 다시금 “아프리카는 흐름”이라는 말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V. 감시망과 위반의 자기규정

III장과 IV장을 통해 본 아프리카TV 사회는 위반의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BJ와 시청자의 활동은 연쇄적인 발산과 단속(斷續)만을 거듭하며 어떠한 규정에 수렴되기를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핀 ‘내부’의 흐름들을 단절해놓거나 그에 접혀있는 ‘외부’ 제재와 감시 작용에 관해 주목하고자 한다. 아프리카TV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적 시선과 제재 움직임을 익히 알면서도 집단을 영위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프리카TV는 국가가 낳은 사생아이다. 국가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아버지의 복권을 암시한다. 그런데 과연 사생아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가? 클라스트르의 원시사회론에서 투피-과라니족은 국가의 결핍이 아닌 국가의 부재를 선택한 사회였다. “왜 원시사회에서 국가로 이행하는가?” 혹은 국가적인 “정치권력은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가”(클라스트르 2005: 253)의 질문은 화두가 되지 않았다(채수홍 2005). 그러나 아프리카TV의 민족지적 현실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한다. 아프리카TV 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연구는 서로 다른 체계로 작동하는 ‘사회’와 ‘법’의 관계를 논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 무엇이 문제/규제로 식별되고 그 식별된 문제/규제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현지에서 아프리카TV ‘사회’와 그 외부현실로 인식되는 ‘법’의 관계를 구조적 연결(structural coupling)으로써 접근하고자 한다. 이때 아프리카TV 사회와 관련하는 법은 비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법(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TV에서 불거진 갈등 사건이 민형사상 고소와 처벌로 이어지는 일은 왕왕 발생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이는 (종결 가능한 2자 관계로서) 갈등 당사자 간 사적 영역의 것으로 비가시화 한다. 예컨대 BJ는 터러 자신의 방송국 등을 통해 추후 고소할 시청자채팅과 게시글 자료를 취합 중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 하지만 고소를 준비/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BJ는 이로써 굳이 시청자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와 억울함을 전면적으로 호소, 입증하려 들지 않는다. 법적인 절차는 현지의 활동과 분리되어 ‘은밀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그로가 아프리카TV 문화”라는 말마따나 현지에서 시청자의 극성맞은 언행은 직업인으로서 BJ가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작용한다. 시청자의 관심이 필수적인 BJ에

게 시청자채팅을 문제 삼는 법적인 해결은 도리어 자신에 대한 현지의 반감을 초래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안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요컨대, 아프리카TV에서는 BJ와 시청자 간 결합에 사법 권력을 굳이 혼입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덧붙여 현지인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사이버스페이스가 법적 처벌을 비껴가기 좋은 회색지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sup>60)</sup>

국가권력은 아프리카TV 사회에 운영자를 매개로 굴절되어 들어온다. 운영자는 실시간 인터넷방송 현장에 명령과 복종의 관계성을 가장 가까워서 요구하는 법적인 권력자로 기능한다. 기업 활동으로써 현지인의 활동 근거지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프리카TV 사회 ‘내부의 외부자’라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연구자는 BJ와 시청자의 활동에 대한 회사의 자정 노력이 어떠한 역학 속에서 펼쳐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프리카TV스러운 것’과 ‘비(非)아프리카TV스러운 것’의 구별은 무엇으로 드러나며, 운영자의 관점과 현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어긋나는가? 다음으로 외부 감시·제재 작용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지의 내부분화 양상과 원리 및 그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 1. 자발적 예측의 위협과 틈새

### 1) 운영자의 규제

인터넷방송-채팅에 대한 아프리카TV 회사의 감시와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회사의 “자정(自淨)” 노력이 배태하는 관점과 효과는 현지의 활동에서 어떻게 굴절, 위반되는가? 아프리카TV 회사는 “방송놀이의 신대륙 아프리카”를 탄생시키고 이곳을 관리하는 ‘정부’로 기능한다. 조직 내 다양한 부서 및 사원의 직급과 상관없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회사는 ‘운영자’라는 이름의 동일자로 출현한다.<sup>61)</sup> 운영자는 웹 사이트에 방송과 채팅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사측의 운영 방침을 공지하고 그에 따라 현지인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보상을 주는 유일한 권력이다. 회사의 세부 정

60) 덧붙이자면,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등을 규제하는 규범의 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61) 본 글에서는 ‘아프리카TV 회사’와 ‘운영자’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책은 계속 변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와 “건전,” “재미”의 세 가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의 구체적인 관리 활동에서 방송과 채팅 활동의 ‘자유’와 ‘건전함’은 양극의 대립항으로 위치한다. 아프리카TV 회사는 방송정지, 채팅금지, 닉네임 바꾸기 횟수 제한 등 놀이하는 자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건전함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방송을 둘러싼 비판 담론과 제도의 압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업자로서 회사는 아프리카TV의 생존을 위해 ‘아프리카TV에 건전한 콘텐츠도 있다,’ 나아가 ‘그러한 방송이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놀이 그 자체로서의 목적—‘방송놀이는 재미있다’—은 일관되게 지향하되, 현지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놀이 방식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규제가 엄격해진 분위기와 맞물려 현지에서는 아프리카TV 방송-채팅이 “극혐”이긴 하다는 자각과 동시에 “인터넷방송만의 재미”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반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자꾸 규제할 거면 차라리 TV를 보지 인터넷방송을 왜 보겠냐”며 연구자에게 볼멘소리를 한 시청자는, 2016년 이후 다른 실시간 인터넷방송 플랫폼(유튜브 라이브, 트위치, 카카오TV 등)의 인지도가 높아진 세태를 언급하며 “재미가 없으면 아프리카가 망할 거”이라는 반발감과 위기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과연 현지인에게 아프리카TV에서의 현실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 ‘우리’가 하는 인터넷방송의 무엇이 문제인 걸까? 어떤 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해결의 지점이 있을까?

## 어긋나는 관점

BJ와 시청자에 대한 운영자의 제재는 실시간 활동의 맥락성을 소거한 일반적 정언(定言)으로서 강하게 제시된다.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현지의 혼란스러움이 이러한 점과 맞물려있다고 생각한다. 부분들의 연쇄로 작동하는 위반의 체계에서 운영자의 명령은 그것에 의해 문제 삼아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한다. 외양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보이는 운영자와 현지인의 관점은 종이가 접힌 듯 서로 다른 층위를 유지한 채 포개져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아래의 [사례V-1]과 [사례V-2]는 운영자와 현지인이 각각 ‘아프리카TV 채팅문화’를 문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운영자가 지적하는 타인 및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비방, 비하의 내용을 담은 채팅과 채팅 도배 수법 등은 현지인 스스로가 ‘아프리카TV 문화’를 비판할 때 거론되는 양상과 겹치고 있다. 언뜻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호소하는 운영자의 관점이 자신들의 활동을 비

하하는 현지인의 관점과 일치해 보인다.

#### [사례 V-1] “건전한 채팅 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자 공지

연구자와의 아프리카TV 회사 측 인터뷰에 따르면 회사는 2016년부터 악성 채팅과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다음은 회사가 2016년 8월 아프리카TV 사이트에 게재한 채팅 규제 방침 공지 글이다.

##### [안내] 건전한 채팅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운영자입니다. [...]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비매너 채팅, 근거없는 비방과 비하, 심한 욕설 등으로 다수의 BJ와 선량한 이용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 진행과 이용자끼리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 악성 채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악성 채팅 적발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나 특정인, 혹은 특정 지역 등을 근거 없이 비하, 비방, 비난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하의 채팅
- 불법 도박, 성인 사이트 및 불법 프로그램 홍보
- 인종/지역/성/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 또는 비하, 차별성의 채팅
- 방송과 무관한 내용의 채팅으로 방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도배 채팅
-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 폭력적인 내용의 채팅 [...후략]

#### [사례 V-2] 아프리카TV 현지인의 자조와 비난

디시 인방갤에서도 특정인을 비방하는 채팅, 도배성 채팅, 방송 흐름을 방해하는 채팅 등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예시①: “[...] 솔까 아프리카 채팅문화 극혐인 부분이 많다. 뭐만 하면 물타기 되고, 이간질은 끊이질 않고 요구하는 건 존나 많고 불만도 존나 많음 [...] 비제이는 어그로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백날 어그로 끌어도 그 밀려드는 개청자(‘개+시청자’의 합성어)를 밟고 일어설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글에는 “아프리카 특유의 개청자들 문화가 좇갈긴 해”, “솔직히 개청자와 비제이와 수준을 비교하자면 비제이가 훨어어어얼씬 위지ㅋㅋ 비제이는 대놓고 쌍욕 패드립 날조하지는 않자너” 라는 댓글이 달렸다.

- 예시②: “아 진짜 물타기 하는 개청자 시발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인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시발. (...) (BJ가 하기로 했던) 레펠 못 뛰었을 때 시발 애 하나 죽일 듯이 ‘집 가라, 밥 먹지 마라, 자격이 있냐, 양심 있냐’ 온갖 물타기를 하더니. 시발 진짜 밥 안 먹으니깐 또 ‘삔졌다’고 물타기 하고. 밥 먹으러 나오니까 ‘밥 먹을 자격 있냐’ 물타기 하고. 레펠 못 뛴 걸로 오지게 물타기 한 거 맞으면서 이제 와서 레펠 못 뛴 거는 인정한대. 시발 새끼들, 진짜 토악질 나온다 너네”

운영자는 현지인의 투기적 언행을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즐거운 아프리카 TV”에 반하는 “악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재현하고 그 부분들을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방송의 ‘건전함’을 조성한다. 나아가 아프리카TV 사측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사례Ⅴ-3])에서 ‘악성채팅’이 아프리카TV 사업의 성장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화”된 “한몫”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어떠한 현지의 수행들을 척결해야 할 ‘동일’ 대상에 등치시키는 운영자의 관점에서 그것은 “일베”와 “알바” 세력으로 명명되었고, 비록 현지인 사이에서도 악명 높지만 “아프리카TV 민심의 창구”라 인정받는 “인방깅” 또한 운영자의 시선에서는 “일베”와 같은 선상에서 배척해야 할 적이었다.

#### [사례Ⅴ-3] 운영자의 관점: ‘동일’한 척결 대상인 ‘악성 채팅’, ‘알바’, ‘일베’, ‘인방깅’

“[...] 개인인 척 하지만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고도화 돼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채팅이 괜히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은 알바라고 보고 있어요 알바. 굉장히 그게 뭐 패턴화 돼있고. 항상 애네들 전략이 바뀌어요. 근데 배드 채팅을 하는 이 일베충들이 한몫처럼 움직이거든요. 다른 아이디, 다른 닉네임인데. 아프리카TV를 계속 지저분하고 양아치스럽고 이런 이미지로 고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배드 채팅과의 전쟁도 작년부터 본격화됐는데 끝이 없어요. 중계방은 거의 일베충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방송내

용이랑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도배를 하는. 일베충들 특유의 그게 있어요. ‘나 군대 어디 나왔다 지금부터 질문 받는다’ (...) 뭐 이런 어그로. 그러면 다른 애들이 순진한 유저인척 하면서 막 댓글 달고. 그러면 방송내용하고 무관하게 채팅창이 도배가 되면. [...] 저런 애들 좀 잡아달라고 운영자들한테 하소연하고. 근데 예전에는 대놓고 섹드립, 패드립, 일베드립을 하던 애들이 막 강퇴를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또 교묘하게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 인방깡은 사실은 주로 저희들이 일베충들, 알바들이라고 사실 보고 있는 조직화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개네들이 대부분 또 글도 올리고 여론도 주도하고 있을 것이고.”

이처럼 운영자가 아프리카TV 채팅을 문제 삼는 인식의 경로는 현지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언행을 “극혐”이라 비하해 포착하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의 IV장에서 다뤘던 바, 현지에서 사회의 적(敵)은 ‘안티(반목)’ 세력으로 이는 ‘악플’과 같지 않다. 적대와 구별되는 범주로서 ‘악플/악성채팅’은 반친목주의의 집단재생산 원리로써 작동하는 투기적인 놀이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는 오히려 참여자간 친목이 안티의 적대 못지않은 사회의 위협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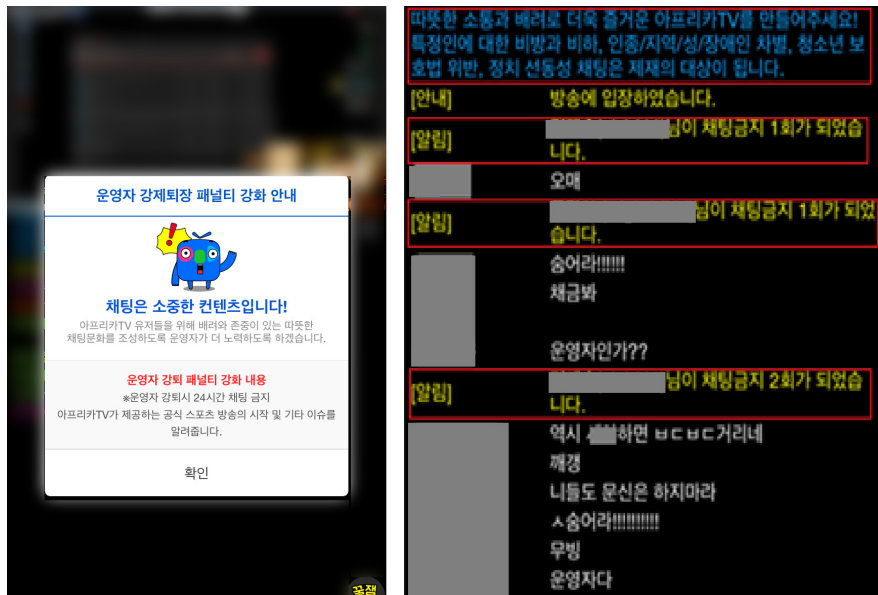
반면, 운영자의 관점은 반친목주의를 의식적으로 선언하는 현지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는다. 반친목주의적 실천은 반목과 동일한 위협 요소로 포괄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운영자에게 실시간 인터넷방송의 맥락성—BJ와 시청자가 실시간 연행하는 연쇄적인 행위의 단속(斷續)—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운영자는 생방송 중 “아프리카TV의 흐름”을 끊어놓는 개입을 마다하지 않으며, 회사의 의도에 맞지 않는 현지인의 존재를 과감히 삭제해간다.

#### [그림 V-1] 운영자의 강제퇴장과 채팅금지

-좌측: 강제퇴장 된 현지인은 그 즉시 방 안의 자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곧 자신의 존재가 (일시적으로라도) 제거당하는 것이다.

-우측: 방 안에 있던 시청자에 대한 채팅금지가 잇따라 발생하며 운영자의 출현이 의심되자, 채팅방에서는 일시에 그간의 화제가 중단되었고 “깨갱”, “숨어라”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현지인은 규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운영자의 처사를 비꼬고 그에 적극적으로 반발한다. 스스로 제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규제(기준)의 허점을 정면반박하며 반권력의 지향을 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왜 강퇴 당함?’이라고 (채팅을) 한 번 쳤다가 어그로성 채팅”이라는 사유로 운영자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했다는 한 시청자는 몹시 억울해하며, 이후 어느 방에서든 강제퇴장의 사유를 묻는 채팅이 눈에 띄면 곧바로 운영자에게 신고한다고 했다. “(운영자가) 규제를 할 거면 다 규제를 하든지, 안 할 거면 다 안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신고라는 역설적인 수법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규제의 부당함을 표출하는 것이다. 인방겔과 방송국게시판에서는 유사한 언행을 한 BJ들 사이 징계 여부와 정도가 다른 양상을 문제 삼아 운영자가 “갑질,” “쫓목질”<sup>62)</sup>을 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곤 한다(김수진 2017: 111-112).

## 대(對)운영자 전쟁

급기야 2018년 1월에는 운영자에 대항한 ‘전쟁’이 발발했다. 운영자가 생방송

62) ‘파트너BJ 등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인기있는 BJ를 운영자가 편애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쫓목질”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들이 회사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은, 현지인의 모든 활동과 증여가 종국에 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

중 제재를 가하자 해당 방송의 BJ와 1만 명 넘는 시청자군중이 합심해 평소 품어온 반(反)운영자 정서를 격렬히 분출한 것이다. 이하의 내용은 연구자가 당시 현장의 흐름을 지면에 옮겨온 것이다. 현지에서조차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단일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프리카TV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BJ용희는 생방송 중 시청자채팅으로부터 ‘음란마귀 테스트’<sup>63)</sup>와 한 사기업 광고 영상을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두 영상은 이미 여러 BJ들이 방송에서 다뤄져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있던 것들로, 사람들은 영상의 내용보다 그를 본 BJ의 웃긴 반응이 나오길 고대하는 눈치였다. 방 안의 누구도 이것이 전쟁의 발단이 될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 [사례V-4] 대(對)운영자 “전쟁”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BJ: 음란마귀 테스트 가자고? 어차피 근데 이건 야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하자 사람 성기처럼 보이는 썸네일이 화면에 보였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엄지손가락이고. (이때 BJ에게 운영자의 경고 메시지가 왔다.) 뭐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봐봐 (경고) 뜨잖아 [...] (‘음란마귀 테스트’를 실패하자 채팅에서는 특정 기업의 광고를 보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BJ가 유튜브에서 해당 광고를 검색한 뒤) 저 운영자님 이거 봐도 되나요? [...]

운영자<sup>64)</sup>: 편집영상에도 고유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송출이(...)

운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답변이 오자 BJ는 ‘그럼 TV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눈을 가려야 하나’며 우회적으로 반발했다. 시청자채팅은 모처럼 BJ가 “조리있게” 말한대며 그를 응원하는 동시에 “다른 BJ는 이미 (자신의 생방송 송출화면으로 그 광고를) 다 봤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항의를 잇달아 제기했다. 동시간대 벌어진 상황을 둘러싸고 운영자는 저작권법상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문제 삼은 데 반해, 현지의 관점은 운영자의 규제 자

63) 야한 사진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사진/영상 모음.

64) ‘운영자: ’ 뒤에 이어지는 운영자의 말은 모두 매니저채팅창에 올라왔던 내용이다. 아프리카TV에서 운영자는 생방송 중 BJ나 BJ방 매니저에게 권고 사항을 지시할 때 일반 시청자에게는 접근 권한이 없는 매니저채팅창을 이용한다. 이 사례의 경우 처음에는 BJ가 운영자의 지시 내용을 소리내어 읽다가, 이후 시청자의 요구가 빗발치자 아예 매니저채팅창을 생방송 송출화면에 보이도록 띄워 놓았었다.

체를 문제로 식별하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 BJ는 아프리카TV 내 ‘타비 언급 금지’ 규정을 신경쓰며 시청자군중을 달래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점에 운영자가 BJ에게 앞서 이미 한 차례 주의를 줬던 ‘음란마귀 테스트’ 영상 썸네일을 다시금 언급해왔다. 방 사람들 입장에선 운영자가 불난 데 부채질을 한 셈이었다. 채팅에서는 실제 성기가 아닌 화면을 재차 문제 삼는 점을 꼬집어 “운영자 (음란마귀 테스트에) 속는 거 보소,” “운영자 음란마귀 인증하네,” “운영자 수준 보인다,” “운영자 씹선비” 등의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쇄도했다.

운영자: (‘음란마귀 테스트’ 썸네일 관련 경고) 허위신고를 당하지 않게 (...)

BJ: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운영자님 사실, 아니 진짜 저도 얘기를 좀 하면, 나처럼 진짜로 선비인 사람 없어. 나 어떤 정도냐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는데 (게임 화면 상 공간에) 여자화장실이 있어. 나 거기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타비제이 얘기하지 마세요.

전자여성<sup>65)</sup>: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너(BJ)한테만 너무 그러는 거 나만 느끼냐?

BJ: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 잘못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 있다잖아. 그걸 왜하냐, 그럼 바로 안 해야지.

전자여성: 아니 근데 공평하지가 않잖아.

BJ: 아니 공평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불공평한 처사가) 괜찮아요. 내가 괜찮으면 돼.

전자여성: 정확한 기준이 없다. 스브(육설) 영자들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게 말이나 방구냐?

BJ는 시청자의 반발에 미소를 머금으면서도, 직접적인 발화에서는 시청자와 운영자 사이를 중재하는 입장을 취하려/취하는 척 했다. 당시 BJ 입장에선 자신의 편에선 시청자 민심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터였다. 이참에 그는 BJ 본인이 아닌 시청자를 보호하는 논거를 빌어 조심스레 운영자의 규제 활동을 비판하

---

65) 이 사례에서 등장하는 ‘전자여성’은 동일인(동일 닉네임/ID)의 채팅이 아니다. 다만 당시 방 안에서 전자여성을 통해 발화하는 별풍선 증여자의 개별 이름은 유의미하게 인식되지 않았기에, 편의 상 본 글에서 연구자도 시청자 닉네임 구분을 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둔다.

기 시작했다. 운영자에 대한 불만 토로와 시청자 민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였다.

BJ: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영자가)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다른 건 모르는데 저는 제가 피해보는 건 괜찮는데 시청자들이 피해보는 건 싫어요. 그래서 강퇴만 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축구 경기 중계하는데 (어떤 시청자가) '호날두 예전보다 못해졌다 ㅇㅈ?' 이랬는데 그 사람 강퇴 당했거든요. 저는 제가 피해보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광고 영상 송출) 한다면 제가 저작권 어겨서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 아니라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도 운영자님들 올 때마다 뭐 "운열용 ('운영자 얼굴이 BJ용희처럼 못생겼다'는 조롱의 줄임말)" 이런 거 좀 자제해주시고.

전자여성: 니 얼굴이 어때서 너는 우리한테 원빈이고 현빈이야 칭찬이라고 운열용은.

BJ: 하 무슨 개소리하고 있네. 원빈이고 현빈이고 그래가지고 내 얼굴(사진) 합성 그렇게 하고 다니냐 새끼야? 어? 얼굴이 원빈이고 현빈인데 김정은 하고 (나를) 합성하냐?

전자여성: (중국어로 표기한 채팅의 발음) 떡관종 떡관종 떡관종이야 떡관종 떡관종 떡관종 (...)

BJ: 아 이거 왠지 방금 그런 느낌이였다. 선생님한테 존나 혼나고 있는데 웃음 참기하는 느낌이였다.

운영자에 대항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방 안의 유희적인 분위기는 공존했다. 그러한 채 '흐름'은 계속 되었다.

전자여성: 그리고 허위신고 한 놈이 잘못된 거지 허위신고 당할 일을 하지 말란다. 원 개소리냐 개박치네.

BJ: 그건 좀 아쉽긴 하네. 나 하마터면 진짜로 정지당할 뻔 했네 (...)

전자여성: 근데 광고도 못 보면 도대체 무슨 영상을 볼 수 있음?

BJ: 이게 좀 애매하다 진짜로.

전자여성: 운영자도 개인방송으로 캠 켜게 시키면 아마 강퇴난사 못할 걸.

BJ: 어후 왜 이렇게 냉정하냐, 너희들 진짜로. 내 팬들은 내가 뭐 잘못된

거 하면 그 사람 죽일라고 그래 진짜로.

전자여성: 기준도 모르는 모니터링 알바들 좀 찢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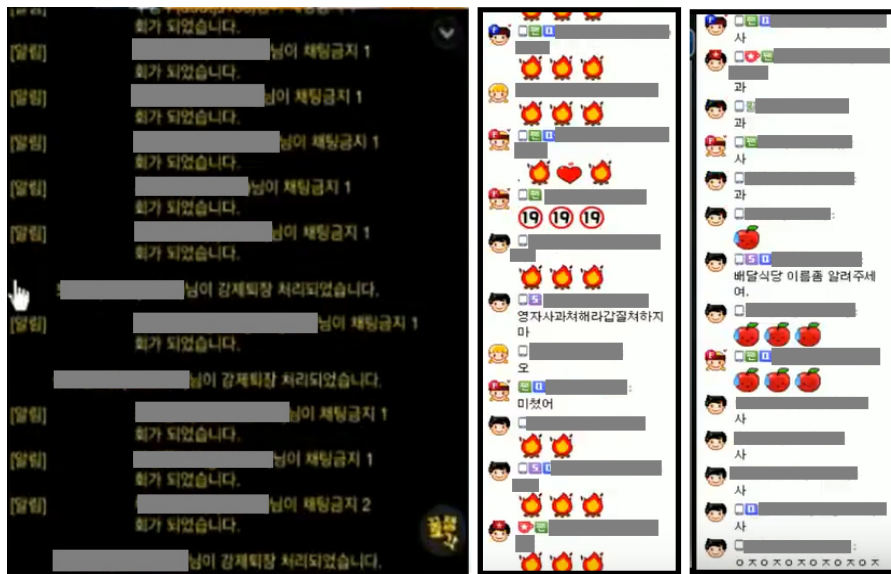
BJ: (아프리카TV) 팬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BJ를 죽여요. 그리고 BJ가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을 죽여버려 진짜로. [...]

전자여성: BJ 전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못할 거면 잡지를 말든지. 솔직히 메이저 BJ 중에 애만큼 선비인 애가 어딴다고 ㅋㅋ

전자여성: BJ 까는 건 우리만 가능해 그게 용박이들 마음이지

채팅: “ㅇㅈ,” “ㅋㅋㅋㅋㅋ,” “BJ (속으로) 좋아하고 있음,” “팩폭 오지네,” “열사들 보소♡,” “니(BJ)가 하고픈 말 해주자나” 등

한편, 본방 시청자가 운영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중계방에서는 운영자에 의한 시청자 채팅금지와 강제퇴장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중계방 또 학살,” “중계방 총기 난사 중,” “중계방 가보자”는 본방 채팅 및 중계방 상황을 캡처해 올린 BJ의 방송국 게시물(아래의 맨 좌측 그림)을 통해 실시간 전파되었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채팅방에서는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상징하는 불꽃 모양 이모티콘이 도배되기 시작했고, 이후 운영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사,” “과” 폭동이 30여분 이상 지속되었다. 결국 BJ는 운영자에게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폭동’의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물론 이 동안에도 ‘사과 폭동’은 계속됐다.) BJ가 운을 띄우자 비

로소 운영자로부터 사태에 대한 답변이 왔다. BJ는 시청자의 거센 요구에 따라 매니저 채팅창을 화면에 보이도록 띄웠다.

운영자: 썸네일 부분에 있어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음란물 송출로 어그로가 끌릴 수 있어 유의해달라는 가이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가이드 설명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또한 비저작권 영상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타BJ들 또한 모두 공통적인 위반 사항으로 라이브에서 경고 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후속으로 경고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BJ: 아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아프리카BJ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다.)

운영자: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드시피 원작자의 허락없이 송출하였을 때에는 BJ님께서 피해를 볼 수 있어 안내를 드렸던 점이고요. 중계방 강퇴에 대한 안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방 강제퇴장은 유저가 강제퇴장 시점으로 강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입력한 전체 채팅 내역을 확인하고 강제퇴장 처리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채팅: “?”, “로그(강퇴당한 유저의 전체 채팅 기록의 증거)를 보여라,” “너(BJ)는 닥쳐라,” “(운영자가) 사과를 안 하죠,” “전자녀 커라” 등

BJ: 전체 채팅 내역이요? 그럼 그때 강퇴 해야지 그걸 왜 나중에 강퇴를 해요? [...]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전에 ‘xx 좇갈네’ 했는데 1시간 뒤에 다른 방송 보고 있다가 ‘오늘 축구 누가 이기냐’ 이렇게 하다가 강퇴 당했어. 그러면 ‘축구 누가 이기냐’에서 강퇴 당한 게 아니라 아까 그 1시간 전에 ‘xx 좇갈네’ 때문에 강퇴 당한 거구나. 그 말이네. 전자누나 안 켜는 이유가 여러분들 욕하니까 그래요. 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서로 알아보자는 거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싶고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니까 욕은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해보고 [...] 그러면 (전자여성) 켜게요. 욕하면 바로 강퇴합니다 진짜.

전자여성: 그냥 ‘잘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하면 되지 항상 갑에 있다는 생각하니까 저런 말(사과) 못하죠. 형님 맞다니깐요.

[...]

전자여성: 무슨 시간차 공격하냐? 배구해? 김연경(배구선수)이야? 아주 잘났

어

전자여성: 근데 말이 좀 이상하다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줘서 사과를 요한 게 아니라 갑질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요한 거다. 똑바로 다시 사과해라 그리고 니(BJ)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나?

운영자: 또한 난사로 보일 수 있는 강제퇴장 건은 채팅 신고에 접수되어 악성채팅 유무를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니 막무가내 강퇴로 보일 수 있습니다.

BJ: 운영자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니까 당연히 일베 이런 건 강퇴해야죠. 패드립이나. 잠깐만 전자녀 끝게요. [...] 강퇴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아프리카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계속 강퇴를 당하게 되면 아프리카 유저가 기분 나쁘면 ‘어 씨발 아프리카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악성채팅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채팅에 대해서 자유적인 면이 사라진다면 이게 과연 아프리카가 맞을지. 아프리카(Afreeca) 중간에 들어있는 A 뒤에 (...) ‘free’가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가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외부에서 제약,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럼 정확히 확실히 정해서 [...] BJ가 없다고 아프리카가 망하지는 않는데 시청자가 없으면 아프리카가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BJ의 말에 한동안 운영자의 답이 없자 다시 채팅방에는 '사/과'가 도배되었다. 시청자가 원한 것은 해명이 아닌 사과라는 단호한 의사표현이었다. 상황을 매듭 지으려는 BJ의 중재가 이어졌고, 수분 뒤 운영자 채팅이 다시 올라왔다.

운영자: 네네 BJ님 말씀 또한 맞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채팅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J: 아니 (운영자가 앞에서) 사과했잖아. 니네는 뭐 이렇게 계속 그러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들은 ‘죄송합니다’ 그 말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운영자: 방송 진행에 있어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J: 운영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죄송합니다. 진짜로. (...) 아니 이제 와서 뭘 또 ‘이제 꺼져(시청자가 운영자를 향해 친 채팅)’야! 와 대단하다 대

단해. 재밌는 거 알려줄까? 한 시간 동안 했어, 한 시간 동안, (채팅 도  
배로) 사과 사과를.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로.

전자여성: 자유민주주의는 살아있다. [...]

운영자의 거듭된 사과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자 본방 사람들은 태극기 이모티콘  
을 도배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편 중계방에서는 묘비 모양 이모티콘이 잇  
따라 올라오며 운영자에 의해 “학살” 당했던 자들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었다.

BJ: 그 와중에 내가 쓰레기인 거 하나 말해줄까? 내가 두 개 말할게. 뭐냐  
면. 이게 전자누나가 잘 터지니까 (전자여성으로 채팅이 읽히는 별풍선  
선물 최소 개수를) 30개로 바꿀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월초 수금’을  
떠올리며) 오늘이 2월 1일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이른바 이 ‘대(對)운영자 전쟁’은 권력에 대항하는 BJ와 시청자의 힘을 재확인 한  
이례적이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다른 몇몇 인기 BJ들 또한 갑질이라  
느껴진 운영자의 처사를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잇따르기도 했다.  
동시에 현지에서는 시청자수-권력을 지닌 인기 BJ만이 이러한 반발을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씁쓸함이 표출되었다. 저항의 이면에 깔려있는 현지의 냉소인 것일까?

사실 운영자에 맞서 ‘민심’이 이끌어낸 승리는 찰나의 것에 불과해 보인다. 민심  
의 반란으로써 과연 운영자의 관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지는 아직 의문스럽  
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인이 운영자에 대해 ‘영구불변의 법으로 기능하라’고 강조하  
는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그러한 주장은 한편으로 운영자가 행사하는 일반  
적 제재의 실질적인 비밀관성을 날카롭게 폭로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운영자와 시청  
자가 팽팽히 맞서 서로 다르게 출발한 관점을 거울처럼 반사해내고 있음을 드러낸  
다.

## 금기에 담긴 비밀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점은 불과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아프리카TV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 제재 받았던 언행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억됨으  
로써 현지에는 금기가 규정되고 있다. 앞서 운영자의 규제가 현지인의 저항과 부딪  
히는 어긋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효과적인 규제의 작용’에 담긴 보다 내밀한 비밀  
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운영자의 규제는 금기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초기의 의도



나 기대와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 아프리카TV 사람들의 활동은 감시망의 허점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교묘히 이뤄지고 있다.

제재를 당하는 일이 곧 이곳에서 (한시적) 사망 선고임을 알고 있는 현지인은 과거 매스컴에 의해 큰 비난을 사고 규제 당했던 언행을 기피한다. 보다 정확히 말해, 그러한 언행의 직접적인 외양만을 살짝 바꿔 수행한다. 아주 단순한 예로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선정적인 언어로 낙인 된 “섹스”를 말할 수 없어 “잭스”라 말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장애인 인권 단체와 언론의 못매를 받았던 “병신”이라는 비속어를 “병진”으로 바꿔 말하는 식이다. 별풍선을 쏘면 증여자의 첫 채팅을 음성으로 대신 읽어주는 ‘전자여성’의 기능을 전용해 자동적으로 채팅 금지에 걸리지 않게끔 외국어로 채팅을 치고 들리는 발음은 한국어 욕설인 수법을 개발해 히히덕거리기도 한다. 물론 운영자는 다른 현지인의 신고 등을 근거로 이 ‘새로운’ 양상을 뒤쫓아 척결하는 데 열중한다.

한편, 외부의 제재와 맞물려 현지인은 그 양상만 떼어놓고 봤을 때 ‘과연 그토록 문제적일까’ 싶을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금기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에도 “아프리카TV 대통령”으로서 공고한 위세를 인정받는 BJ철구의 “레전드였던” 리액션은 이제 전설이라는 말마따나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 **[사례Ⅴ-5] 철구의 ‘간장 붓기’ 방송이 ‘영구정지’에 이르기까지 과정**

2014년 4월, 철구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 팬을 자처하는 중학생들이 ‘학교도 자퇴하고 BJ가 되고 싶다’며 그의 집을 찾아왔다. 철구는 이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음식 빨리 먹기 게임을 벌였다. 내기의 조건은, 학생들이 지면 간장 뿌리기 벌칙을 받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었고, BJ가 지면 BJ가 간장을 맞고 학생들에게 상금을 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게임에서 학생들이 결국 패했고, BJ는 약속대로 간장 한 대야를 학생들에게 부었다. 실시간 채팅에서는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웃음 소리(“ㅋㅋㅋㅋ”)가 쇄도하고 있었다.

해당 방송은 이튿날 공중파 뉴스를 통해 이슈화됐다. 언론 보도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중학생 두 명에게 BJ가 욕설을 하며 간장 한 대야를 부었고, 그 중 한 학생이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시늉을 한 장면이 전파되었다. 인터넷방송의 선정성과 가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해당 사건의 기사화는 이내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철구는 ‘그러한 대결을 펼친 것 자체는 잘못했지만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며 학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철구의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학생이 직접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미리 간장을 맞을 것을 대비해 BJ의 옷을 빌려 입은 상황이었고, 방송이 끝난 뒤 샤워를 하고 BJ가 자신들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며 당시 생방송의 구체적인 맥락을 누락시킨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BJ와 학생들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든 철구의 방송에서 드러난 행동은 비판의 소지가 있었고, 관련 뉴스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란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아프리카TV는 철구를 '영구정지' 시켰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회사가 영구정지 당한 BJ들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사과데이 특별사면'을 행했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철구는 다시 아프리카TV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의 복귀 첫 방송에는 순식간에 5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려들었다. 또다시 정지당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맞물려, '간장 리액션'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붓는 행동일지라도) "요즘 아프리카TV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 되었다.<sup>66)</sup>

이를 둘러싸고 인터넷게시판에서는 본인이 자처해 간장을 붓는 행위라면 '이상하긴 하나 굳이 욕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입장과 '방송에서의 선정적인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사실, 어떤 행동을 선정적이라고 판명하는 기준을 절대적으로 합의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으로 인해 운영자의 규제는 '아프리카TV 신대륙'에 '법'으로 위치한다. 자신들이 웃고 즐겼던 생방송이 '언론 보도→사회적인 논란과 이슈화→아프리카TV 운영자에 의한 방송정지 징계'에 이르는 과정을 목격한 현지인은 이후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막론하고 운영자가 또다시 제재하기도 전에) 스스로 그 행동을 금기시한다.

이처럼 외부 감시와 제재는 '그러한 양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삼가야한다'는 기준을 현지에 그려넣음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하는 듯 보인다. 허나 역설적이게도, 과거 "레전드"로 평가되던 언행이 점차 금기시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전설적인' 언행은 '성스러운' 전형과 같은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철구의 영구정지 계기

66) 철구(2015: 20-22)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한 내용이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kind=image&progCode=1000836100669100000>,

<http://www.afreecano.com/391>,

[https://namu.wiki/w/%EC%B2%A0%EA%B5%AC\(BJ\)/%EC%8B%9C%EC%A6%8C%EB%B3%84%20%ED%96%89%EB%B3%B4#s-1.1](https://namu.wiki/w/%EC%B2%A0%EA%B5%AC(BJ)/%EC%8B%9C%EC%A6%8C%EB%B3%84%20%ED%96%89%EB%B3%B4#s-1.1)

가 됐던 “간장 미션”은 여전히 통과의례처럼 수행되고 있는데, 다만 예전과 동일한 양상(간장을 몸에 끼얹거나 온 방에 뿌려대기)을 취하지 않을 뿐이다. 그 대신 종이 컵에 간장 한 컵을 따라 마시기 등으로 현지인은 금기시되는 행동의 외양을 변주한다. 요컨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의 의식(意識)은 여전히 작동하는 ‘그러한 행동이 지시하는 무엇’과 다른 층위에서 겹쳐있음을 알 수 있다.

## 2) 보상체제의 강화

아프리카TV 회사는 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sup>67)</sup>가 불거지기 전부터도 회사는 부분적인 사실을 들며 회사의 수익구조가 비단 사업자의 영리에만 충실하지 않음을 부각시켜 왔다. 별풍선 제도를 BJ와 사업자가 상생하는 “공유경제”라 설명하고, 별풍선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은 “나쁜 BJ 문제가 아니라 과몰입 유저(시청자)”의 문제라며 회사의 영리활동과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 담론과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회사는 자신의 ‘선행’과 ‘개선’ 의지를 더욱 입증해야 할 압박을 느끼고 있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은 운영자가 BJ와 시청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최근 들어 “건전한 방송”을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아프리카TV에서는 보상의 다변화와 개별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BJ와 시청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다 선명히 제시하고, 참여자 간 경쟁적, 투기적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비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사이트를 개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자는 2016년 말부터 ‘플랫폼 개혁’에 관해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 2017년에 들어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별풍선 선물의 혜택을 추가 설명하고, BJ 랭킹 제도를 약화하는 대신 더 많은 BJ에게 메달을 부여하고 있다.

### [사례 V-6] 아프리카TV 웹사이트 별풍선 소개글 변화 비교

과거에 비해 바뀐 별풍선 소개에서는 별풍선을 선물한 시청자가 누리는

67) 별풍선 관련 범죄 사건과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폭력성을 고발하는 기사의 반복적인 등장, 2016년 10월 유명BJ들의 폭로와 잇단 이탈 선언으로 불거진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2017년 10월 방통위 국정감사, 국회 인터넷방송 규제 법안 발의 등.

혜택이 무엇인지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2016년 별풍선 소개〉

참신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하세요**. 별풍선을 많이 선물 받은 BJ는 아프리카TV의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 구매한 별풍선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 별풍선 선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2017년 별풍선 소개〉

별풍선이란?

- BJ 팬클럽 가입! : 별풍선을 선물하면 선물한 BJ의 팬클럽에 가입됩니다. 팬클럽은 **팬클럽 공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고, 팬클럽만을 위한 특별한 글자색으로 채팅이 돋보입니다.
- BJ에게 도움! : 선물받은 BJ는 모인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실제 수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 열혈팬 FULL방 입장! : 별풍선을 많이 선물한 열혈팬은 해당 BJ의 방송이 FULL이어도 **킥뷰없이 입장**가능합니다.
- 방송 다시보기 영구보관! : 방송 다시보기에 별풍선 10개 선물하면 조회수에 상관없이 해당 다시보기가 영구보관됩니다.
- 라이브 방송 입장 시 동영상 선물자 입장 안내 : 동영상에 별풍선을 선물하면 해당 BJ의 라이브 방송 입장 시 동영상에 선물한 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애니메이션 효과 제공! : 동영상에 별풍선을 많이 선물한 TOP3팬은 다시보기 영상 시청 시 별풍선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별풍선 구매 안내

구매한 별풍선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 입니다.

선물한 별풍선은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별풍선 보유/구매/선물 내역은 내 별풍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풍선 환전 신청은 내 별풍선에서 가능합니다. [...]

별풍선 혜택을 늘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의 개별화를 강화하는 측면이다. 더 많은 BJ에게 메달을 줌으로써 선물받은 별풍선 환전 수수료 비율을 낮추고, 방송 홍보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

다. 동시에 이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BJ의 수를 늘리고, ‘남시’, ‘교육’, ‘테크’, ‘펫방’ 등 새로운 콘텐츠 방송을 시도하는 BJ에게 콘텐츠에 맞춘 메달을 새로 신설해 부여함으로써 개별 BJ에 대한 보상을 다변화하는 것과 맞물리고 있다. 반면, BJ가 가장 많은 수수료 절감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BJ를 받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보상의 다변화에 따른 평준화 양상이 BJ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회사 측 설명과 묘하게 일치한다.

현지인은 자신(의 BJ)도 메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희망을 품으며, 메달을 획득할 명분이 될 만한 방송 내용을 적극적으로 논의에서 가시화하곤 한다. 현지인에게 메달 수여의 명분은 대외적으로 건전해 보이는 방송을 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 **[사례Ⅴ-7] 파트너BJ 메달을 받게 된 BJ의 채팅방**

BJ렐라는 최근 2년여 간 전체 랭킹과 보이는 라디오 랭킹에서 거의 항상 5위권 안에 들어온 ‘메이저BJ’이다. 그가 공고한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BJ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남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여성 게스트 방송’ 진행이 있었다. 렐라는 인기가 없었던 방송 초기 때부터 매일 새로운 여성 게스트를 하루에 많으면 서너 명씩 연달아 바뀌가며 초청하는 방송을 했다. 그는 여성이 성적인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이른바 “젯팔이” 방송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으로 인기를 얻었다.

허나, 메이저BJ의 반열에 오른 뒤 더 큰 성장을 꿈꿨던 렐라는 다른 콘텐츠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렐라는 아프리카TV에 BJ끼리 가상 연애를 하는 ‘우결’ 방송을 유행시켰고, 가창력이 좋은 BJ들을 초청해 콘테스트를 벌이는 방송을 몇 개월마다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올 여름 드디어 그가 파트너BJ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의 방에서는 여태까지 BJ가 해온 노력을 칭찬하는 채팅이 쇄도했다. 요새 “베비(베스트BJ 메달)는 막 퍼주”지만 “파트너 따기는 어려워짐”을 언급하며 그의 성과를 추대하고, 렐라가 오래전부터 파트너BJ 메달을 받을만했었다는 칭찬과 함께 그의 ‘가요 콘텐츠’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예컨대 렐라의 ‘가요 콘텐츠’를 들어 “렐라가 좋은 방송 많이 했지”, 가요 콘텐츠에 나왔던 BJ들이 이번에 “베비 다 땀다” 등의 말이 적극적으로 등장

하고 있었다. 시청자에게 켈라의 여성 게스트 초청 방송은 파트너BJ가 되고 난 현재까지도 그의 강점인 콘텐츠로서 기대, 인정받고 있지만, 파트너 BJ 메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때만큼은 묘하게도 ‘여성 게스트 방송’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메달을 신청하고 아직 회사의 발표를 고대하는 다른 BJ의 방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BJ와 시청자는 회사의 보상을 받는 문제와 관련할 때, 회사의 가이드라인과 BJ의 방송이 부합한다는 측면을 팬스레 역설하곤 한다. 방안의 사람들이 운영자가 그 생방송-채팅을 보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편, BJ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인 ‘랭킹 시스템’은 이전에 비해 비가시화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 변화된 랭킹 시스템의 내용을 살펴보자. 사이트 공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랭킹 카테고리는 7종에서 15종으로 증가했고, 매일 오전 10시경에 갱신되던 랭킹 주기가 매주 월요일 주 1회로 바뀌었다. 해당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한 전적이 없는 시청자가 별풍선 선물을 해야 산정되는 팬클럽 지수는 산정 내용이 빠졌고 대신 BJ 방송을 즐겨찾기 추가하는 애청자 지수를 신설했다. 무엇보다 모든 카테고리를 포괄한 전체 랭킹 및 평균 동점(실시간 동시접속) 급상승 랭킹이 폐지되고, 랭킹 노출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 점은 가장 큰 변화로 보인다.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바로 클릭해 볼 수 있었던 랭킹 페이지는 다른 클릭 경로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되었고, 각 BJ의 방송국 첫 화면에 전체 랭킹이 노출되던 방식이 15종 랭킹 중 상위 2개의 랭킹만 자동 노출되도록 바뀌었다. 회사 측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개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던 바 있다.

#### [사례 V-8] 보상의 평준화와 차별화 사이에서 조율하기

“지금 전체 랭킹은 동시시청자 수량 추천 수가 한 80% 될 걸요. 지금 바뀌지 않았다면. 그니까 시청자수가 많은 비제이가 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입 BJ들한테는 뭐 넘지 못할 벽이죠. 근데 반대로 그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BJ들 입장에선 그 랭킹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오랫동안 아프리카TV에서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입지를 만들어낸 사람과 새로 도전하는 사람 양자를 다 만족을 시켜야하는 거예요. [...]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 쌓아올린 사람들이 약간 쉽게 가는 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하고 지금 돈

을 잘 벌어도, 정말 잘나가는 BJ도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어요. [...] 저희가 신입 BJ를 밀어주기 위해서 편성팀도 있고 (...) 지나치게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기존 BJ들이 또 힘들어지거든요. 양자의 균형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랭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랭킹을 그거 하나를 존치시키고, 신입BJ들이 시청자 수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의 참신함이나 퀄리티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새로운 랭킹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숙제죠.”

보상의 다변화와 개별화는 현지인에게 어떻게 인식, 작용하고 있을까? 앞서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회사는 현지인에게 투기(鬪技)적 놀이의 조건이 되는 위계의 논리를 ‘비가시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청자가 좋아하는 BJ를 키워준다”는 친목 관계와 팬덤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보상의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래 관계’의 측면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린다.

하나 운영자는 현지인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차별화 요소를 결코 제거하고 있지 않는데, 차별적 보상의 ‘적절한 비가시화’는 개별 현지인이 어떤 이권을 점유할 수 있겠다는 욕망과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내가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떻게 행동하면 회사로부터 그에 응당하는 구체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운영자는 별풍선 혜택 추가, 메달 부여 등으로써 적극적으로 가시화,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BJ뿐 아니라 방의 존속을 원하는 시청자 또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비슷한 랭킹(시청자수-권력)을 기록하는 BJ(팬덤) 간 치열한 싸움은 이제 그 내용이 점차 BJ 간 콘텐츠 대결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적인 콘텐츠화’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TV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촉구하는 회사가 아프리카TV 참여자를 자신의 통치권에 포섭해가는 작용과 맞물린다. ‘콘텐츠 방송’에서는 아프리카TV 현지사회의 반권력의 지향이 지워져가는 듯 보이기도 한다.

### 3) 콘텐츠라는 명분

현지인의 일반적 용례에서 “콘텐츠”는 빈 기표이다. 아프리카TV 사람들의 존재

양태 자체가 생방송-채팅이라는 점과 맞물려, ‘콘텐츠’는 아프리카TV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법 같은 말로 쓰인다. BJ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입만 열어도 “콘텐츠”, 평소 자신의 방(실내)에서만 방송하던 BJ가 방송을 켜 채 밖에만 나가도 “콘텐츠”, 생방송 중 시청자나 BJ와 탐방, 합방, 전화통화 등으로써 교류를 나눠도 “콘텐츠”, 별풍선을 선물 받고 리액션을 하는 것도 “콘텐츠”, 실시간 시청자채팅도 “콘텐츠”... 그런데 왜 콘텐츠는 점점 강조되고 있는 걸까? 보다 정확히 말해 어떤 콘텐츠가 ‘콘텐츠’로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앞 절에서 간략히 언급했다시피 회사는 방송의 콘텐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이다. 왜일까? 사실 사업자로서 아프리카TV 회사야말로 그 누구보다 아프리카TV가 망하면 안 되는 입장이다. 때문에 회사가 선별적으로 강조, 양산하고자 하는 콘텐츠란 현지인을 향한 주문일 뿐 아니라 외부사회를 향해 선보이는 절실한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 즉, 콘텐츠 강화는 아프리카TV의 자정작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방송 사업을 옥죄어오는 법적, 제도적 움직임에 대한 반론의 명분과 보호막을 형성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이다. 이는 현지에 점차 ‘콘텐츠’와 ‘콘텐츠 아닌 것’을 분간하는 잣대를 그려놓고 있다. 운영자의 가이드라인 및 보상과 맞물려 부각되는 “콘텐츠 방송”이란 BJ가 생방송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한 방송 구간을 특정한다. 이른바 “여캠,” “남캠”이라 불리는 “소통방송”은 운영자가 재정의하는 콘텐츠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 [사례V-9] 운영자의 말: ‘콘텐츠’와 ‘콘텐츠 아닌 것’의 구분

운영자의 말에서 이른바 ‘남캠’과 ‘여캠’은 ‘콘텐츠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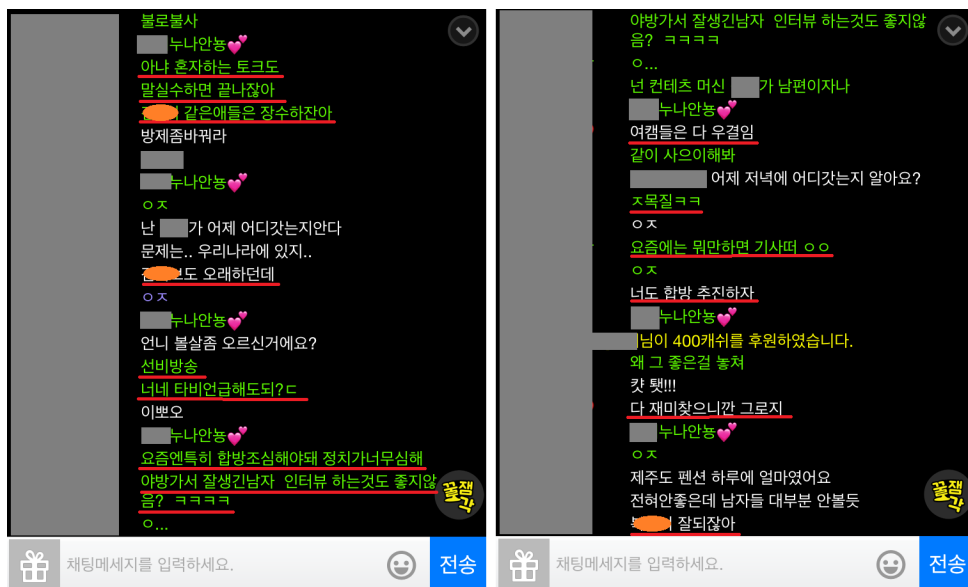
“(BJ국화라고 있는데) 유학파고, 영어 교육방송을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남캠이 됐어요 남캠. 영어 교육방송 콘텐츠 준비해도 (...) 트래픽(시청자수)도 안 나오고 별풍선도 안 터지고. 근데 그냥 연애상담이나 하고 이렇게 잡담하고 놀고 먹방하고 그러면 여성팬들이 좋아하는 거야. 영어를 안 해요 요즘에. [...] 작년에 야구 편파 중계하던 BJ모지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안 해요. 여캠해요 여캠. 요런 거. 콘텐츠가 다변화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전문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하려면 독고다리로 하려면 힘들어요. [...] 너무나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 콘텐츠들이 자리를 못잡고 결국 남캠 여캠화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회사가 콘텐츠와 비-콘텐츠를 나누는 이러한 분류는 BJ와 시청자의 말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운영자가 인식하는 외부의 압력은 현지에 직접적인 법적 권력으로 작용하는 운영자의 활동을 체감하는 것으로써 현지인들의 생각과 활동에 접혀든다. 콘텐츠를 구상할 때 외부 제재와 현지의 금기는 꾸준히 환기된다. BJ는 회사가 제시한 안전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그에 순응하는 못한 콘텐츠 방송 연행을 통해 메달 수여, 방송 홍보 지원 등의 이득을 도모한다. 동시에 이는 회사의 ‘제거 활동’에 발맞춰 현지인 자신들의 활동이 자발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부분이다.

### [사례 V-10] BJ와 시청자 간 ‘콘텐츠’ 고민에서 드러나는 감시망의 작용

BJ제홍은 평소 시청자와 소통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는 BJ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통방송에 대해 스스로 느껴지는 권태와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한 BJ는 생방송 중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래 화면은 시청자채팅이 방송 콘텐츠를 BJ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합방’, ‘야방 인터뷰’ 등과 비교해 당시에도 ‘소통방송’은 ‘콘텐츠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었다.



채팅에서 연구자가 밑줄을 친 부분은 시청자가 BJ에게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과 요즘의 감시·제재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합방”, “야방 인터뷰 방송” 논의가 나오자 한 시청자채팅은 언론 기사화를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물론 앞서 특정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 중에도 “말실수하면 끝난다(방송정지 징계 등)”는 위기의식 섞인 반론이 함께 등장해있다. 덧붙여, 합방 제안에 대해 “요즘 여캠들은 다 우결임”, “쫓목질”이라고 비꼬며 인기 BJ들 간 친목에 반감을 분출하는 채팅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동그라미 가림표시는 ‘자극적이지 않은’ 소통방송만으로 오랜 인기를 유지하는 소수 BJ의 이름을 시청자가 언급한 것이다. 제홍도 ‘그들처럼 소통만으로 장수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맥락이었다. 이들의 이름은 ‘긍정적인’ 선례로서 등장한 것임 불구하고, 현지의 금기이자 운영자의 제재 방침을 의식한 다른 시청자는 “타비 언급해도 돼?”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나 BJ가 ‘비-소통방송’ 혹은 ‘비-캠방’으로서 ‘콘텐츠’를 짜기 시작한 것은 회사의 목적과 다른 출발점을 지닌다. 사실 BJ들 사이 콘텐츠 강화 추세는 비교적 최근부터 전면적으로 콘텐츠 방송을 권장, 홍보하기 시작한 운영자의 움직임보다도 빨랐다. 현장연구 당시 아프리카TV 방송 6년차였던 인기 BJ무순은 “옛날에는 솔직히 매일 똑같은 콘텐츠를 일주일 내내 해도 시청자 수가 잘 찍혔다”고 회상하며 과거에 비해 콘텐츠 다양화에 대한 “시청자 니즈(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나아가 성공적인 “자기브랜딩”(Gershon 2016; 이동후·이설희 2017: 150-152)으로 아프리카TV를 벗어나 타 인터넷 플랫폼과 TV, 광고 진출에 성공한 BJ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은 콘텐츠를 BJ의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이자 활동의 명분으로 삼게 되었다.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채팅 활동의 문법을 모르는 이도 TV 예능프로그램처럼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는 방송. 따라서 ‘비(非)아프리카TV인’을 아프리카TV에 유입시키고 아프리카TV 바깥으로 BJ가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가교로서 콘텐츠 방송이 유의미해진 것이다.

#### [그림V-2] 아프리카TV 공식 계정 페이스북 ‘핫동’ 영상 목록

개별 BJ가 관리하는 유튜브뿐 아니라 페이스북도 비(非)아프리카TV인이 아프리카TV로 유입해오는 채널이다. 이 페이스북은 아프리카TV 회사에서 관리한다. ‘건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은 아무리 아프리카TV 사이트에서 인기가 많더라도 핫동 클립에 잘 올라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위 사진은 연구자가 임의로 캡처한 아프리카TV 페이스북 화면으로 음악, 먹방, 외국문화 소개,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제목과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BJ의 입장에서 페이스북 ‘핫동’에 방송

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족의 지지와 보상으로 의미화한다.



이처럼 회사와 BJ가 서로 비슷하고 다르게 콘텐츠로써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그런데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이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 양식인 소통방송을 ‘배제’하는 역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소통방송/캠방’은 ‘콘텐츠 아닌 것’으로 구별되고, 그와 구별되는 ‘콘텐츠’로써 제재와 감시망으로부터 방송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 모른다는 현지인의 믿음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콘텐츠 방송’이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BJ와 시청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의 거리를 벌려놓는다는 데 숨겨진 답이 있다.

콘텐츠 방송 중에 방 사람들은 BJ가 사전에 기획해 그려놓은 “큰그림”에 따라 생방송이 전개되는 것을 관대히 허용하고 시청(視聽)한다. BJ의 매끈한 진행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BJ와 시청자 사이 말 증여와 별풍선 증여는 ‘콘텐츠’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누군가 별풍선을 줘도 BJ는 그를 무시하거나 “콘텐츠 중이라 별풍선 못 읽어드립니다”라며 양해를 구하고, 콘텐츠가 끝날 때까지 별풍선 선물을 마다하는 식이다. 방 안의 발언권은 전복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BJ에게 집중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관련한 듯 현지인의 의미심장한 진술에 있다. “앞으론 (갈수록) BJ도 콘텐츠 싸움”이라는 말과 동시에 “콘텐츠만 해서는 아프리카TV에서 (BJ가) 먹고 살 수 없다.” 또한 “콘텐츠만 할 거면 차라리 유튜브를 하는 게 낫다.” 아프리카TV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하든 콘텐츠 방송이 끝나면 BJ가 “소통”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 절차처럼 행해지고 특히 시청자에 의해 강력히 요구된다. BJ가 콘텐츠 방송의 노고를 호소하며 기존에 그가 했던 시간보다 방송 시간이 줄어들 조짐이라도 보이면, 시청자는 BJ를 격려하면서도 격렬한 서운함(예컨대 “폭동”)을

표출한다. 때문에 BJ는 콘텐츠 방송 종료 후 시청자와 ‘적절한’ 타협을 거치지 않는 한 민심이 악화될 우려로 인해 곧바로 방송을 끝내기가 부담스럽다.

동시에 BJ에게 콘텐츠 방송 뒤 이뤄지는 소통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고정층을 붙잡아두고” 별풍선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다. 콘텐츠 방송동안 꼭 참아두었던 말 증여와 별풍선 증여가 소통방송 구간에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만큼은 외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착한’ BJ 방송이나 그렇지 않은 BJ 방송 간에 차이는 없다. 요컨대, 아프리카TV 현지인은 BJ와 집단의 보호색으로서 콘텐츠 방송을 진행하고 콘텐츠가 끝난 후 소통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원형태를 분출한다.

## 2. 위반의 체제

잠시 논의를 정리해보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실시간 인터넷방송은 그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과 맞물려 점차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실시간 인터넷방송 산업의 선두적인 위상을 점해온 아프리카TV는 인터넷방송이 논란이 될 때마다 마치 관련 문제의 대표처럼 여겨지는 오명을 입어왔다. 본장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이 운영자를 매개로 한 압박으로 현지에 굴절돼 작용하는 바를 살펴보고 있다. 앞선 내용에서 운영자의 규제는 현지에 ‘금기’를 출현시켰고, 그러한 규제 및 보상과 맞물려 ‘콘텐츠’라는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고 있었다. 다만, 그러한 양상을 두고 아프리카TV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성공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 나타나는 ‘규제-금기,’ ‘콘텐츠-소통방송’ 등에서 운영자의 규제는 그것이 목표하는 ‘해결’에 이르지 않고 있으며, 현지의 관점에서 또한 그것들은 ‘문제’의 해결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규제권력으로서 법(운영자)과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사회(아프리카TV 현지)는 어긋나는 관점을 전제로 서로를 ‘문제’로 식별하고 재현해낸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포함/배제의 차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한다’가 접치는 “구조적 연결(structural coupling)”(루만 2012)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 연결이란 서로 다른 체계들(A체계, B체계...)에 함께 속하면서 A라는 작동으로도, 또 B라는 작동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대상 혹은 실천을 의미한다.<sup>68)</sup> 이러한 접근에서 아프리카TV에 나타나는 실천은 사이버스페이스와 현

실공간에 걸쳐진 채 매순간 어떠한 ‘선택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V-11]’은 본 논문에서 다뤄온 내용을 종합하여 아프리카TV에서 어떠한 범주적 전환이 발생하는 경로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도식V-1]’에서는 그러한 바가 작동하는 원리를 상이한 체계들—이른바 ‘아프리카TV’와 ‘현실’—간의 관계로써 (거칠게) 도식화해 보았다.

#### [사례V-11] 범주적 전환과 계열적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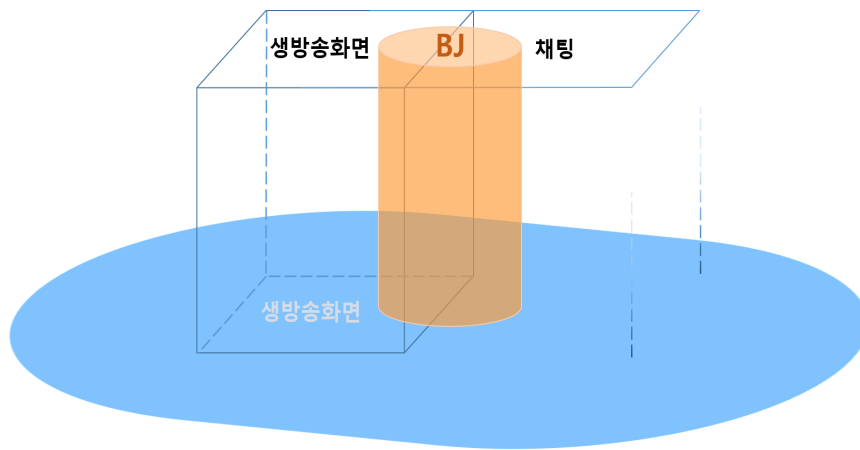
(논문 Ⅲ장): 말 — 별풍선 — 선물 — 돈

(논문 Ⅲ, Ⅳ장): 재미 — 괴물 — 신고 — 정의(正義) — 좇노잼

(논문 Ⅳ장): 이간질 — 유동 — 팬 — 안티 — 인방깁 — 아프리카문화

(논문 Ⅳ~Ⅴ장): 팬덤 — 친목 — 사심충 — 극혐 — 안티 — 운영자

(논문 Ⅴ장): 소통 — 콘텐츠 — 유튜브(非아프리카) — 선비 — 여자



[도식V-1] ‘아프리카TV’와 ‘현실’의 구조적 연결

가상의 직육면체에서 ‘생방송화면’과 ‘채팅’이 적힌 윗면은 아프리카TV 서비스 페이스에 해당한다. 생방송화면의 내용과 채팅을 매개하는 중간자로는 ‘BJ’가 있다.

68)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사회를 개인(부분)과 사회(전체)의 관계가 아닌 체계와 환경의 차이로 사유한다. 어떠한 두 체계들이 있을 때 하나의 체계는 다른 체계에 대한 환경이다. 자세한 논의는 루만(2012, 2014)와 정성훈(2009, 2015: 165-186), Gershon(2005)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본 논문의 III장에서 살펴봤던 바, 채팅은 BJ를 거쳐야만 증여물로서 가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BJ에게 인지된 것이 생방송에서 가시화하지 않는 채팅은 그저 산만한 소음에 불과하다.

파란색 바탕은 아프리카TV 체계에 대한 환경을 의미한다. 환경의 요소는 현지에 자본주의적 시장성과 감시·제재 권력으로 인식된다. 환경의 요소가 아프리카TV 사회로 접혀 들어오는 의무통과점에도 역시 BJ가 위치한다. 다른 층위의 결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인터넷방송(“방”)은 BJ가 없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으며, 아프리카TV를 향한 제도적 규제뿐 아니라 아프리카TV로부터 확장되는 경제적 수익, 유명세/오명의 교차로에도 역시 BJ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를 연구자는 환경의 면과 사이버스페이스 면을 잇는 원기둥으로 표현해 보았다.

환경으로부터 ‘채팅’으로 올라가며 벌어지는 점선은 근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공간에 걸쳐있는 시청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아프리카TV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어떻게 ‘문제적으로’ 보이는지를 익히 알고 있다. 연구자는 아프리카TV에서 나타나는 실천이 결코 왜곡된 욕망이라든가 도덕성 결핍 등과 같은 개별 인간의 성격적 차원의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아프리카TV 사람들은 종종 현지의 상황에 “팩폭을 날리고” 자신들의 열성적인 아프리카TV 활동 외중에 “현타가 온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아프리카TV 사람들이 사회성을 결핍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단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글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시청자 채팅)은 아프리카TV라는 장소에 모여 ‘현실’과 다른 관계성을 실천할 뿐이다.

정리하자면, 아프리카TV 사회는 어떠한 ‘고정값’으로서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규칙 만들기가 매순간 과제로 부과되며 자기생산적으로 작동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아프리카TV 사회를 ‘위반의 체계’로 명명하고 있다.

### 3. 비하된 존재들의 내부분화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아프리카TV 내 비하적 명명의 분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소 인터넷 신조어 익숙지 않았던 터, 현장연구동안 연구자에게 아프리카TV에서 통용되는 말들은 새롭게 습득해야 할 과제처럼 다가왔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여년의 기간임에도 아프리카TV에서는 빠른 속도로 신조어가 탄생해 퍼졌고, 새로운 배

움의 순간은 나날이 거듭됐다. 그러던 중 문득 연구자는 아프리카TV 내 신조어에 비하적인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유독 비속어가 많은 경향은 아프리카TV를 향한 사회적 낙인의 재생산인 것일까? 현지에서는 아프리카TV를 향한 규제적 시선과 영향이야말로 ‘비(非)아프리카TV스러운 것’으로서 배제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왜 아프리카TV에서는 그 ‘외부적인 것’이 아닌 현지의 특성을 스스로 비하해 일컫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 실린 사례에서도 “괴물,” “벌레(-虫),” “가축,” “악성,” “극혐” 등의 명명은 아프리카TV 내 어떠한 범주적 양상을 지시하는 말로서 술하게 등장해온 바 있다. “선비충,” “시어머니충” 등의 명명은 감시와 예측, 저항의 과정에서 현지에 새로이 등장한 범주적 명칭들이다. BJ와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청자가 방송에서 이것저것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는 바를 일컫는 것으로, “선비충”과 “시어머니충”은 “쫓목,” “극혐,” “노잼”과 유비되며 현지의 다른 무리와 경합하며 아프리카TV를 “망치는 주범”으로까지 지탄되기도 한다.

#### [사례V-12] ‘팬덤 - 가축 - 시어머니짓 - BJ 망치는 주범’

- 게시글 제목: BJ영식과 BJ헬라의 차이점. 팬 포함 f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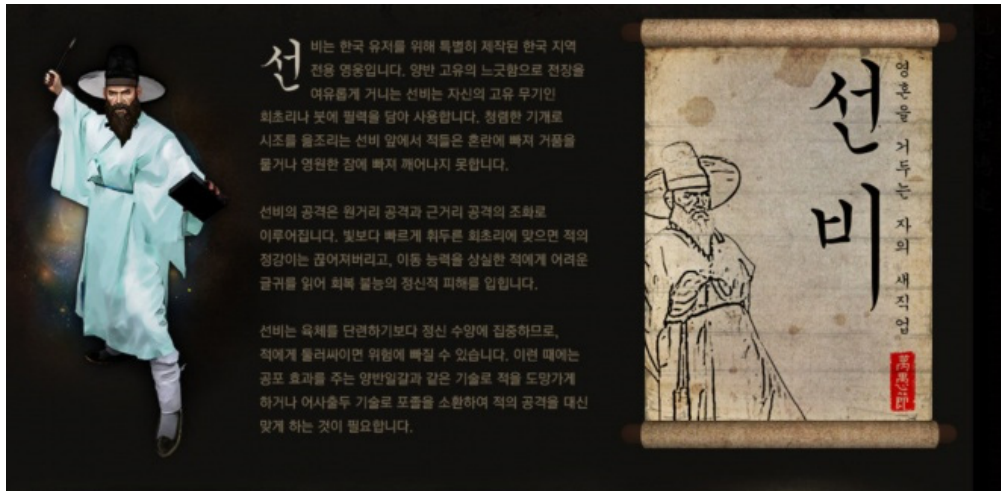
- 게시글 내용: 가장 큰 차이점으로 조져줄게.

영식 - 방송 진행 어버버 안함, 말빨 ㅅㅌㅈ(좋음), 친화력 높음

헬라 - 방송 3,4년차 비제이인데도 신입비제이 마냥 어버버 진행 일타기, 공감능력 개ㅎㅌㅈ(나쁨)

영식 팬 - 영식이 하는 방송 가지고 시어머니짓 안함. BJ가 애초에 팬을 휘어잡았는지 길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방송국 열어놓고 있는데도 헬파티(분탕질, 난장판) 안 남

헬라 팬 ‘헬견(犬)’들 - 시어머니짓 탑클래스. 매번 다른 여캠 찾는 물소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비하적으로 일컫는 말) ㅂㅅ(병신)들. 평소에 오구 오구 존나게 해대고 방송 피드백도 오지게 함. 자기 비제이 망치는 주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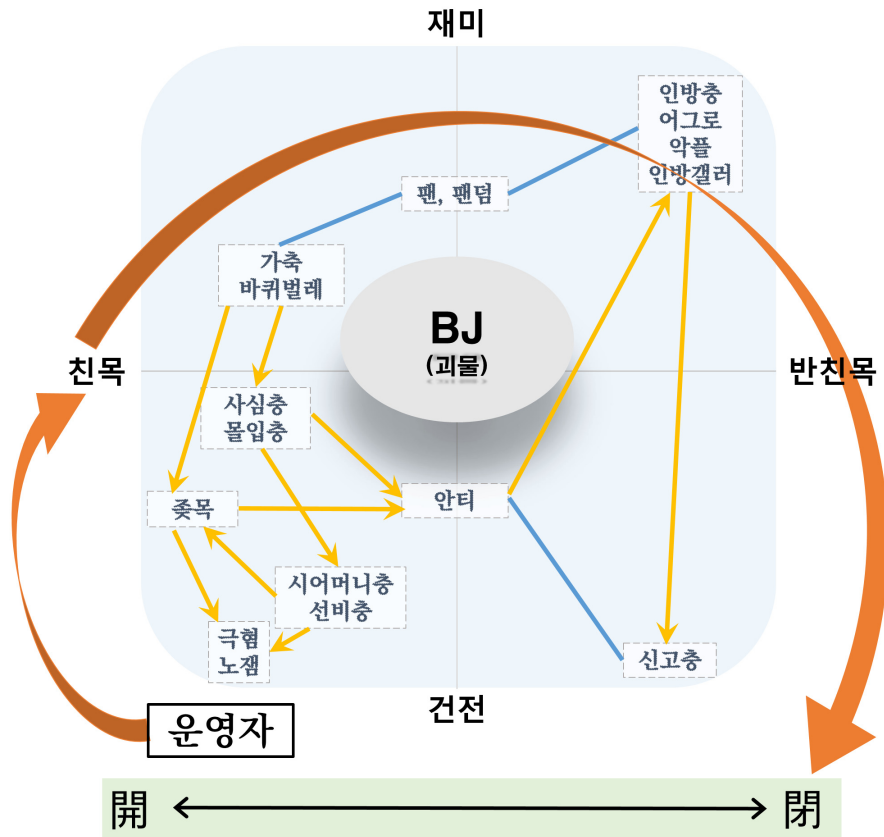
[그림V-3] “영혼을 거두는 자의 새 직업, 선비”

위 그림은 다시 인방갤에 유포된 “짤(그림)”이다. 이 인방갤러는 “방송에서 뭐만 하면 그냥 ‘하지마, 안 돼, 그건 예의에 어긋나, 법도에 맞지 않아’ 그럴 거면 그냥 EBS나 다큐멘터리를 봐야지. EBS 다큐멘터리 봐도 막 사자가 사슴 모가지 물어 뜯어서 피 철철 나오고 (...) 하던데”하는 글을 해당 그림과 함께 작성하였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어떠한 것들이 비하적 명명으로 포착되고 가시화하는가 분석해 보았다면, 이제 연구자는 아래의 ‘[도식V-2]’을 통해 그러한 명명들 간 계열적 연관성을 살펴보겠다. 이는 Ⅲ장에서 V장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프리카TV의 관계성을 결정화하는 이름들의 경로를 흐름도로 제시해본 것이다. 현지의 민족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분석을 거친 상상의 산물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X축과 Y축, 좌표의 내용은 모두 현지의 언어를 옮겨온 것이다. X축의 ‘친목’과 ‘반친목’은 아프리카TV의 집단(재)생산 원리이다. Y축의 ‘재미’와 ‘건전’은 운영자의 감시·제재와 맞물려 현지에서 인식되는 생방송-채팅 활동의 대립되는 가치이다. 도식의 바탕이 되는 하늘색 영역은 ‘관심의 공간’으로서 현지를 나타낸다. 현지의 행위를 매개하고 체계/환경의 요소들 간 전환을 발생시키는 의무통과점으로서 BJ는 중앙에 입체적으로 위치시켰다. 각 좌표는 현지에 나타나는 명명이다. 노란색 화살표는 각 이름으로 포착되는 영역이 다른 이름과 유비되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파란 선은 어떤 방향성을 특정하기 힘든 관계를 나타낸다.





[도식V-2] 종합적 흐름도

도식의 아래쪽 연두색 상자 안 ‘開’와 ‘閉’는 열린 관계와 닫힌 관계를 대립시킨 것이다. Ⅲ장과 Ⅳ장의 논의를 상기해보자면, 현지에서 수행되는 증여와 전쟁은 열린 관계를 재-생성하는 사회구조적 원리였다. 반면 관심의 공간(하늘색 영역) 바깥에 위치하는 운영자는 현지에 친목관계를 촉구하고 대내외적인 방송의 건전함을 표방하며 아프리카TV 생방송에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개입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닫힌 관계를 가리킨다.

한편 어떠한 상위 범주로 수렴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증가하는 이름들의 분화와 상호대치는 아프리카TV의 분열과 위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허나 적어도 오늘의 연구자는 그것이 아프리카TV 집단의 분열과 해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지에서 외부 규제는 ‘실패’—위반의 체계에서 외부 규제는 부분적으로 뒤틀리거나 어긋난다; 외부 규제의 온전한 성공은 아프리카TV 사회의 실패일 것이다—

로써 작동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곳에서 수평적으로 증가하는 이름들의 분화는 연구자가 ‘위반의 체계’라 규명한 아프리카TV ‘내-외부’의 독특한 접힘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로를 (재)생성하고 이동해 다니는 현지의 명명들은 곧 아프리카TV 사회의 자기관찰에 다름없을 것이다. 지금도 아프리카TV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 VI. 결론

"탈주선을 따라 사물이 변화하고, 생성이 이루어지며, 혁명이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 매년 새로운 문지방, 불연속선의 새로운 방향, 경계를 위한 새로운 진로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AND, AND, AND)"  
(Deleuze 1995: 45)

본 연구는 오늘날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인터넷방송 관련 문제의 대표적인 온상지처럼 여겨지며 언론과 정치권 등에 의해 법적, 제도적 규제 강화의 대상으로 심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반사회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이 아닌 가상의 것으로,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삼는 위계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아프리카TV에 관한 일단의 평가를 잠시 보류하고, '왜 아프리카TV에서는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는가?'를 현지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했다. 다만, 익명성과 유동성과 같은 사이버스페이스 현장의 속성과 맞물려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온당한 답을 도출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장연구는 아프리카TV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참여관찰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익명의 다중이 만나는 공간에서 연구자는 현지인에게 "흐름"이라 감지되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바를 마주했고, '도대체 아프리카TV의 어떠한 작동 원리가 이곳에서 드러나는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하게 되었다. 이를 본론의 각장에서 별풍선 선물(III장), 말싸움과 팬덤(IV장), 감시·제재와 저항(V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전체 논의를 관통하는 세 가지 논지—① 관심의 공간, ② 위반의 체계, ③ 비하된 존재들—에 따라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 관심의 공간

아프리카TV에서는 "BJ도 관중이고 시청자도 관중"이다. 실시간 인터넷방송-채팅에서 말과 별풍선 증여는 관심을 경쟁적으로 쟁탈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모두가 '관중'이라 여겨지는 데에는 현지에 메타커뮤니케이션하는 이중구속의 틀이 존재한다.

- 아프리카TV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독점할 수 없다.
- 나는 관심받고 싶다.

사실 ‘아프리카TV 사람들이 관심종자’라는 것은 이들이 본래 관심받기를 갈구하는 자라는 성격과는 다른 결의 것으로 보인다. 역설의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마비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즉, 개개인의 다양한 동기로부터 발생했을 말싸움과 별풍선 선물의 연쇄적인 흐름 속에서 아프리카TV의 집합적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며, 이는 다시금 아프리카TV 사람이라면 곧 관심을 갈구하는 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실제 별풍선을 애초에 왜 주는가에 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만났던 면담참여자들은 각자의 동기와 의도를 들려주었지만, 중국에 그들은 모두 “별풍선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채팅에 왜 참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면담을 통해서는 해명될 수 없는 어떠한 힘을 암시하고 있다. 관련해 현지에서 하나의 진리처럼 말해지는 바가 있는데 “별풍선은 흐름”이고 “민심도 흐름”이며 “아프리카TV 자체가 흐름”이라는 것이다. “흐름”은 곧 개별 인간의 의도에 선행하는 아프리카TV 관계성을 드러낸다. 아프리카TV에서의 행위자는 인간행위자로 국한될 수 없다. 행위의 연쇄 자체가 행위를 발생시키는 행위자이다(Munn 1986). 요컨대, 아프리카TV 사람들이 ‘관심종자’로 명명되는 것은 ‘관심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아프리카TV 사회의 상태를 지시한다.

## 위반의 체계

아프리카TV에서 행위는 기존에 그러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나 새롭게 제시된 기준/규범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현지에서 BJ와 시청자 간 행위의 순간순간 어떠한 경계가 그어지고 어긋나는 바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반의 체계’라 명명하고 있다. 아프리카TV 사회는 어떠한 관계성이 항상 그에 반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비-’ 혹은 ‘반-’ 영역을 동시적으로 (재)생성하는 독특한 장소이다. 우선, 연구자는 별풍선이 오로지 시청자가 BJ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데에만 사용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BJ와 시청자, 시청자군중 관계의 기본적인 성질로 기식(寄食)성을 발견하였다(세르 2002). 별풍선은 시청자가 BJ에게 지지를 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인 동시에 증여자가 자신의 시공간적 지배력—관심과 발언권—을 쟁탈, 확장하는 전략적인 도구이다. 연구자는 ‘반-호혜성(기식성)’에서 호혜적 교환이 성립하고 가치 변환이 발생하는 연쇄적 작용을 ‘[도식Ⅲ-3]’의 사이버네틱스로 제시하였다. BJ는 시청자의 채팅을 말증여물로, 별풍선을 돈(경제적 영역)이자 위세·명예

(사회정치적 영역)로 변환시키는 의무통과점이다. BJ에게 붙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명명은 별풍선 증여에 결합해 있는 ‘자본주의적 영역’과 ‘비-자본주의적 영역’의 자리를 표시한다.

한편, BJ와 시청자군중이라는 1대 다의 소통구조 속에서 관심을 독점할 수 없음은 반권력의 지향을 발생시킨다. 아프리카TV 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경과 맞물려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한 규모에 따라 시청자의 지위는 등급화해 있다. 하지만 관심을 사유화할 수 없는 ‘관심의 공간’에서 별풍선 증여자의 위세는 다른 시청자 혹은 시청자군중에 의한 관심 쟁탈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리며 권력으로 안착되지 못한다. 이러한 반권력의 지향은 반친목주의와도 연결된다. BJ는 인터넷방송(“방”)을 성립시키는 구심점으로서 이곳의 관계에 친목을 필수적으로 소환하지만, 친목은 항상 현지의 반친목 규정과 직면한다. 친목관계가 세력화할 조짐이 감지되면 친목은 “쫓목,” “갑질”의 이름으로 둔갑해 지탄된다. 아프리카TV에서 BJ와 시청자 간 친목이 집단의 생산조건이라면, 현지의 호전(好戰)적 발화로써 작동하는 반친목주의는 집단의 재생산조건이다. 이러한 위반의 영역을 IV장에서 연구자는 ‘반친목-팬덤’이라 규명하였다.

앞서 III장과 IV장의 논의가 아프리카TV 사회 ‘내부’의 원리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면, V장에서는 아프리카TV 사회 ‘내-외부’의 관계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실’과 ‘아프리카TV’의 대조(Strathern 2002)는 아프리카TV에 들어와서는 ‘운영자’와 ‘현지’의 차이로 그어진다. 운영자는 현지의 활동에 대해 제재를 행사할 때 등장하고, 현지인에게 가장 가깝게 작용하는 법적인 권력으로 경험된다. 현지에 ‘규제-금기’와 ‘콘텐츠-소통방송’은 규제권력으로서 법(운영자)과 규제 대상으로서 사회(현지) 간 어긋나는 관점이 접혀있는 예이다. 아프리카TV 사회의 위반성은 규칙의 일반적인 준수가 아니라 매순간 규칙 만들기가 과제로 부과되는 자기생산적 작동이라 달리 말해질 수 있다(루만2012). 현지에 여러 층위에서 ‘아프리카TV스러운 것’과 ‘아프리카TV스럽지 않은 것’의 포함/배제의 차이로 작동하는 체계를 연구자는 ‘[도식V-1]’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해보았다. 아프리카TV는 ‘현실’과 ‘현지사회’로 명명한 두 체계를 잇고 왜곡하고 유지시키며 나아가는 독특한 접합의 공간이다. ‘현실’의 요소를 현지 사회로 번역하고, 이를 아프리카TV 내 다수의 이름으로 재현, 변환하는 통과점에도 역시 BJ가 자리하고 있다.

### 비하된 존재들

현장연구 동안 연구자는 현지에 출현하는 여러 이름들을 따라다녔고, 대부분은

“괴물,” “엠생,” “가축,” “벌레” 등과 같은 비하적 명명이었다. 상기한 내용에서도 몇 차례 간략히 언급되었던 바, 비하적 명명은 어떠한 영역과 그것의 ‘반-/비-영역’이 행위의 순간순간에 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리를 표시한다. 아프리카TV를 움직여 다니며 변모하는 이름들은 행위의 연쇄적 경로를 생성하고 그 속에서 (재)생성된다. 그런데 왜 비하적 명명인가? 다시 말해 현지를 포착하는 이름들이 비하적이라는 것의 함의는 무엇인가? 병리학적 상상에서 특정 공동체는 “그것이 처한 위기·결핍·침입자를 통해 정의”(Esposito 2011; 안승택·이경묵 2015: 405 재인용)된다.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것이 결핍이나 위기에 맞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식별된 것이 공동체 스스로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경로 관계를 맺으며 수평적으로 분화하는 비하적 이름들은 곧 위반의 체계로 작동하는 아프리카TV 현지의 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TV는 관심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이 친목으로 이어질 수 없고, 관계가 지속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려는 시도가 거듭 좌절되는 공간이다. 현지에서 기존 사회를 다르게 포함하는 하위체계의 생성을 어떠한 ‘반-사회적’ 사회의 탄생이라 한다면, 이러한 아프리카TV의 존재양식은 사회분화의 원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강준만

2017 “ ‘취향공동체’가 정책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가?: 팬덤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네티지,” 『사회과학연구』 30(1): 19-49.

김수진

2017 “ ‘아프리카TV가 낳은 괴물들’: 인터넷방송의 동시적 이중성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3(1): 79-124.

김수정, 김수아

2015 “해독 패러다임을 넘어 수행 패러다임으로: 팬덤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방송학보』 29(4): 33-81.

김형우

2015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권 1호, 152-171.

김혜진

2015 “하위문화로서의 푸드 포르노(Food Porn) 연구: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먹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0집, 433-456.

그레이버, 데이비드

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서정은 역, 그린비.

나은경

2015 “ ‘먹는 방송’과 ‘요리하는 방송’ 음식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탐색: 텔레비전 먹방/쿡방 유행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뉴미디어 이용 요인,” 『사회과학연구』, 28집 1호, 183-215.

루만, 니클라스

2012 『사회의 사회』, 장춘익 역, 새물결.

2014 『사회의 법』, 윤재왕 역, 새물결.

문영은, 심지수, 박동숙

2017 “내가 좋아하는 먹방BJ는요…….”: 먹방 시청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언론과 사회』 25(2): 58-191.

말리노브스키, 브로니스라브

2013 『서태평양의 항해자들』, 최협 역, 전남대학교출판부.

모스, 마르셀

2002 『증여론』, 이상률 역, 파주: 한길사.

박세진

2016 “선물과 이름: ‘근본적인 인정 행위’로서의 증여,” 『비교문화연구』 22(1): 265-309.

박정호

2009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 7: 7-49.

베이트슨, 그레고리

1998 『정신과 자연』, 박지동 역, 서울: 까치.

버틀러, 주디스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파주: 문학동네.

살린즈, 마샬

2014 『석기시대 경제학』, 박충환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세르, 미셸

2002[1980] 『기식자』, 서울: 동문선.

안승택, 이경묵

2015 “기술과 사회, 중심과 주변을 함께 보기: 역사인류학으로부터의 탐색,” 『역사와 현실』 98: 381-411.

안진, 최영

2016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공동체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프리카TV <먹방 BJ 애봉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보』 30(2): 5-53.



오명석

2010 “선물의 혼과 신화적 상상력 - 모스 『증여론』의 재해석,” 『한국문화인류학』 43(1): 3-46.

2012 “지식의 통섭(通涉)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2): 175-222.

윤명희

2010 “네트워크 시대 하위문화의 ‘애매한’ 경계, 그리고 흐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7(4): 125-162.

이동후, 이설희

2017 “인터넷 개인방송 BJ의 노동 과정에 대한 탐색: 아프리카TV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2): 127-156.

이경묵

2016 “물건의 힘과 작동-망(work-net)의 상상력: 행위소로서의 인간·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재고,” 『비교문화연구』 22(1): 311-343.

이길호

2012 『우리는 디씨: 디시, 잉여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서울: 이매진.

이응철

2016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의 팬이다: 팬덤의 확산, 덕질의 일상화, 취향의 은폐,” 『한국문화인류학회』 49(3): 95-135.

정성훈

2009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통한 진단,” 『법철학연구』 12(2): 331-356.

2015 『과물과 함께 살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루만까지 한 권으로 읽는 사회철학』, 서울: 미지박스.

철구

2015 『BJ로 산다는 것 - 철구 편』, 몬스터.

채수홍

2005 “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사회’로의 타자화: 클라스트르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 대한 단상,” 『진보평론』 26 겨울호: 322-329.

칼롱, 미셸

2010 “번역과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가리비와 생브리의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부르노 라투르 외 공저, 홍성욱 역, 이음: 57-94.

클라스트르, 피에르

2002 『폭력의 고고학: 정치 인류학 연구』, 변지현·이종영 역, 서울: 울력.

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홍성흡 역, 서울: 이학사.

황익주

2016 “서론: 왜 한국 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목하는가,”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 운동, 과제』, 황익주 외 4인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0-25.

홍석경, 박소정

2016 “미디어 문화 속 먹방과 헤게모니 과정,” 『언론과 사회』 24(1): 105-150.

Bateson, Gregory

2000[1972] “A Theory of Play and Fantasy: A report on Theoretical Aspects of the Project for Study of the Role of Paradoxes of Abstraction in Communication,” i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77-193.

Boellstorff, Tom

2008 *Coming of Age in Second Life: An Anthropologist Explores the Virtually Hum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mon, Frederick

1983 “What Moves the Kula: Opening and Closing Gifts on Woodlark Island” in J. Leach & E. Leach, eds., *The Kula: New Perspectives on Massim Exchange*, Cambridge, London, New York, New Rochelle, Melbourne and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09-342.

de Certeau, M.

2000 "Walking in the City", in G. Ward(ed.) *The Certeau Reader*, London: Blackwell.

Deleuze, G.

1995 *Negotiations, 1972-1990*, trans. M. Joughin,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ershon, Ilana

2005 "Seeing Like a System: Luhmann for Anthropologists," in *Anthropological Theory* 5(2): 99-116.

2016 "I'm not a businessman, I'm a business, man: Typing the neoliberal self into a branded existence," in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6(3): 223-246.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London: Harper and Row.

Gulick, John

1989 "The Study of Cities", in *The Humanity of Cities: An Introduction to Urban Societies*, New York & London: Bergin & Garvey, pp. 1-21.

Latour, Bruno

1997 "Trains of Thought: Piaget, Formalism, and the Fifth Dimension," *Common Knowledge* 6(3): 170-191.

Lévi-Strauss, Claude

1969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trans. by James Harle Bell, John Richard von Sturmer and Rodney Needham, Boston: Beacon Press, pp. 52-68.

Low, Setha

2014 "Placemaking and Embodied Space", in *Making Place: Space and Embodiment in the City* (eds.) Arijit Sen & Lisa Silverman,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19-43.

Krupat, Edward

1985 "Definitions and Models of Urban Life", In *People in Cities*, Cambridge Univ. Press, pp. 48-66.

Marcus, George

2012 "Foreword" in *Ethnography and Virtual Worl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x iv - x vii.

Munn, Nancy

1977 "The Spatiotemporal Transformation of Gawa Canoes," in *Journal de la Société des océanistes*, n°54-55, tome 33, pp. 39-53.

1983 "Gawan Kula Spatiotemporal Control and the Symbolism of Influence" in J. Leach & E. Leach (eds.), *The Kula: New Perspectives on Massim Exchange*, Cambridge, London, New York, New Rochelle, Melbourne and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7-308

1986 *The Fame of Gawa: A Symbolic Study of Value Transformation in a Massim (Papua New Guinea) Societ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Radcliffe-Brown, Alfred R.

1940 "On Joking Relationships," *Afric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3(3): 195-210.

Schieffelin, Edward

1976 *The Sorrow of the Lonely and the Burning of the Dancers*, St. Martin's Press·New York.

Strathern, Marilyn

1980 "No nature, no culture: The Hagen case," In: MacCormack C and Strathern M (eds) *Nature, Culture, and Gen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74-222.

1988 *The Gender of the Gift: Problems with Women and*

- Problems with Society in Melane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002 "Not giving the game away." In: Gingrich A and Fox R (eds) *Anthropology, by Comparison*. London: Routledge, pp. xiii-xvii.
- Thrift, Nigel
- 2014 "Driving in the City" *Theory, Culture & Society* 21(4/5): 41-59.
- Tsing, Anna
- 2013 "Sorting Out Commodities: How Capitalist Value is Made Through Gifts,"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3(1): 21-43.
- 2014 "Strathern beyond the Human: Testimony of a Spore," *Theory, Culture & Society* 31(2/3): 221-241.
- Weiner, Annette
- 1985 "Inalienable Wealth," *American Anthropologist* 12(2): 210-227.
- Wilson and Peterson
- 2002 "The Anthropology of Online Communiti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449-467.
- Wunderlich, Filipa Matos.
- 2008 "Walking and Rhythmicity: Sensing Urban Space" in *Journal of Urban Design* 13(1):125-139

〈언론보도〉

일요신문 “인기 BJ ‘엑소더스’ … 아프리카TV 위기설 추적” (2016.10.22.일자 기사)

아시아경제 “[2017국감] 별풍선6000만원 · 선정적 BJ … 아프리카TV 못매” (2017.10.13.일자 기사)

시사저널 “아프리카TV ‘별풍선’, 규제해봤자 소용없다 - “오히려 자극적 방송 위해 더 노력할 것” … 인기 BJ에겐 영향 못 미쳐” (2017.10.18.일자 기사)

머니투데이 “아프리카TV, 꾸준한 실적 성장-유진투자증권” (2017.04.20.일자 기사)

KBS 뉴스 “달라진 장래희망 … 요리사·1인 방송인 ‘BJ’까지” (2017.05.06.일자 기사)

〈인터넷 링크자료〉

[https://40.media.tumblr.com/143abecbd9cc21c17857dbbda0cb0b98/tumblr\\_nplxcrEbz6lsm1et1o1\\_540.png](https://40.media.tumblr.com/143abecbd9cc21c17857dbbda0cb0b98/tumblr_nplxcrEbz6lsm1et1o1_540.png), 검색 2017.9.15.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kind=image&progCode=1000836100669100000>, 검색 2017.11.21.

<http://www.afreecano.com/391>, 검색 2017.11.21.

[https://namu.wiki/w/%EC%B2%A0%EA%B5%AC\(BJ\)/%EC%8B%9C%EC%A6%8C%EB%B3%84%20%ED%96%89%EB%B3%B4#s-1.1](https://namu.wiki/w/%EC%B2%A0%EA%B5%AC(BJ)/%EC%8B%9C%EC%A6%8C%EB%B3%84%20%ED%96%89%EB%B3%B4#s-1.1), 검색 2017.11.21.

<http://corp.afreecatv.com/ir/ir.html>, 검색 2018.7.5.

[https://finance.naver.com/item/coininfo.nhn?code=067160&target=finsum\\_more](https://finance.naver.com/item/coininfo.nhn?code=067160&target=finsum_more), 검색 2018.7.5.

## 〈부록〉 용어 해설

강퇴	‘강제퇴장’의 줄임말. 시청자가 BJ, 운영자, 매니저 등에 의해 강퇴를 당하면 해당 방송이 켜져있는 동안 방에 입장할 수 없다.
건빵	BJ에게 팬가입을 하지 않은 시청자
공약	BJ가 시청자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향후 계획을 약속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240시간 노방중 공약"을 세운다는 것은 시청자와의 어떠한 타협을 보는 조건부로 BJ가 240시간동안 방송을 끄지 않겠다고 제안, 선언하는 것이다.
관중	‘관심종자’의 줄임말. 관심을 병적으로 갈구하는 자를 일컫는다.
극혐	‘극도로 혐오스럽다’의 줄임말
네임드	닉네임이 한 방을 넘어서 널리 알려져있는 시청자에게 붙는 말이다.
노잼	‘노(no)+재미’의 합성어.
녹방	BJ가 이전에 했던 생방송 영상을 녹화하여 자신의 방송에 재생시켜 놓는 것을 의미한다.
눅방	누워서 하는 방송
대기방	시청자가 보고싶은 BJ가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BJ의 방에 가서 기다린다는 뜻
도배	같은 말의 채팅을 반복하여 채팅창 화면을 뒤덮는 것을 ‘도배한다’고 비유하는 말
리액션	별풍선을 받은 BJ가 그에 대한 화답으로 행하는 감사인사, 춤, 노래, 연기 등을 일컫는다
매니저	BJ를 대신하여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시청자이다. BJ가 총 12명까지 매니저 권한을 줄 수 있다.
먹방	BJ가 음식을 먹는/과식하는 방송.
메이저/하꼬	인기와 시청자수가 많은 방송의 BJ는 ‘메이저’로 일컬어진다. ‘하꼬’는 ‘메이저’의 반댓말.
매니저	BJ의 방에서 BJ에게 채팅 관리 권한을 일임받은 시청자(의 지위)
매챗 (매니저채팅)	매니저와 BJ만 접근 권한이 있는 채팅(방)으로, 일반적으로 생방송 송출 화면서에 비가시화하는 공간이다. 운영자는 BJ와 매니저에게 권고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때 매니저채팅을 통해 이야기한다.
모기 (피 빨린다)	메이저 BJ와의 방송 중 협력을 통해 그보다 인지도가 적은 BJ는 자신을 홍보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나 효과를 두고 한 BJ가 다른 BJ의 "(피를 빨아 먹는) 모기"에 비유된다.

<b>물타기</b>	논점 흐리기. 주로 도배성 채팅으로써 시도, 진행한다.
<b>미션</b>	별풍선을 주는 조건으로 시청자가 BJ에게 요구하는 수행과제. BJ가 별풍선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시청자에게 미션을 달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b>민심</b>	생방송 중 채팅방의 즉각적인 반응과 분위기를 일컫는다. 나아가 각종 게시판에서 어떤BJ나 사태에 관한 여론을 포착하는 말로도 쓰인다.
<b>별창</b>	별풍선을 받은 BJ가 어떠한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듯할 때 등장하는 말. BJ가 별풍선 수익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측면을 지시하는 일반화된 용례도 있다. 별풍선+창녀의 합성어.
<b>별풍선</b>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사이버화폐. 통상 1개당 100원의 현금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BJ에게 시청자가 별풍선을 주는 행위는 주로 ‘-준다,’ ‘-쓴다,’ ‘-터진다’ 등의 동사와 같이 쓰인다.
<b>방</b>	실시간 생방송과 채팅이 이뤄지는 공간
<b>방송국</b>	아프리카TV에 가입한 각 계정 별로 자동 생성되는 게시판 공간
<b>본방</b>	생방송 중 BJ가 (주로 자신의 영상 송출 화면에 띄워 놓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채팅방.
<b>본진</b>	시청자의 이름이 유명해진 기원지로 알려진 BJ 방송, 혹은 평소 인터넷방송-채팅 활동의 중심지라 스스로 여기는 BJ방송을 일컫는다.
<b>본캐/부캐</b>	‘본캐’는 시청자가 주로 사용하는 아프리카TV 계정이다. ‘부캐’는 ‘본캐’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주민번호를 빌려)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본계정/부계정’이라 말하기도 한다.
<b>블랙</b>	BJ 방송에서 블랙을 당한 시청자는 이후 그 계정으로서는 해당 BJ의 방송에 접속할 수 없다.
<b>선비(충)</b>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BJ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등을 주의시키는 채팅과 그러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
<b>시금치</b>	BJ에게 한 개 이상의 별풍선을 주면 그 시청자는 자동으로 ‘팬가입’이 되고 ‘시금치’의 지위에 오른다. 열혈팬의 지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해당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한 누적 개수와 상관없이 ‘시금치’이다.
<b>시어머니(충)</b>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BJ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등을 주의시키는 채팅과 그러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
<b>야방</b>	‘야외방송’의 줄임말. BJ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등 개인적인 실내공간에서 방송을 하는 것과 달리 야외에 나가 방송을 하는 형식.
<b>어그로</b>	특정 게임에서 유래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도발, 골칫거리 등의 뜻을 지닌 영단어 aggravation 혹은 aggression의 줄임말(aggro)로 변형되었다. 방송의 흥밋거리와 관심 집중을



	유도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b>엠생</b>	‘엠창 인생’이라는 비속어의 줄임말. 엠창은 ‘엄마+창녀’의 줄임말로 ‘내 진실성을 입증하고자 어머니가 창녀인지를 내기로 건다’는 뜻의 비속어이다. 엠생은 ‘열정적인 아프리카TV 활동을 하느라 사실상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자조가 섞인 표현이다.
<b>여캠/남캠</b>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는 맥락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범주화한 말. 단순히 BJ의 성별을 지시하는 의미로서 일반화된 용례도 있다.
<b>연장풍</b>	해당 시점에 BJ가 방송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시청자가 주는 별풍선.
<b>열혈(열혈팬)</b>	각 BJ에게 별풍선을 가장 많이 준 상위 20인의 시청자 범주. 열혈팬 중 BJ에게 제일 많은 별풍선을 준 1인은 “회장”이라 불린다.
<b>열혈 터렛</b>	‘터렛’은 특정 게임 용어에서 비롯한 말이다. 이가 BJ에게 접근하고 그와 교류하는 것을 그 BJ의 열혈팬이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지칭한다.
<b>영정(영구정지)</b>	해당 계정으로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영구정지’시키는 제재
<b>우결</b>	가상연애를 모티브로 한 TV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컨셉을 차용한 콘텐츠 형식
<b>우덜식</b>	선한 가치를 표방하며 독재나 폭압의 정치를 펼치는 바를 지칭하는 인터넷 용어. “갑질”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운영자의 규제를 비난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b>운영자</b>	아프리카TV 회사
<b>월초 수금</b>	매달 1일 휴대폰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가 풀리는 것과 맞물려 장시간 대규모 별풍선 선물이 이뤄지는 날, 혹은 BJ가 1일에 별풍선을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b>의첸</b>	‘의상+체인지(change)’의 줄임말. BJ가 생방송 중 자신의 의상을 갈아입고 오는 행동을 일컫는다. 주로 별풍선에 대한 리액션으로 요구된다.
<b>인방겔</b>	‘디시인터넷방송갤러리’의 줄임말. BJ의 인지도를 평가하는 척도이자 아프리카TV 여론의 창구로 인식된다.
<b>일상방송</b>	BJ가 자신이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방송에 보여주고 시청자와 수다를 떠는 방송.
<b>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자날괴)</b>	별풍선 받기를 좋아하고 그에 열성적인 리액션을 하는 BJ에 대해 BJ 스스로와 시청자가 붙이는 명칭.
<b>작은방/큰방</b>	‘작은방’은 시청자수가 적은 방. ‘큰방’은 평균 수천~수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수를 보유하는 방을 일컫는다.
<b>잠방</b>	BJ가 방송을 켜놓고 카메라 앞에서 잠을 자는 방송 구간을 일컫는다.

전자여성	BJ가 설정해 놓은 특정 개수 이상의 별풍선을 준 증여자의 별풍선 선물 후 첫 채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유틸리티.
쫓목(질)	친목활동을 비하적으로 일컫는 말.
좌표 찍기	BJ가 방송을 종료할 때 시청자에게 어떤 다른 BJ 방송을 보라고 지시하면 그 방에 시청자가 몰려가는 방식을 일컫는다.
중계방	한 BJ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특정 인구를 넘어서면 서버 안정화 등을 위해 1개의 본방 외 (여러 개의) 중계방이 생성된다. 중계방의 채팅은 BJ가 실시간으로 참조하지 않으며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다시보기'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짤풍	1개, 2개, 10개 등과 같이 작은 규모의 별풍선을 일컫는 말.
창렬	BJ가 리액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비난하는 말
채팅 얼리기/녹이기	채팅방을 '얼리면' 그 설정 종류에 따라 매니저와 BJ만 채팅을 칠 수 있거나(매니저채팅), BJ에게 팬가입한 시청자만 채팅을 칠 수 있거나(팬채팅), BJ 외에 아무도 채팅을 칠 수 없게 된다. 이 설정을 해제하는 것이 '녹이기'이다.
퀵뷰	해당 BJ 방송의 시청인구가 본방 수 용인원을 넘겼을 때, 시청자가 무조건 본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프리카TV의 구매 아이템.
큰손	BJ(들)에게 평소 거액의 별풍선을 준다고 알려진 시청자에게 붙는 칭호.
타비	'타(他) BJ'의 줄임말.
탐방	한 BJ가 자신의 생방송 중에 다른 BJ의 생방송에 접속하여 이를 송출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교류하는 방송 형식
파비/베비/일비	회사가 BJ와 계약관계의 여부 및 종류에 따라 지정하는 '파트너BJ, 베스트BJ, 일반BJ' 등급을 각각 줄여 말한 것.
팩폭	'팩트(fact)+폭행'의 줄임말. 어떤 사건이나 내용의 핵심을 날카롭게 짚어낸 바를 지칭한다.
팬가입	시청자가 BJ에게 별풍선을 1개 이상 선물하면 자동으로 '팬가입' 되어 플랫폼 상의 팬('시금치')의 신분이 된다.
푸파	'푸(food)+파(fight)'의 합성어. 단시간 내 음식을 빨리 먹거나 많이 먹는 대결을 의미한다.
풍력	'별풍선+힘(力)'의 합성어.
합방	BJ와 BJ가 같은 실물 공간에 모여 방송을 하는 형식. '합동방송'의 줄임말
현타	'현자 타임'의 줄임말인 '현타'의 유래는 지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오늘날 아프리카TV에서 '현타'는 '새삼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Abstract

**Violating Society**  
**: the dynamics of social differentiation**  
**in AfreecaTV**

Soojin Kim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interactions in 'AfreecaTV', the largest online platform in Korea for livestreaming user-created contents. Despite its rapid growth in both revenue and popularity over one decade, the lack of legal restrictions allowed for raunchy and oftentimes violent contents on the livestreams. The researcher begins with the 'general' criticism that views such phenomena as a kind of social pathology in cyberspace, and examines deeper into the 'local' principle of AfreecaTV society.

Behind the operation of AfreecaTV society is the dual social structures in multiple layers. In detail, the “Broadcasting Jockey(BJ)” and the “audience” reveal their social identity(‘name’) within the place(“bang”) of AfreecaTV through constant gift-giving and quarrelling. Talking and ‘Starballoon(cyber-currency as well as donating gift)’ is the media of relationships. The “flow” of activities reveals the sociality of AfreecaTV, which precedes individual desires.

The result draws attention to the structural coupling between the dichotomy of 'reality'/'virtuality', 'social'/'anti-social', 'state-law'/'native' etc. By naming persons/groups in AfreecaTV in self-deprecating ways, it represents self-description of AfreecaTV’s society, as ‘the system of violation.’

**Keywords:** AfreecaTV, livestreaming, cyberspace, media, social system, social differentiation

***Student Number:*** 2015-22537